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준 성 교수지도
박 사 학 위 청 구 논 문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이 국 정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

박 준 성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이 국 정

인 준 서

이국정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沈奎哲
심사위원 朴浩煥
심사위원 申哲昊
심사위원 朴堧成 인
심사위원 李成根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논문을 쓰면서 출산억제 정책이 옛그제 같은데 지금은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것과, 고령자도 경제성장을 위해,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에 시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적응이 필요함을 새삼 느낍니다.

감사해야 할 대상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다시 베풀어야 할 책임도 커짐을 압니다. 대학때부터 논문을 완성하기 까지 지도해주시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이끌어 주신 박준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면서 논문이 시작이라는 것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알겠습니다.

항상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들과 박호환 교수님, 백광호 선배 박사님, 이경근씨, 경영학과 이은수 조교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격려해 주신 이근형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저에게 주어진 것은 더욱 값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더욱 정진해서 주어진 것에 의미가 부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이국정 올림

논 문 개 요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은 저성장·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며, 생산가능인력의 부족 및 경제활동참여인력의 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빠른 노동인력의 유입·유출의 유동성이 제시되며, 부족인력을 통한 경제성장의 둔화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대두시키게 된다.

특히, 한국은 2008년 전후로 1인당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진입하게 되며, 명목상 이제 드디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은 1만불에서 2만불 진입 시 경제의 큰 어려움과 저성장을 경험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의 부족 및 경제활동 참여인력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된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고령인력 및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지속적 경제발전의 원천을 제공받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성장의 유무는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고용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 시점의 현상을 살펴보면,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이 계층이 가장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을 예상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실질경제성장률과 1인당국민소득 자료를 통한 측정을 시도했으며, 전연령 고용구조와 고령층 고용구조를 각각 비교하여, 어느 계층이 경제성장을 더욱 잘 예측하며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I의 전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전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는 부분적 채택 결과를 얻었으며, 전연령 생산가능인구, 전연령 경제활동인구, 전연령 취업률, 전연령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가설 II의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전연령 고용구조보다 더욱 많은 가설의 채택이 나타났으며,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고령층고용률, 실업률이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가설Ⅲ의 전연령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전연령 총인구, 전연령 생산가능인구, 전연령, 경제활동인구, 전연령 고용률이 1인당 국민소득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Ⅳ의 고령층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는 고령층 총인구,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취업률, 고령층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연령 고용구조보다 오히려, 고령층 고용구조가 경제성장과 관련성을 밀접하게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과의 관련성을 통해 고령층 고용구조의 특성이 결국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고용구조와 경제성장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실질경제성장률보다 오히려, 1인당국민소득을 변수로 하여 측정하는 것이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을 살펴보는 것에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목 차 -

제1장 연구배경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구성	3
제2장 경제성장과 고령층 고용구조	4
제1절 경제성장	4
1. 경제성장의 개념	4
1) GDP 개념	4
2) 1인당 국민소득	5
3)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5
2. 각국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6
제2절 노동력과 고령층	10
1. 각국의 노동력조사	10
1). 한국의 노동력조사	11
2). 일본의 노동력조사	19
3). EU의 노동력조사	26
4). 미국의 노동력조사	46
5). 각국 노동력조사구조의 비교	54
2. 고령층 고용구조	55
1) 고령층의 개념	55
2) 각국의 고령층의 변화추이	57
가. 한국 고령층 변화추이	57
나. 일본 고령층 변화추이	60
다. EU 고령층 변화추이	60
라. 미국 고령층 변화추이	61
마. 각국 고령층 변화추이 비교	62
3) 고령화 요인	65
4) 고령화의 문제점	67
3. 고령화 관련연구	68

4. 각국의 고령층 고용정책	72
1). 한국	73
2). 일본	73
3). 유럽	76
4). 미국	79
5) 기타	81
제3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82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변수	82
1. 연구 모형	82
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83
제2절 연구 가설	84
1.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	84
2. 고용구조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	87
제4장 실증분석	89
제1절 조사연구의 표본 및 분석방법	89
1. 연구표본	89
2. 분석방법	89
제2절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결과	89
1. 각 변수간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	89
2. 회귀분석결과	91
3. 시계열분석결과	116
1) 분석방법	116
2) 분석결과	117
제5장 결론	12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7
1. 회귀분석결과 요약	127
2. 시계열분석결과 요약	131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33
제3절 정책적 함의	134

【참고문헌】	138
【Abstract】	142

표 목 차

<표 1> 주요국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7
<표 2> 1인당 국민소득	9
<표 3> 한국의 노동력 구조	12
<표 4> 우리나라 비정규직 추이	19
<표 5> 일본의 노동력 구조	21
<표 6> 일본의 노동력조사의 비정규직의 분류와 규모	25
<표 7> 독일의 노동력 조사	29
<표 8> 스페인의 노동력 조사	33
<표 9> 영국의 노동력 조사	36
<표 10> 이탈리아의 노동력 구조	40
<표 11> 프랑스의 노동력 조사	43
<표 12> 미국의 노동력 조사	47
<표 13> 미국 한시적근로자, 대안적 근로형태	53
<표 14> 각국 노동력구조 비교	54
<표 15> 한국의 고령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55
<표 16> 외국의 고령화관련 기준	56
<표 17> 노령화지수	64
<표 18> 각국 고령층 도달 년도	64
<표 19> 국가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기 경제활동참가율비교	65
<표 20> 주요국 기대수명	66
<표 21> 연령별·상실사유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분포	70
<표 22>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75
<표 23> 전 연령 고용구조 상관관계 분석결과	90
<표 24> 55세 이상 고용구조 상관관계 분석결과	90
<표 25>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 모형요약	91
<표 26>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 계수	91
<표 27> 전 연령 총인구와 경제성장률의 모형요약	92
<표 28> 전 연령 총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계수	92

<표 29>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모형요약	93
<표 30>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계수	93
<표 31>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경제성장률 모형요약	93
<표 32>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경제성장률 관계계수	93
<표 33>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모형요약	94
<표 34>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계수	94
<표 35> 전 연령 고용률은 경제성장률의 모형요약	95
<표 36> 전 연령 고용률은 경제성장률의 계수	95
<표 37> 전 연령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요약	95
<표 38> 전 연령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	95
<표 39> 전 연령 실업률은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요약	96
<표 40> 전 연령 실업률은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	96
<표 41> 고용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요약	97
<표 42> 고용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	97
<표 43>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요약	98
<표 44>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	98
<표 45>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요약	98
<표 46>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	99
<표 47>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모형	99
<표 48>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계수	99
<표 49> 고령층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모형 요약	100
<표 50> 고령층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 요약	100
<표 51> 고령층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모형	101
<표 52> 고령층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	101
<표 53> 고령층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	101
<표 54> 고령층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	102
<표 55> 전 연령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 모형요약	102
<표 56> 전 연령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 계수	103
<표 57> 전 연령 총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모형요약	103
<표 58> 전 연령 총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계수	103

<표 59>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모형요약	104
<표 60>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계수	104
<표 61>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모형	105
<표 62>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계수	105
<표 63>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	105
<표 64>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계	106
<표 65> 전 연령 고용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모형요약	106
<표 66> 전 연령 고용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계수	106
<표 67> 전 연령 취업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모형요약	107
<표 68> 전 연령 취업률의 증감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관계 계수	107
<표 69> 전 연령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모형요약	108
<표 70> 전 연령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계수	108
<표 71> 고령층 고용구조와 1인당 국민 소득수준간의 관계 모형요약	108
<표 72> 고령층 고용구조와 1인당 국민 소득수준간의 관계 계수	109
<표 73>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 모형요약	109
<표 74>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 계수	110
<표 75>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 관계 모형요약	110
<표 76>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 관계 계수	110
<표 77>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모형요약	111
<표 78>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계수	111
<표 79> 고령층 고용률의 증감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모형요약	112
<표 80> 고령층 고용률의 증감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계수	112
<표 81> 고령층 취업률의 증감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련성 모형요약	112
<표 82> 고령층 취업률의 증감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련성 계수	113
<표 83> 고령층 실업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모형요약	113
<표 84> 고령층 실업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계수	113
<표 85> 가설검증에 대한 요약	114
<표 86> GDP 상승률 추정결과	116
<표 87> 1인당 GDP 추정결과	117
<표 88> 전 연령 인구 추정결과	118

<표 89>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 추정결과	119
<표 90> 전 연령 취업자 추정결과	120
<표 91> 전 연령 실업자 결과	121
<표 92> 55세이상 인구 결과	122
<표 93> 55세이상 취업자 결과	123
<표 94> 55세이상 실업자 결과	124
<표 95> 7개국 평균시계열결과 (2006부터 추정치)	125
<표 96> 7개국 평균 시계열분석결과	126
<표 97> 회귀분석에 의한 가설검증에 대한 요약	130

그 립 목 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변화추이	8
<그림 2> 연도별실질경제성장률	10
<그림 3> 한국의 노동력 구조	11
<그림 4> 총인구와 생산가능 인구 변화추이	14
<그림 5>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15
<그림 6>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16
<그림 7> 취업률 변화추이	16
<그림 8> 실업률 변화추이	16
<그림 9> 고용률 변화추이	17
<그림 10> 일본의 노동력구조	20
<그림 11> 노동력인구 변화추이	23
<그림 12> 노동력인구비율 변화추이	23
<그림 13> 취업률 변화추이	23
<그림 14> 완전실업률 변화추이	24
<그림 15> 고용률 변화추이	24
<그림 16> 유럽의 노동력 조사 구조 EU25	26
<그림 17> 독일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	30
<그림 18> 독일의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30
<그림 19> 독일의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30
<그림 20> 독일의 취업률 변화추이	31
<그림 21> 독일의 실업률 변화추이	31
<그림 22> 독일의 고용률 변화추이	31
<그림 23> 스페인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	34
<그림 24> 스페인의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34
<그림 25> 스페인의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34
<그림 26> 스페인의 취업률 변화추이	35
<그림 27> 스페인의 실업률 변화추이	35

<그림 28> 스페인의 고용률 변화추이	35
<그림 29> 영국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	37
<그림 30> 영국의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37
<그림 31> 영국의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38
<그림 32> 영국의 취업률 변화추이	38
<그림 33> 영국의 실업률 변화추이	38
<그림 34> 영국의 고용률 변화추이	39
<그림 35> 이탈리아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	41
<그림 36> 이탈리아의 경제활동가능인구 변화추이	41
<그림 37> 이탈리아의 경제활동가능인구비율 변화추이	41
<그림 38> 이탈리아의 취업률 변화추이	42
<그림 39> 이탈리아의 실업률 변화추이	42
<그림 40> 이탈리아의 고용률 변화추이	42
<그림 41> 프랑스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	44
<그림 42> 프랑스의 경제활동가능인구 변화추이	44
<그림 43> 프랑스의 경제활동가능인구비율 변화추이	45
<그림 44> 프랑스의 취업률 변화추이	45
<그림 45> 프랑스의 실업률 변화추이	45
<그림 46> 프랑스의 고용률 변화추이	46
<그림 47> 미국의 노동력 조사	46
<그림 48> 총인구와 생산 가능인구 변화 추이	49
<그림 49>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50
<그림 50>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50
<그림 51> 취업률 변화추이	50
<그림 52> 실업률 변화추이	51
<그림 53> 고용률 변화추이	51
<그림 54> 우리나라 출산물 및 출산아 수	57
<그림 55> 총인구 추계와 성장률	58
<그림 56> 연령대별 추계인구	59
<그림 57> 일본의 연령별 추계	60

<그림 58> 유럽 연령별 인구추계	61
<그림 59> 미국 연령별 인구추계	62
<그림 60> 고령층 인구 구성비 추계	63
<그림 61> 국가별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제 실태	71
<그림 62> 국가별 고용조정과 임금조정 유형	72
<그림 63> 연구모형	82
<그림 64> GDP 상승률 자기상관도표	116
<그림 65> 1인당 GDP 자기상관도표	117
<그림 66> 전 연령 인구 자기상관도표	118
<그림 67>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 자기상관도표	119
<그림 68> 전 연령 취업자 자기상관도표	120
<그림 69> 전 연령 실업자 자기상관도표	121
<그림 70> 55세 이상 인구 자기상관도표	122
<그림 71> 55세 이상 취업자 자기상관도표	123
<그림 72> 55세 이상 실업자 자기상관도표	124
<그림 73> 회귀분석 가설검증 요약	129
<그림 74 >시계열 분석결과 향후 추이 ('06-2030추세)	131

제 1장 연구배경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은 저성장·저 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는 속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및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부족은 고인건비 및 대체인력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며, 각국의 노동력 구조는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6년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9.1% 수준이므로 EU 평균 노인인구비율이 15%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의 진행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인력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의 잠재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와 저축의 감소를 초래하고, 연금과 의료비 부담 등의 증가로 국민 부담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고령화 현상은 성장 잠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박준성, 이준우, 2007).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말(2007년)을 전후해 2만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하던 1980년대 말 당시 세계일류국가였던, 미국, 일본, 스웨덴 등 9개국에 막 넘어서고 있었던 국민소득 수준이 바로 2만 불이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명목상 선진국으로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선진국들은 20년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어느덧 3만 불(2006년 현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쿠웨이크 등), 4만 불(미국, 필란드, 스웨덴, 영국 등), 5만 불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6만 불(노르웨이), 나아가, 7만 불(룩셈부르크)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은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인

구의 증가를 초래하여, 이로 인해 인력의 고용구조 및 고령인력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불 달성 이후 정체기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성장률의 둔화를 경험하며, 선진국들은 1만 불을 전후해 경제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6%p 둔화하였다. 더불어 일부 국가들은 복지 지출 증대와 더불어 버블을 키워 결국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다(윤수봉, 2004).

선진국 중에서도 2만 불 도달하기 위해 장기 정체를 경험한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들의 국가들도 있다.

이와 같이, 선진 국가들을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2만 불 도달의 시점이 저성장 및 과도기적 정체기의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경제성장률 및 1인당국민소득과 노동력구조와의 변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특히, 또한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인력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기에, 경제성장률과 고령층 고용구조의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전 연령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층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국의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 연령 고용구조와 고령층 고용구조, 경제성장률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 구성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경제성장률과 고령층 고용구조에 대한 연구배경 및 목적을 밝히고 논문의 개요를 설명한다.

제 2장은 경제성장의 개념과 노동력의 개념 및 변화추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제 3장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고령층 고용구조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변수의 정의 및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제 4장은 경제성장과 고령층 고용구조의 관계의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제 5장은 본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연구결과가 시사 하는 점과 한계점을 논의한다.

제 2 장 경제성장과 고령층 고용구조

제 1 절 경제성장

1. 경제성장의 개념¹⁾

경제성장률이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나라의 경제활동의 결과로 경제가 성장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 국민총생산(GDP) 이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커졌는가를 증감률(퍼센트)로 나타낸다. 일정시점의 국내총생산의 크기만으로는 우리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올해의 국내총생산과 작년의 국내총생산을 비교해서 국내총생산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성장률을 알아야 한다. 수식으로 표시해 보면 아래의 <식 1>과 같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 것처럼 한 나라의 경제규모도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후엔 느리게 성장한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대개 2~3% 수준이고 개발도상국들은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text{경제성장률(\%)} = \text{실질GDP성장률(\%)} = \frac{(\text{금년도실질GDP} - \text{전년도실질GDP})}{\text{전년도실질GDP}} \times 100$$

1) GDP (국내총생산) 개념²⁾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한 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즉 부가가치의 합을 국내총생산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GDP(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한다. 즉 국내총생산을 통하여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국내총생산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

1) 한국은행 통계용어정의

2) 한국은행 통계용어정의

가 일정기간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과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한 소득이 포함된다. 국내총생산이 많다는 것은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고 일자리도 많아 가정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 물건도 많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은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하는 등 투자를 하게 되고, 정부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1인당 국민소득³⁾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나라 안에서는 물론 외국에서 일정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액을 모두 합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총소득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총소득을 보면 나라 전체의 소득 수준은 알 수 있지만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는 국민총소득이 많더라도 인구가 많으면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을 통하여 국민 한 사람이 평균 얼마의 소득을 벌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서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다.

3) 명목소득과 실질소득⁴⁾

국내총생산(GDP) 수치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이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지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방법의 하나는 경제지표를 명목지표와 실질지표로 구분하는 것이다. 명목지표는 주로 지표의 작성 당시 유통되는 통화 액으로 산출된 경제지표를 말한다. 그런데 통화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화가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명목지표를 일정한 기준시점에 맞춰 조정된 지표를 실질지표라고 한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3) 한국은행 통계용어정의

4) 한국은행 통계용어정의

명목GDP, 실질GDP는 대상 경제주체의 소득이 발생할 당시의 통화액으로 측정된 소득을 명목소득이라고 하고, 통화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명목소득을 기준시점에 맞춰 조정한 것을 실질소득이라고 한다.

$$\text{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소득} = \text{명목소득}/(1 + \text{물가상승률})$$

2. 각국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의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적 추이를 OECD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각 국가들은 선진국 진입이전의 고성장을 경험하며, 선진국을 진입하는 시기 이후부터는 저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불 달성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나타내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선 시점 이후에는 저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2005년 현재 4.0%의 경제성장률을 경험하며,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2005년 현재, 2.6, 3.2, 0.9, 1.9%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국들은 저성장시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자료를 아래의 <표 1>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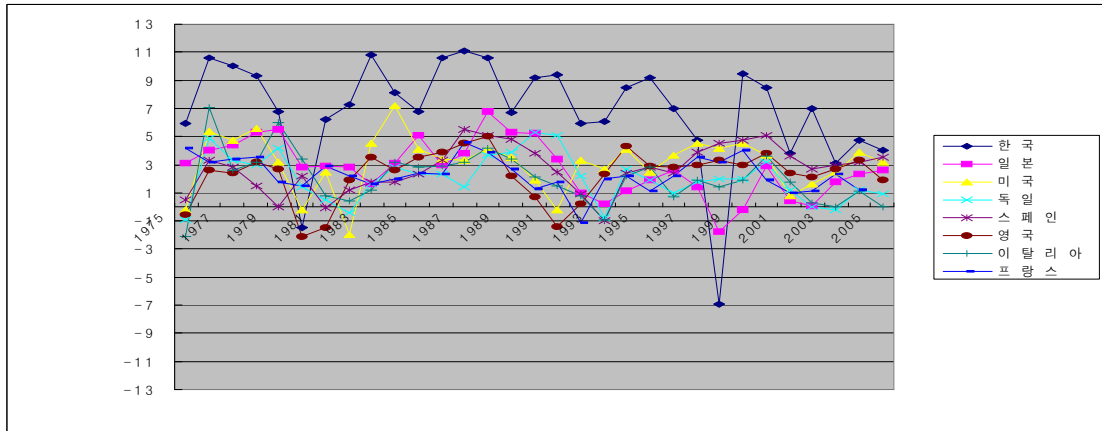
<표 1> 주요국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단위 :%)

년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1975	5.9	3.1	-0.2	-0.9	0.5	-0.6	-2.1	-0.3
1976	10.6	4.0	5.4	4.9	3.3	2.6	7.1	4.2
1977	10.0	4.4	4.7	3.3	2.8	2.4	2.6	3.2
1978	9.3	5.3	5.6	3.0	1.5	3.2	3.2	3.4
1979	6.8	5.5	3.2	4.2	-	2.7	6.0	3.5
1980	-1.5	2.8	-0.2	1.4	2.2	-2.1	3.4	1.8
1981	6.2	2.9	2.5	0.5	-0.1	-1.5	0.8	1.5
1982	7.3	2.8	-2.0	-0.4	1.2	1.9	0.4	2.9
1983	10.8	1.6	4.5	1.6	1.8	3.5	1.2	2.2
1984	8.1	3.1	7.2	2.8	1.8	2.6	3.2	1.6
1985	6.8	5.1	4.1	2.3	2.3	3.5	2.8	2.0
1986	10.6	3.0	3.4	2.3	3.3	3.9	2.9	2.4
1987	11.1	3.8	3.3	1.4	5.5	4.5	3.2	2.3
1988	10.6	6.8	4.1	3.7	5.1	5.0	4.2	4.6
1989	6.7	5.3	3.5	3.9	4.8	2.2	3.4	3.9
1990	9.2	5.2	1.9	5.3	3.8	0.7	2.1	2.7
1991	9.4	3.4	-0.2	5.1	2.5	-1.4	1.5	1.3
1992	5.9	1.0	3.3	2.2	0.9	0.2	0.8	1.8
1993	6.1	0.2	2.7	-0.8	-1.0	2.3	-0.9	-1.1
1994	8.5	1.1	4.1	2.7	2.4	4.3	2.2	2.0
1995	9.2	1.9	2.5	1.9	2.8	2.9	2.8	2.2
1996	7.0	2.6	3.7	1.0	2.4	2.8	0.7	1.1
1997	4.7	1.4	4.5	1.8	3.9	3.0	1.9	2.2
1998	-6.9	-1.8	4.2	2.0	4.5	3.3	1.4	3.5
1999	9.5	-0.2	4.5	2.0	4.7	3.0	1.9	3.2
2000	8.5	2.9	3.7	3.2	5.1	3.8	3.6	4.0
2001	3.8	0.4	0.8	1.2	3.6	2.4	1.8	1.9
2002	7.0	0.1	1.6	-	2.7	2.1	0.3	1.0
2003	3.1	1.8	2.5	-0.2	3.0	2.7	-	1.1
2004	4.7	2.3	3.9	1.2	3.2	3.3	1.1	2.3
2005	4.0	2.6	3.2	0.9	3.5	1.9	-	1.2

자료원: OECD Factbook 2007: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변화추이



1975년 현재 한국은 1436\$ 일본,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사한 1인당 국민소득 4,600~ 7,519\$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수치를 기록한다. 각 국가들은 10,000 \$ ~ 20,000달러 진입 시 대부분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되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그 일자리는 여성인력 및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며, 이 시기를 중심으로 각 국가들은 선진국에 진입을 하게 된다. 선진국 진입 후 공통적으로 선진국들은 저성장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 표2 > 1인당 국민소득의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1993년 1인당 국민소득 10,000을 달성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5%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경험하다 1997년 IMF사태를 경험하고 1998년은 오히려 -6.9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국민소득은 13,644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했다. 반면에, 각 국가별로, 일본은 1991년, 미국은 1988년, 독일 1992년, 스페인 2000년, 영국 1996년, 이탈리아는 1994년, 프랑스는 1994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달성하는 시점을 전후로 저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표 2> 1인당 국민소득

(단위 \$)

년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1975	1436	5305	7519	5698	4600	5523	5407	5912
1976	1653	5769	8299	6353	4967	5996	6095	6492
1977	1904	6,342	9,144	6,996	5,367	6,531	6,619	7,094
1978	2,193	7,081	10,227	7,721	5,763	7,217	7,288	7,812
1979	2,499	8,022	11,304	8,707	6,189	8,016	8,339	8,722
1980	2,643	8,927	12,159	9,608	6,826	8,547	9,389	9,637
1981	3,022	9,979	13,501	10,550	7,412	9,208	10,344	10,635
1982	3,389	10,804	13,907	11,160	7,919	9,965	11,013	11,538
1983	3,845	11,333	14,974	11,816	8,338	10,718	11,578	12,189
1984	4,260	12,047	16,509	12,651	8,770	11,386	12,397	12,784
1985	4,643	12,967	17,557	13,373	9,215	12,119	13,132	13,375
1986	5,199	13,575	18,396	13,980	9,698	12,847	13,808	13,935
1987	5,877	14,410	19,363	14,562	10,492	13,770	14,640	14,573
1988	6,660	15,846	20,664	15,541	11,380	14,921	15,770	15,685
1989	7,306	17,249	21,997	16,639	12,358	15,776	16,910	16,824
1990	8,203	18,785	23,012	18,033	13,301	16,456	17,910	17,851
1991	9,195	20,015	23,456	19,465	14,092	16,741	18,802	18,613
1992	9,857	20,598	24,470	20,203	14,516	17,121	19,376	19,285
1993	10,594	21,055	25,374	20,353	14,664	17,874	19,633	19,430
1994	11,623	21,675	26,636	21,271	15,303	18,988	20,474	20,172
1995	12,818	22,484	27,542	22,050	16,023	19,887	21,482	20,962
1996	13,843	23,448	28,780	22,679	16,702	20,943	22,196	21,665
1997	14,592	24,113	30,228	23,208	17,433	22,312	22,846	22,752
1998	13,644	23,888	31,485	23,867	18,527	23,275	23,960	23,804
1999	15,047	24,135	32,994	24,422	19,815	23,989	24,471	24,408
2000	16,344	25,497	34,574	25,568	21,086	25,588	25,886	25,938
2001	17,253	26,149	35,308	26,352	22,333	27,092	26,818	27,278
2002	18,453	26,742	36,140	27,108	23,762	28,978	27,471	27,961
2003	19,335	27,738	37,470	28,933	24,880	29,873	27,267	27,697
2004	20,723	29,173	39,660	29,916	26,018	31,780	27,744	29,006
2005	22,098	30,842	41,789	30,777	27,400	32,860	28,094	30,266

자료원 : OECD Factbook 2007: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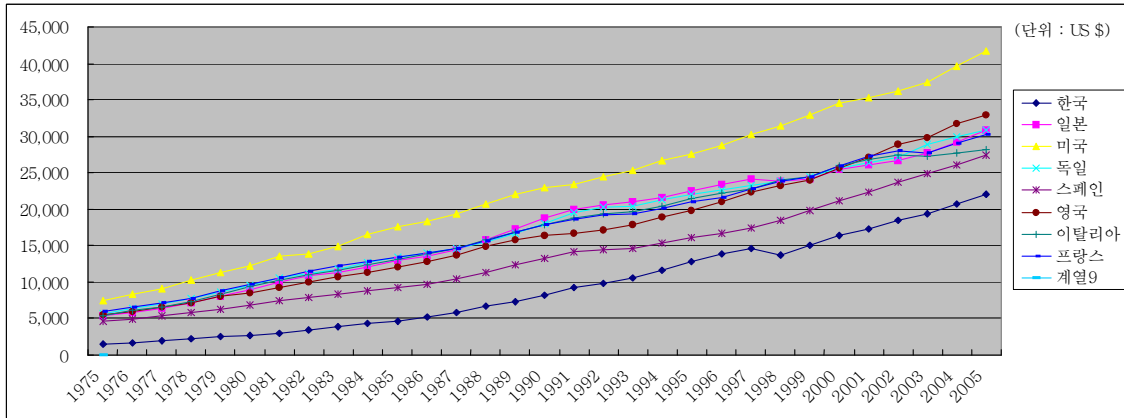
GDP per capita (US dollars, current prices and PPDS)

*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 : PPP) (출처 : 통계청 용어정의)

국민계정(SNA)에 따르면, 동일한 제품에 대한 A, B 두 국가 간의 가격비율은 A 국에서 A국 통화 한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양을 B국 에서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B국 통화단위의 수를 측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을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두 통화간의 구매력평가(PPP)라고 한다. 환율(exchange rate)은 각국 간의 물가수준차이와는 관계없이 거시경제 요소(물가 지수 산정에 있어 국내 재와 국제재의 가격 및 구성의 변동, 자금거래 및 투기성거래 등)에 의해 결정되어 각국 화폐간의 상대적 구매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표로서, PPP는 각국화폐의 구매력을 고려한 화폐 변환율(rate of currency conversion)을 의미한다.

<그림 2> 연도별실질경제성장률



제 2 절 노동력과 고령층

1. 각국의 노동력 조사

고령화에 따라 우리사회도 고령층의 노동력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노동력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있으며 연령별 노동력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본다. 노동력이란 어떤 국민경제 내에 포함된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또는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인구의 수를 가리키는데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경제활동인구는 나라마다 분류기준은 다르나 다시 크게 취업자와 실업자 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 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데 이는 주로 학생, 가정주부, 노약자, 심신장애자, 불구자, 불로소득자 등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다가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경제활동인구로 다시 분류된다. 생산 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또는 노동력비율이라고 하며, 노동력률이라고도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크기가 같은 두 나라에서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름에 따라 실제로 노동력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는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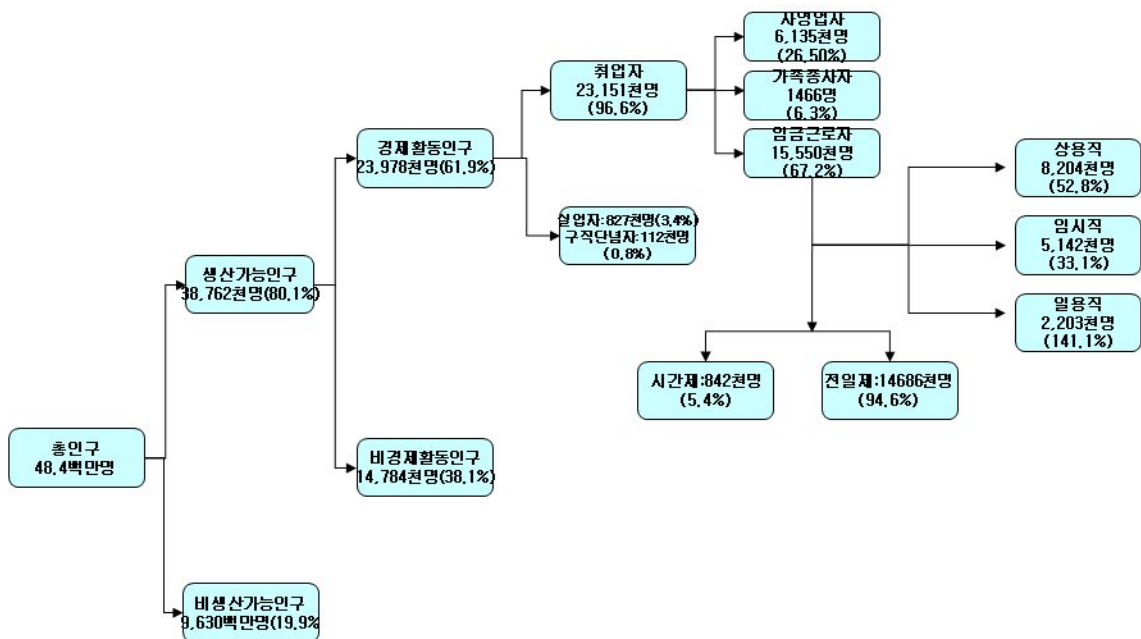
라지게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우 차이가 있으며, 하나의 국민경제 내부에서도 연령계층별 또는 성별로도 다른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활동인구의 크기는 어떤 국민경제의 인적자원의 크기를 나타내고 국민경제의 생산력이나 GDP의 크기를 결정해 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잠재능력도 어느 정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1) 한국의 노동력조사

조사대상 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대상으로 약 32,000 표본가구에 대해 통계청에서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

<그림 3> 한국의 노동력 구조 (2006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6)

<표 3> 한국의 노동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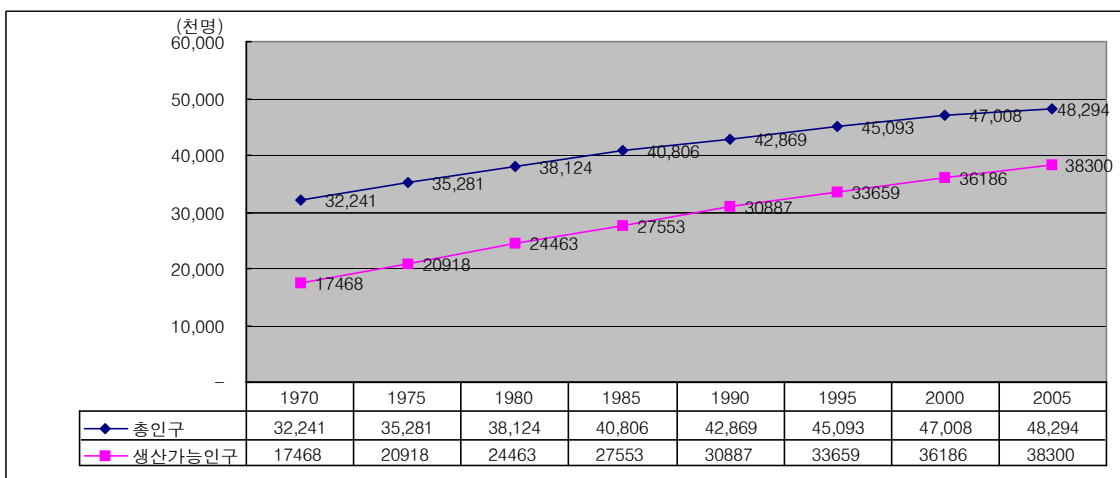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 인구 (천명)	32,241	35,281	38,124	40,806	42,869	45,093	47,008	48,294
생산가능 인구(천명)	17468	20918	24463	27553	30887	33659	36186	38300
생산가능 인구비율 (%)	54.18	59.29	64.17	67.52	72.05	74.64	76.98	79.31
경제활동 인구(천명)	10,062	12,193	14,431	15,592	18,539	20,845	22,069	23,689
경제활동 인구비율 (%)	57.6	58.3	59	56.6	60	61.9	61	61.9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22,179	23,088	23,693	25,214	24,330	24,248	24,939	24,605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	42.4	41.7	41	43.4	40	38.1	39	38.1
취업자 (천명)	9,617	11,691	13,683	14,970	18,085	20,414	21,156	22,856
취업률(%)	95.58	95.88	94.82	96.01	97.55	97.93	95.86	96.48
실업자 (천명)	445	501	748	622	454	430	913	833
실업률(%)	4.4	4.1	5.2	4	2.4	2.1	4.1	3.5
자영업자 (천명)	3286	4008	4651	4679	5068	5569	5864	6172
자영업자율 (%)	34.17	34.28	33.99	31.26	28.02	27.28	27.72	27.00
가족종사자 (천명)	2586	2932	2569	2187	2067	1946	1931	1499
가족종사자 비율 (%)	26.89	25.08	18.78	14.61	11.43	9.53	9.13	6.56
임금근로자 (천명)	3746	4751	6464	8104	10950	12899	13360	15185
임금근로자 비율 (%)	38.95	40.64	47.24	54.13	60.55	63.19	63.15	66.44
시간제 (천명)	-	-	-	-	807.83	879.01	1471.09	2020.10
시간제비율 (%)	-	-	-	-	4.47	4.31	6.95	8.84
전일제 (천명)	-	-	-	-	17,172	19,395	19,477	20,504
전일제비율 (%)	-	-	-	-	94.95	95.01	92.06	89.71
상용직 (천명)	-	-	-	-	5938	7499	6395	7917
상용직비율 (%)	-	-	-	-	54.23	58.14	47.87	52.14
일용직 (천명)	1018	1123	1300	1390	1840	1802	2357	2212
일용직비율 (%)	27.18	23.64	20.11	17.15	16.80	13.97	17.64	14.57
고용률(%)	55.05	55.89	55.93	54.33	58.55	60.65	58.46	59.68

- ① 총인구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생산 가능인구 : 한국은 만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눈다.
- ③ 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 ④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된다.
- ⑤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구직기간 1주 기준 실업자와, 구직기간 4주 기준 실업자로 나누어진다.
- ⑥ 구직 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으로 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1)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조사 대상 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3)자격이 부족하여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⑦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 ⑧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⑨ 가족종사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

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 ⑩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한 임금, 봉급, 일당은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 ⑪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⑫ 전일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산근로시간동안 근로하는 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⑬ 상용근로자(상용직)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 ⑭ 임시근로자(임시직)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⑮ 일용근로자(일용직)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한다.
- ⑯ 고용주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⑰ 취업률 : 취업자/경제활동인구 비율
- ⑱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비율
- ⑲ 고용률 : 취업자/만15세 이상 인구비율

<그림 4> 총인구와 생산가능 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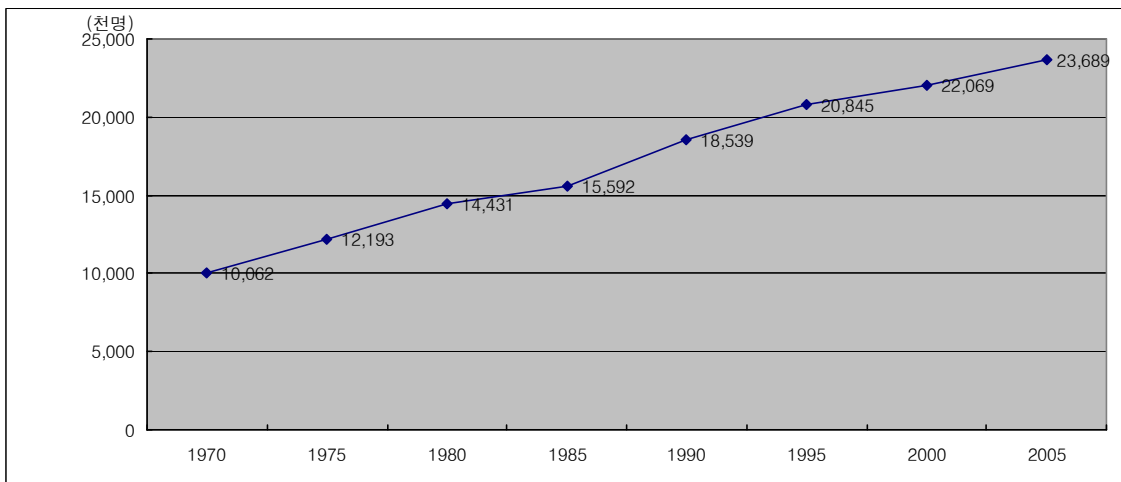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70년 32.2백만 명에서 2005년 48.2백만 명으로 16백만 명(50%)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17.4백만 명(54.1%)에서 38.3백만 명(79.3%)으로 20.9백만 명(123%)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10.0백만 명(57.6%)에서 23.6백만 명(61.9%)으로 13.6백만 명(130%)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증가가 총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985년, 2000년에 조금 하락한 시점도 있지만 '05년 현재까지 상승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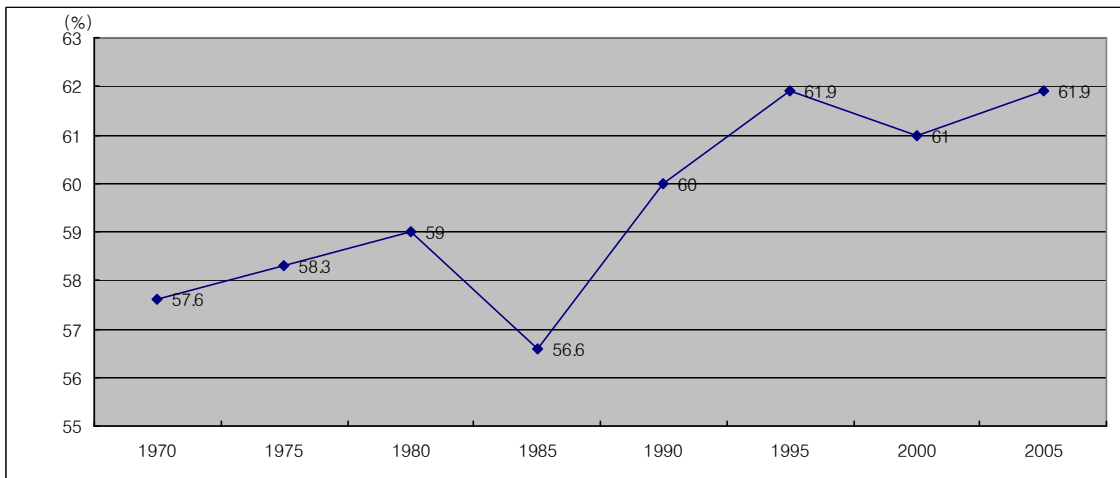
취업자는 70년 9.6백만 명(취업률95.5%)에서 '05년 22.8백만 명(취업률 96.4%)로 취업자 수는 13백만 명 증가하고 취업률은 70년보다 조금 상회한 수준이다.

실업자는 70년 0.4백만 명(실업률4.4%)에서 IMF전인 '97년 0.5백만 명(실업률 2.6%)에서 IMF시기인 98년 1.4백만 명(실업률7%)까지 오르다가 '05년 3.5%로 호전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비율인 고용율은 70년 55.0%에서 '05년 59.6%로 상승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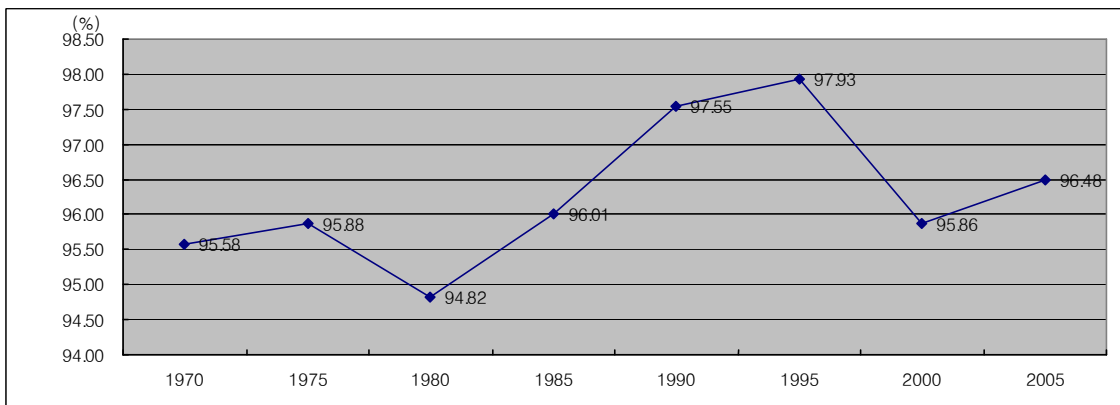
<그림 5>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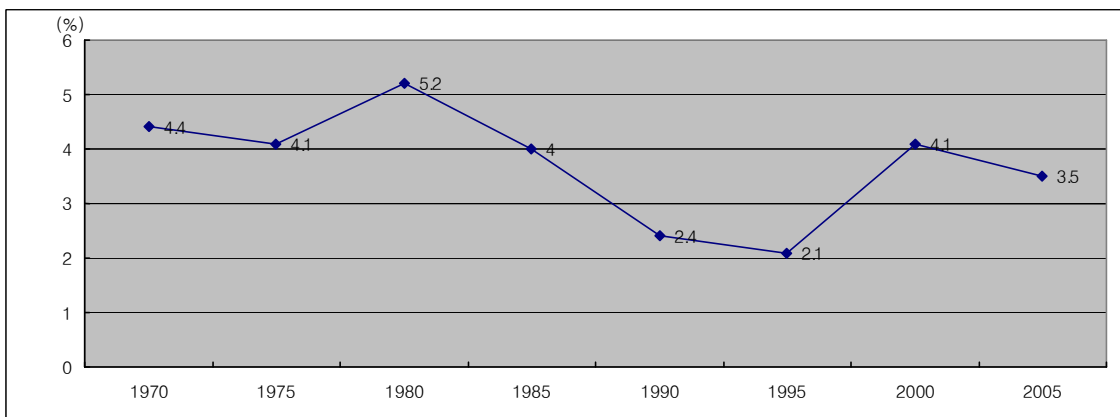
<그림 6>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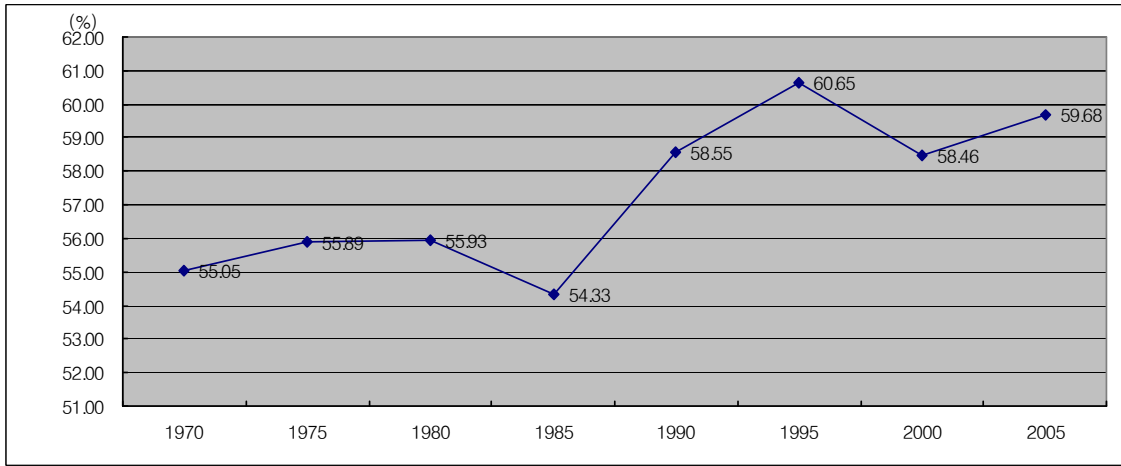
<그림 7> 취업률 변화추이



<그림 8> 실업률 변화추이



<그림 9> 고용률 변화추이



(2)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임시, 일용직 급증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부 분석 및 파견, 용역근로 등 새로운 근로형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부터 년2회 취업자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비정규근로자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 한시적 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 비 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②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
- ③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가 해당된다.
- ④ 전일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동안 근로하는 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⑤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⑥ 비전형 근로자 :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일일근로자를 말한다.
- ⑦ 파견근로자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다.

- ⑧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이다.
- ⑨ 특수고용근로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이다.
- ⑩ 가정 내 근로자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이다.
- ⑪ 일일(단기)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규모는 2002년 3840천명 (취업자대비 18.0%)에서 2006년 5457천명(취업자대비 25%)로 1617천명 ('02대비 42%, 취업자대비 7%) 증가하였다.

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는 '02년 2,063천명 (비정규직의 53.7%)에서 2007년 3,546천명(62.1%)로 1,483천명('02대비 71.8%) 증가하고 구성비로는 8.4%증가하였다, 시간제근로자는 '02년 807천명(21.0%)에서 '07년 1201천명(21.0%)으로 394천명 증가하고 구성비로는 같은 수준이다. 유지하고 있다.

특수근로자는 '02년 772천명(20.1%) 에서 '07년 635천명(11.1%)으로 137천명(9%) 감소하였다. 파견근로자는 '02년 93천명(2.4%)에서 '07년 174천명(3.0%)으로 81천명(0.6%) 늘어났고, 용역근로자는 '02년 332천명(8.6%)에서 '07년 593천명(10.0%)으로 261천명(1.4%) 늘어 비정규직의 주요 증가형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주요형태인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가 주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우리나라 비정규직 추이

년도	비정규근 로자	한시적근 로자	시간제근 로자	단기근로	특수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2002	3840	2063 (53.7)	807 (21.0)	412 (10.7)	772 (20.1)	93 (2.4)	332 (8.6)	236 (6.1)
2003	4606	3013 (65.4)	929 (20.2)	589 (12.8)	600 (13.0)	98 (2.1)	346 (7.5)	166 (3.6)
2004	5394	3597 (66.7)	1072 (19.9)	666 (12.3)	711 (13.2)	117 (2.2)	413 (7.7)	171 (3.2)
2005	5483	3615 (65.9)	1045 (19.1)	718 (13.1)	634 (11.6)	118 (2.2)	430 (7.8)	141 (2.6)
2006	5457	3626 (66.5)	1135 (20.8)	667 (12.2)	617 (11.3)	131 (2.4)	498 (9.1)	175 (3.2)
2007.8	5703	3546 (62.1)	1201 (21.0)	-	635 (11.1)	174 (3.0)	593 (10.0)	-

주: 비정규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는 비정규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보도자료 각년도 (총수,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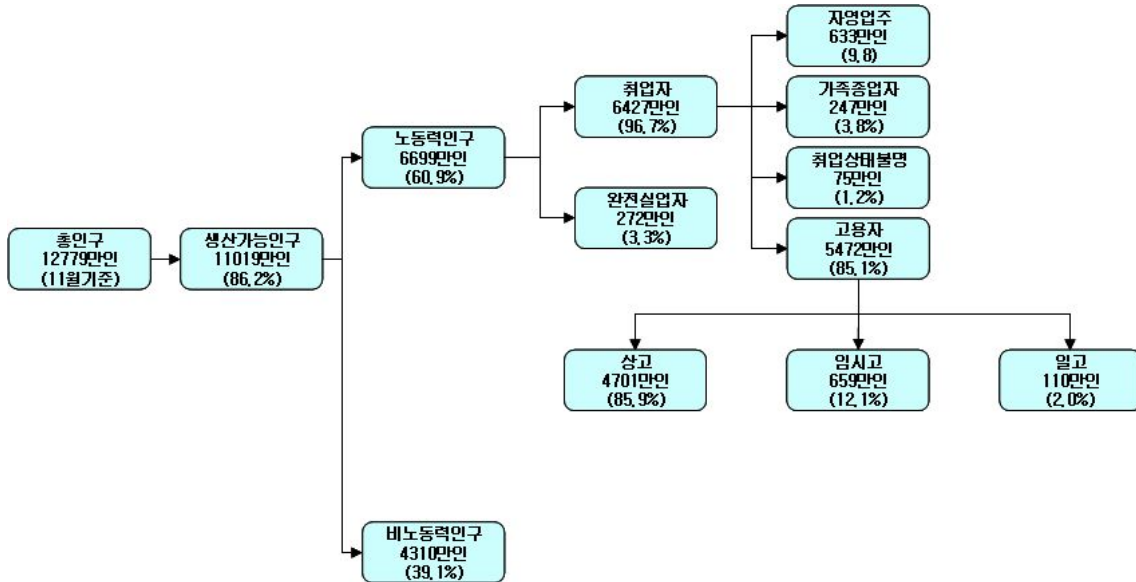
2) 일본의 노동력조사

가. 일본의 노동력조사

일본은 노동력조사로 국민의 취업 및 미취업 상태를 매월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쇼와21(1946)년부터 매월 실시, 헤세이 14년 1월에는, 그것까지 연 1회 혹은 연 2회, 노동력 조사의 결과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노동력 조사 특별 조사를 노동력 조사에 통합했다.(대상 : 15세 이상의 사람 약 10만 명).

일본의 노동력 조사 방법은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조사주간중의 활동 상태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그림 10> 일본의 노동력구조(2006, 총무성)



일본의 총인구는 70년 103.7 백만 명에서 '05년 127.7 백만 명으로 24백만 명 (23.3%) 증가하고, 생산 가능인구는 78.8백만 명(76.0%)에서 110백만 명(86.1%)으로 31.2백만 명('70대비 39.5%, 구성비10.1%) 증가하였다.

노동력인구는 51.5 백만 명(65.3%)에서 66.5백만 명(60.4%)으로 15백만 명(29.1%)증가하고 노동력인구비율(15세 이상인구/총인구)은 낮아졌다.

취업률은 98.8%에서 95.5%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15세 이상 인구 중 고용률도 64.6%에서 57.7%로 지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1.14%에서 4.42%로 계속 높아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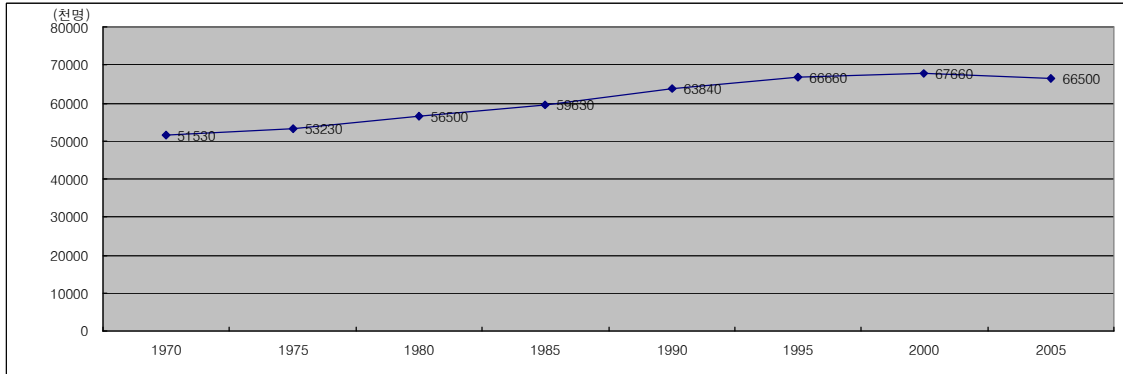
<표 5> 일본의 노동력 구조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인구(천명)	103,720	111,520	116,800	120,750	123,540	125,570	127,027	127,768
생산가능인구 (천명)	78,850	84,430	89,320	94,650	100,890	105,100	108,360	110,070
생산가능인구 비율(%)	76.02	75.71	76.47	78.39	81.67	83.70	85.30	86.15
노동력인구 (천명)	51,530	53,230	56,500	59,630	63,840	66,660	67,660	66,500
노동력인구비 율(%)	65.35	63.05	63.26	63.00	63.28	63.43	62.44	60.42
비노동력인구 (천명)	27,230	30,950	32,490	34,500	36,570	38,360	40,570	43,460
비노동력인구 비율(%)	52.84	58.14	57.50	57.86	57.28	57.55	59.96	65.35
취업자(천명)	50,940	52,230	55,360	58,070	62,490	64,570	64,460	63,560
취업률(%)	98.86	98.12	97.98	97.38	97.89	96.86	95.27	95.58
완전실업자 (천명)	590	1,000	1,140	1,560	1,340	2,100	3,200	2,940
완전실업률 (%)	1.14	1.88	2.02	2.62	2.10	3.15	4.73	4.42
자영업주 (천명)	9,770	9,390	9,510	9,160	8,780	7,840	7,310	6,500
자영업주비율 (%)	19.18	17.98	17.18	15.77	14.05	12.14	11.34	10.23
가족종사자 (천명)	8,050	6,280	6,030	5,590	5,170	3,970	3,400	2,802
가족종사자비 율(%)	15.80	12.02	10.89	9.63	8.27	6.15	5.27	4.41
취업상태불명 (천명)	-	-	-	-	-	-	190	328
취업상태불명 비율(%)	-	-	-	-	-	-	0.29	0.52
고용자(천명)	33,060	36,460	39,710	43,130	48,350	52,630	53,560	53,930
고용자비율 (%)	64.90	69.81	71.73	74.27	77.37	81.51	83.09	84.85
상고(천명)	30,230	33,460	35,860	38,660	43,160	47,090	46,840	46,310
상고비율(%)	91.44	91.77	90.30	89.64	89.27	89.47	87.45	85.87
임시고(천명)	1,650	1,770	2,560	3,210	3,930	4,330	5,520	6,500
임시고비율 (%)	4.99	4.85	6.45	7.44	8.13	8.23	10.31	12.05
일고(천명)	1,180	1,230	1,300	1,260	1,260	1,200	1,190	1,120
일고비율(%)	3.57	3.37	3.27	2.92	2.61	2.28	2.22	2.08
고용률(%)	64.60	61.86	61.98	61.35	61.94	61.44	59.49	5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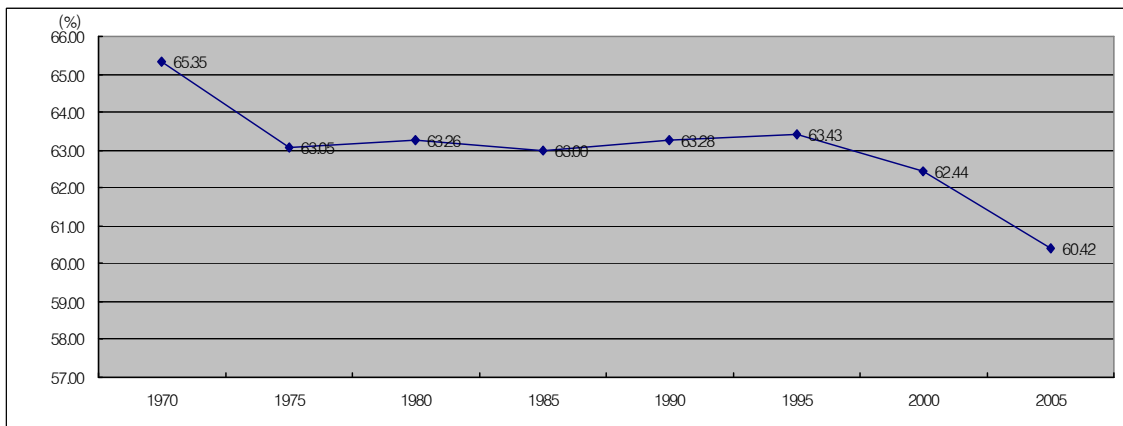
- ① 총인구 : 일본에 거주하는 자로 재외국인을 포함
- ② 노동력 인구 :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완전 실업자를 맞춘 것이다.
- ③ 비노동력 인구 : 15세 이상 인구로 상기 노동력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 ④ 취업자 : 종업원과 휴업자로 구분한다.
- ⑤ 완전 실업자 : 다음의 3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 1) 일이 없어서 조사주간 중에 조금도 일을 하지 않았다. (취업자는 아니다)
 - 2) 일이 있으면 곧 종사할 수가 있다.
 - 3) 조사기간 중에, 일을 찾는 활동이나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거의 구직 활동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⑥ 자영업주 : 개인경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 ⑦ 가족 종업원 :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그 자영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 ⑧ 고용자 : 회사, 단체, 관공청 또는 자영 업주나 개인의 가정으로 고용해져, 급여, 임금을 얻고 있는 사람 및 회사, 단체의 임원을 말한다.
- ⑨ 상고 : 고용자 가운데, 임시고, 날품팔이 이외의 사람이다.
- ⑩ 임시고 :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고 있는 사람이다.
- ⑪ 일고 : 일일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⑫ 종업원 : 조사 주간 중에 수입을 수반하는 일을 1시간 이상 한사람 덧붙여 가족 종업원의 경우는 무급이어도 일을 했다고 한다.
- ⑬ 휴업자 : 일을 가지면서, 조사주간 중 조금도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 1) 고용자로, 급여, 임금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
 - 2) 자영업주로, 자신의 경영하는 사업을 가진 채로, 그 일을 쉬어 시작한 다음 30일이 되지 않는 사람. 가족 종업원으로 조사기간 중에 조금도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휴업에 포함하지 않고, 완전 실업자 또는 비노동력 인구로 하고 있다.
- ⑭ 노동력인구비율 : 15세 이상 인구에게 차지하는 노동력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 ⑮ 고유 업주 : 보통 한 명 이상의 유급의 종업원을 고용해 개인경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 ⑯ 고무직주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만으로 또는 자신과 가족만으로 개인 경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자택에서 부업(샅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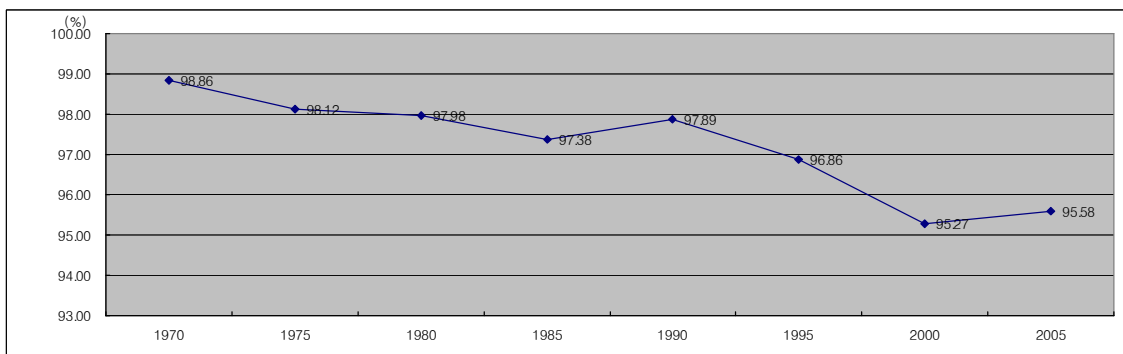
<그림 11> 노동력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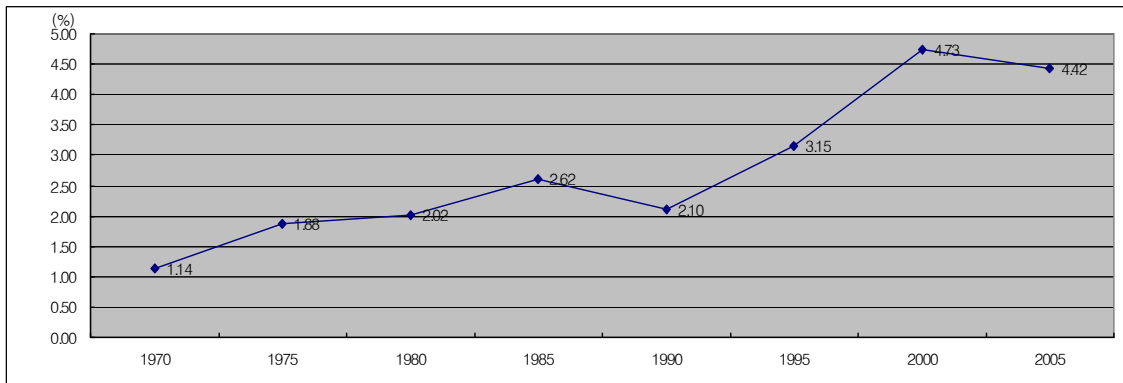
<그림 12> 노동력인구비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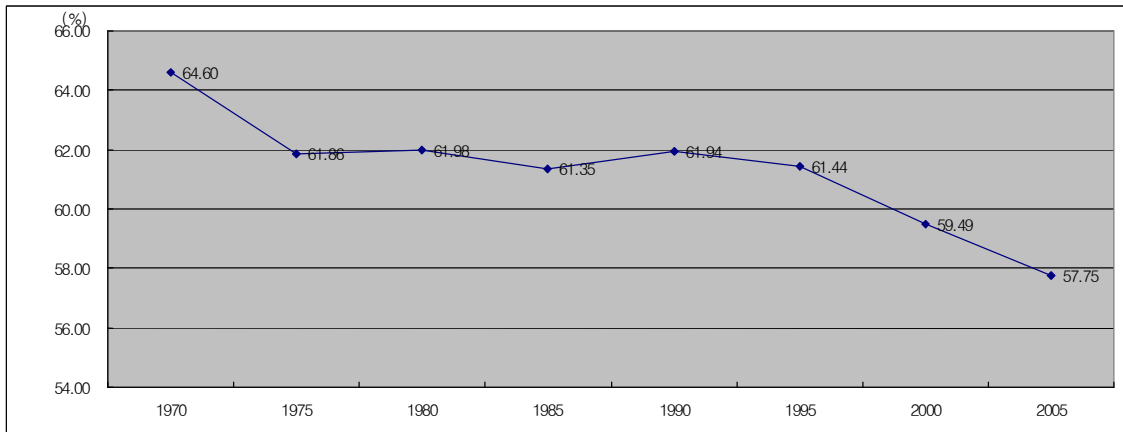
<그림 13> 취업률 변화추이



<그림 14> 완전실업률 변화추이



<그림 15> 고용률 변화추이



나. 노동력 특별조사

- ① 정사원 :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중 특별히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는 자. 파트타이머나 타 기업에 출향한자 제외된다.
- ② 비정사원 : 이른바, 정사원 이외의 노동자(계약사원, 임시적 고용자, 단시간의 파트타이머, 기타 파트타이머, 출향사원, 파견노동자, 기타)를 말한다.
- ③ 계약사원 : 전문적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에 기초하여 고용 기간을 정하고 있는 자이다.
- ④ 임시적 고용자 : 임시적으로 또는 일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1개월 이내의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자이다.
- ⑤ 파트타이머 : 하기의 단시간의 파트타이머 및 기타 파트타이머를 말한다.
 - 단시간파트타이머 : 이른바 정사원보다 1일의 소정근로 시간이 짧거나, 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적은 자. 고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거나 정하지 않은 자이다.

- 기타파트타임어 : 이른바, 정사와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거의 같은 자. 고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거나 정하지 않은 자로 파트타임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불리는 자를 말한다.

주당 35시간미만 일하는 사람. 모든 일을 막론하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

- ⑥ 출향사원 : 타 기업으로 출향계약에 기초하여 출향간 자, 출향 보낸 기업에 적을 두고 있는 가 아닌가는 묻지 않는다.
- ⑦ 파견노동자 : 노동자 파견법에 기초하여 파견사업소로부터 파견된 자이다.
- ⑧ 기타 : 상기 이외의 노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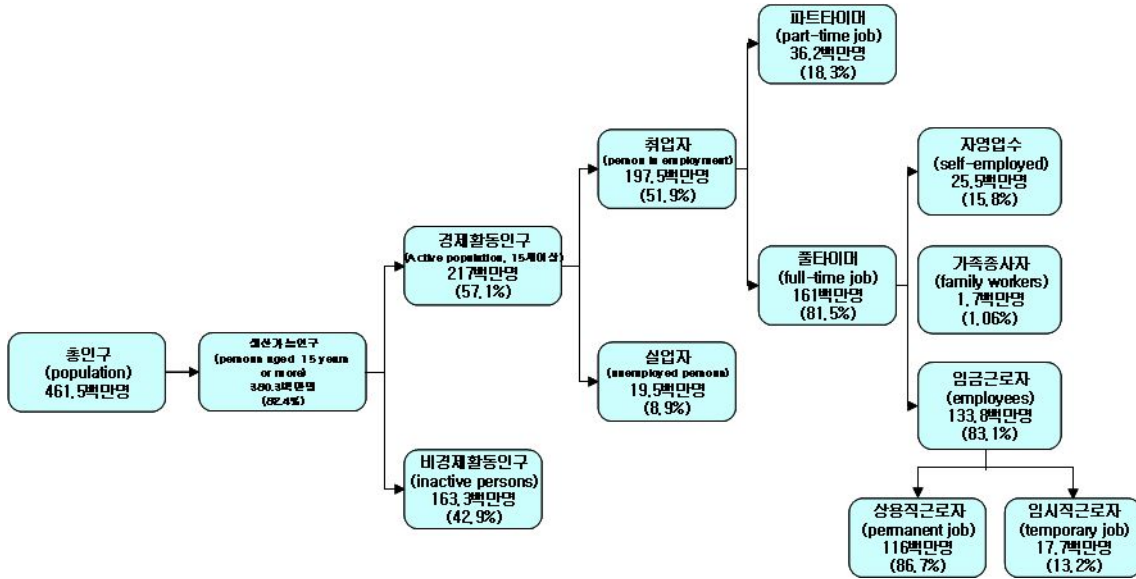
<표 6> 일본의 노동력조사의 비정규직의 분류와 규모

일본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비정사원	천명	14,510	15,040	15,640	16,330	16,770
	%	(29.37)	(30.40)	(31.44)	(32.61)	(32.96)
파트타임어	천명	7,180	7,480	7,630	7,800	7,920
	%	(49.48)	(49.73)	(48.79)	(47.76)	(47.23)
아르바이트	천명	3,360	3,420	3,330	3,400	3,330
	%	(23.16)	(22.74)	(21.29)	(20.82)	(19.86)
파견사원	천명	430	500	850	1,060	1,280
	%	(2.96)	(3.32)	(5.43)	(6.49)	(7.63)
계약· 촉탁사원	천명	2,300	2,360	2,550	2,780	2,830
	%	(15.85)	(15.69)	(16.30)	(17.02)	(16.88)
기타	천명	1,250	1,290	1,280	1,290	1,410
	%	(8.61)	(8.58)	(8.18)	(7.90)	(8.41)

일본의 비정규직은 '02년 14,510천명(29.3%)에서 '06년 16,770천명(32.9%)로 증가하였다. 형태별로는 파트타임어 '02년 7,180천명(49.4%)에서 '06년 7,920천명(47.2%)로 비정규직 구성비에서 -2.2%감소하고 , 아르바이트는 3,360천명(23.1%)에서 3,330천명(19.8%)로 -3.3%감소하였다, 반면 파견사원은 430천명(2.96%)에서 1,280천명(7.63%)으로 구성비에서 4.6%, '02대비 197% 급격히 증가하고, 계약·촉탁사원은 2,300천명(15.8%)에서 2,830천명(16.8%)으로 구성비 1%, '02대비 23% 증가하여 비정규의 주구성은 파트타임어와 아르바이트 형태이나 감소추세이고 파견사원 형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EU⁵⁾의 노동력조사

<그림 16> 유럽의 노동력 조사 구조 EU25(2005)



출처 eurostat ,EU labour force principal results 2005

* EU (유럽연합) : 현재 27개국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태리,룩셈부르크,네덜란드 EU6/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EU9/그리스 EU10/ 포르투갈, 스페인 EU12/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EU15 / 사이프러스,체코,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

리투아니아,말타,핀란드,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EU25/불가리아,루마니아 EU27

- ① 총인구(population) : 영토 내 거주하는 자 (영주자, 외국국적소유자, 임시부재자, 해외주재국민, 어부, 외교관, 추방당한국외국민 포함)
- ② 생산 가능인구 : 15세이상 인구
- ③ 경제활동인구 (Economic activity) (active population) :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 취업자는 15세 이상을 대상 (스페인,영국은 16세 이상)
- ④ 비경제활동인구 (Inactive persons) : 취업자나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 한편 전일제 근로자는 다시 자영업자(self-employed), 가족종사자(family workers) 그리고 종업원(employees)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중 종업원을 다시 상용직(permanent job)과 임시직(temporary job)으로 구분한다.

- ⑤ 취업자 (Employment)(person in employment) : 조사 주간 중 1시간이상 급여가 있는 일을 가진 15세 이상의 근로자(영국,스페인 16세 이상) 또는 임시로 잠시 일을 떠난 사람과 가족 종업 자를 포함한다.
- ⑥ 실업자 (unemployed persons) : 15-74세의 사람(영국, 스페인 16-74세)으로 조사주간 일이 없는 사람으로 4주간 구직을 하지 않거나 3개월 내 일을 시작할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 ⑦ 파트타임어 (part-time worker) :주당 35시간미만 근로자를 말한다.
- ⑧ 풀 타임어 (full-time worker) : 최하 35시간 이상 근로자를 말한다.
- ⑨ 자영업자 (Self-employed persons)(Self-employed):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 일이나 농장 자신의 사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⑩ 가족종사자 (family worker) : 가족 등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농장이나 전문적 일 사업을 위해 공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⑪ 임금근로자 (employees) : 공공기관 또는 개인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임금, 급여, 수수료, 감사 등 어떤 종류의 형태로든 보수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직업군인을 포함한다.
- ⑫ 상용직근로자 (permanent employment) (permanent job)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 ⑬ 임시직근로자 (temporary employment) (temporary job) : 제한된 기간의 계약 체결 되어 일하는 사람으로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계절근로자, 파견회사나 특정과업을 수행하기위해 고용된 사람 또는 교환근로자, 특정 훈련을 목적으로 계약된 사람으로 만일 일의 종료나 계약에 대하여 결과에 대한 특정기준이 없다면 이는 상용직이나 무기계약자로 보아야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임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 . 유기근로자 (fixedterm contracts) : 특정기간 혹은 사전에 고용종료 시기를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 . 임시파견노동자(temporary agency worker) : 임시직파견업체(TWA)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 특정과업계약근로자(contracts for a specific task) : 특정 과업의 완수 기간 동안만 일하는 계약근로자를 말한다.
 - . 대체계약근로자(replacement contracts) : 예컨대 휴직자를 대체하여 고용된 계

약근로자를 말한다.

- . 계절적 근로자 (season work) : 특정 기간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 호출근로자 (on-call works) : 필요와 요청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이다.
- . 일용근로자 (daily workers) : 일용 기준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 훈련생근로자 : 도제계약이나 훈련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 단 훈련 기간이 끝난 다음 상용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 . 일자리 창출형 근로자: 청소년,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 기관의 일자리 창출용으로 고용된 근로자이다.

- 독일의 노동력구조

독일의 총인구는 '85년 77.7백만 명에서 '05년 82.5백만 명으로 4.8백만 명 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는 51백만 명(65.7%)에서 70백만 명(84.9%)로 1.9백만 명('85대비 37.2%, 구성비19.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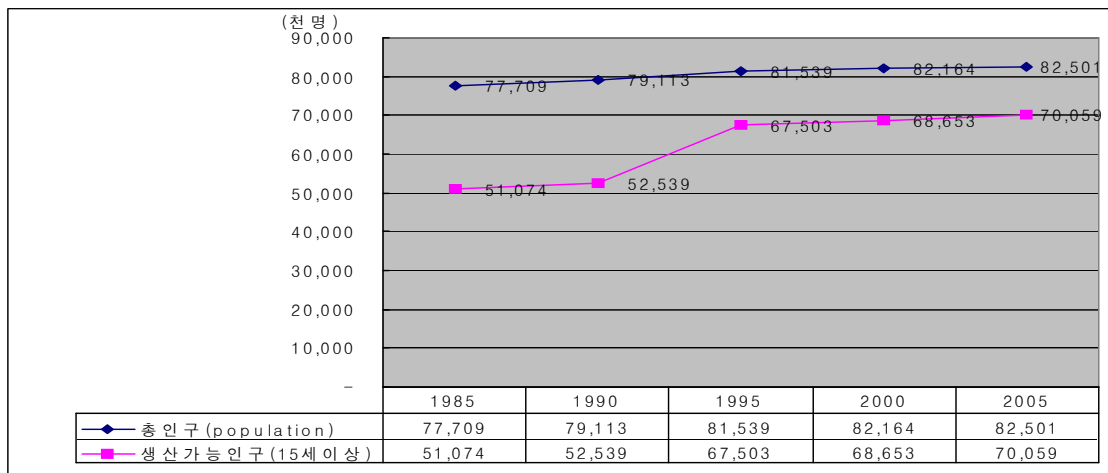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는 28백만 명(55.0%)에서 41.2백만 명(58.8%)으로 13.2백만 명('85대비47.1%, 구성비3.8%) 늘었다.

취업자는 26.1백만 명에서 36.6백만 명으로 늘은 반면 취업률은 93.1%에서 88.9%로 감소하고, 고용률은 51.2%에서 52.3%로 '90년 55.2%까지 일시적 증가후 70년 과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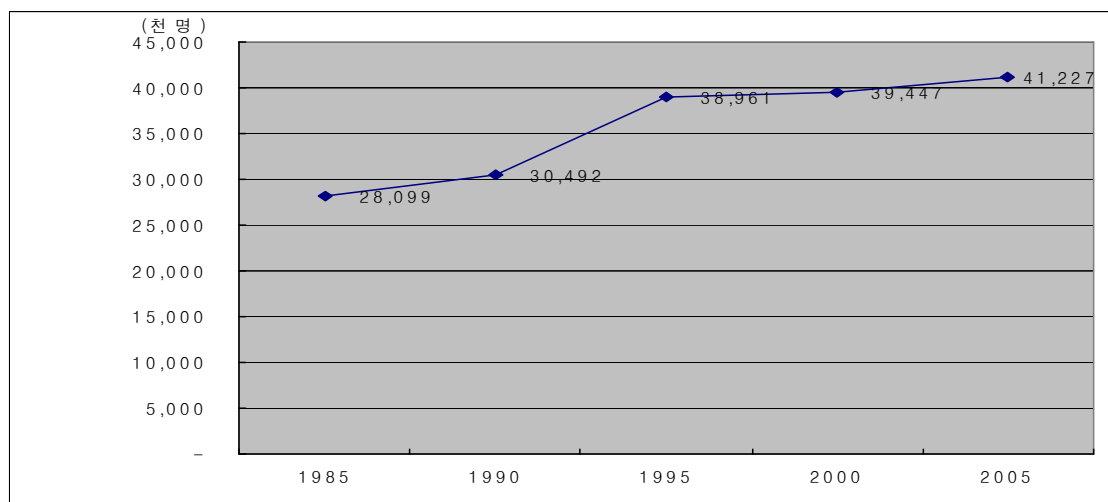
<표 7> 독일의 노동력 구조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인구 (천명)	78,269	78,882	78,180	77,709	79,113	81,539	82,164	82,501
생산가능 인구(천명)	-	-	-	51,074	52,539	67,503	68,653	70,059
생산가능 인구비율(%)	-	-	-	65.7	66.4	82.8	83.6	84.9
경제활동 인구(천명)	-	-	-	28,099	30,492	38,961	39,447	41,227
경제활동 인구비율(%)	-	-	-	55.0	58.0	57.7	57.5	58.8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	-	-	22,975	22,047	28,542	29,206	28,833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	-	-	45.0	42.0	42.3	42.5	41.2
취업자(천명)	-	-	-	26,167	29,001	35,782	36,324	36,654
취업률(%)	-	-	-	93.1	95.1	91.8	92.11	88.9
실업자(천명)	-	-	-	1,932	1,491	3,179	3,123	4,573
실업률(%)	-	-	-	6.9	4.9	8.2	7.9	11.1
파트타임어 (천명)	-	-	-	3,337	4,407	5,841	7,058	8,801
파트타임어 비율(%)	-	-	-	12.8	15.2	16.3	19.4	24.0
풀 타임어 (천명)	-	-	-	22,830	24,594	29,941	29,266	27,853
풀타임어비 율(%)	-	-	-	87.2	84.8	83.7	80.6	76.0
자영업자 (천명)	-	-	-	1,129	1,177	1,516	1,832	2,293
자영업자비 율(%)	-	-	-	4.9	4.8	5.1	6.3	8.2
가족종사자 (천명)	-	-	-	735	594	487	291	421
가족종사자 비율(%)	-	-	-	3.22	2.42	1.63	0.99	1.51
임금근로자 (천명)	-	-	-	23,013	25,814	31,946	32,374	32,153
임금근로자 비율(%)	-	-	-	100.8	105.0	106.7	110.6	115.4
상근직근로 자(천명)	-	-	-	20,748	23,160	28,655	28,286	27,613
상근직근로 자비율(%)	-	-	-	90.2	89.7	89.7	87.4	85.9
임시직 근로자(천명)	-	-	-	2,265	2,654	3,291	4,088	4,539
임시직 근로자비율(%)	-	-	-	9.8	10.3	10.3	12.6	14.1
고용률(%)	-	-	-	51.2	55.2	53.0	52.9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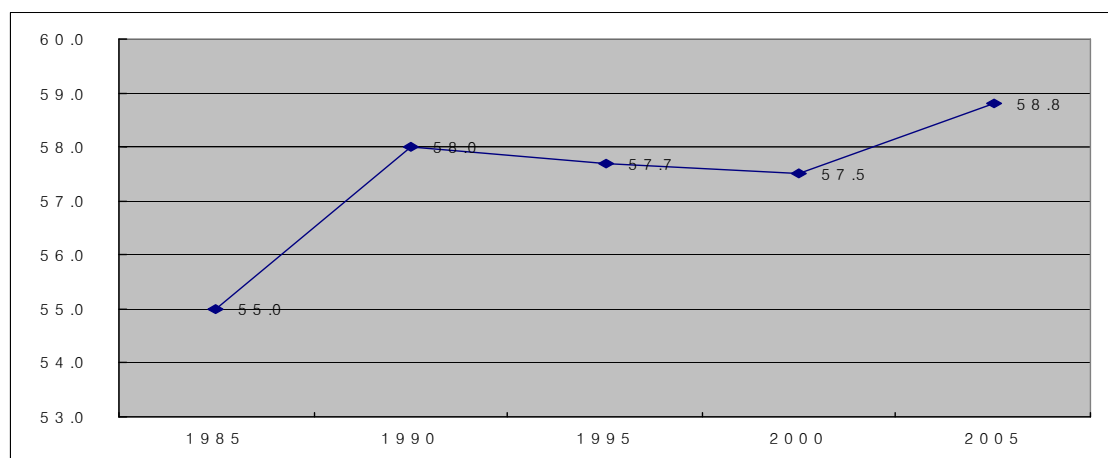
<그림 17> 독일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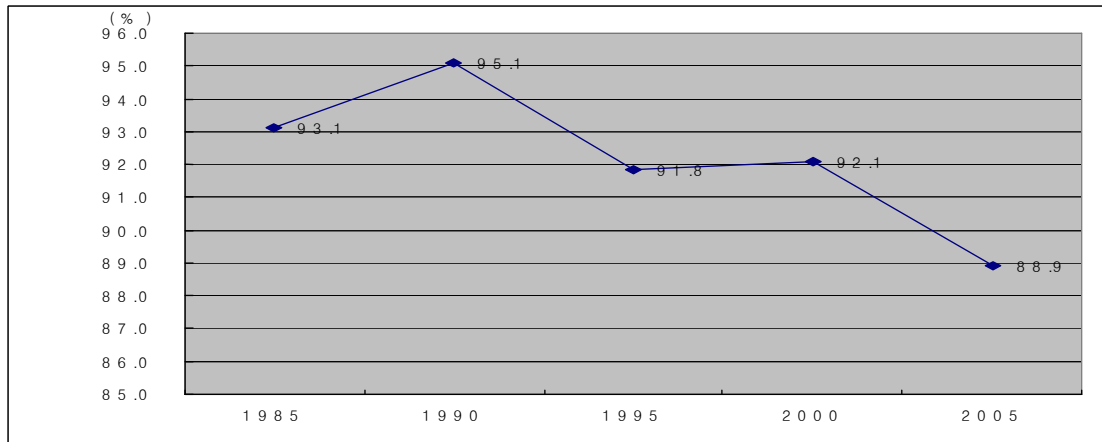
<그림 18> 독일의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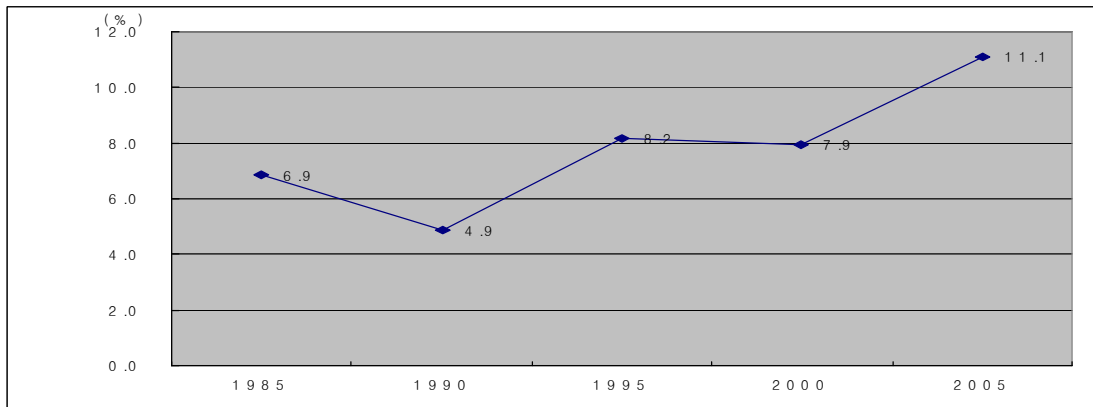
<그림 19> 독일의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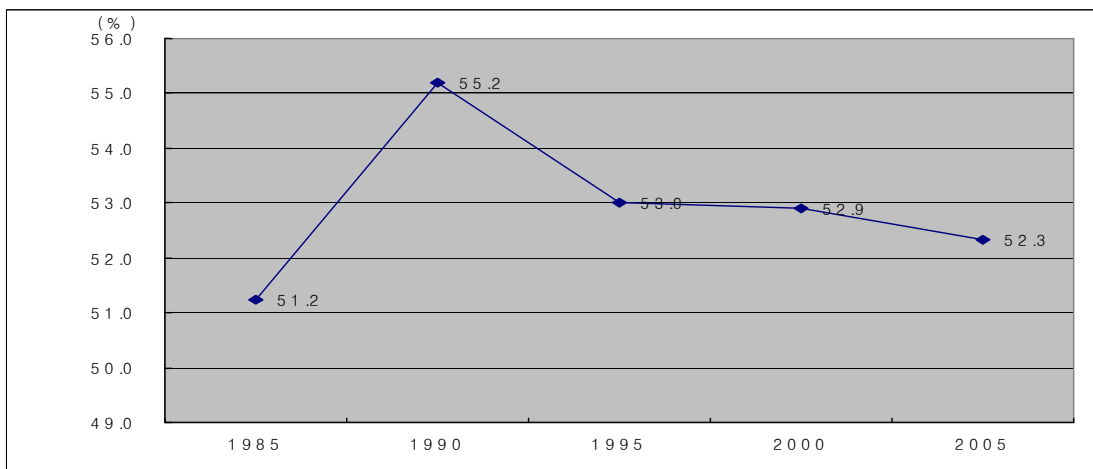
<그림 20> 독일의 취업률 변화추이



<그림 21> 독일의 실업률 변화추이



<그림 22> 독일의 고용률 변화추이



- 스페인의 노동력구조

스페인의 총인구는 '90년 38.8백만 명에서 '05년 43백만 명으로 4.7백만 명 ('90대비 10.8%)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는 30.9백만 명(79.8%)에서 36.7백만 명(85.5%)으로 5.8백만 명('90대비 18.7%, 구성비5.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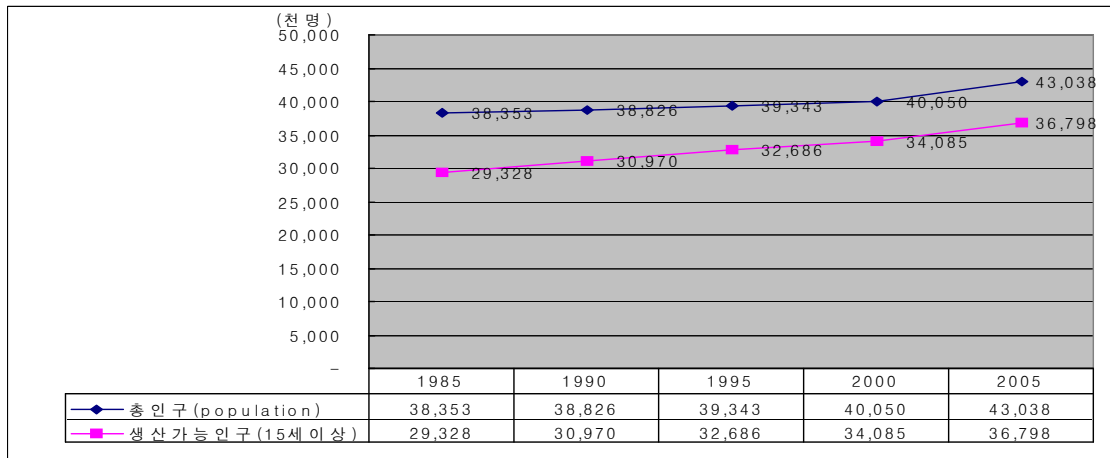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는 14.9백만 명에서(48.6%)에서 20.8백만 명(56.7%)으로 5.9백만 명('90대비 39.5%,구성비8.1%) 증가하였다.

취업률은 83.7%에서 90.8%로 늘었고, 실업률은 16.3%에서'94년 24.2%까지 증가하다가 '05년 9.2%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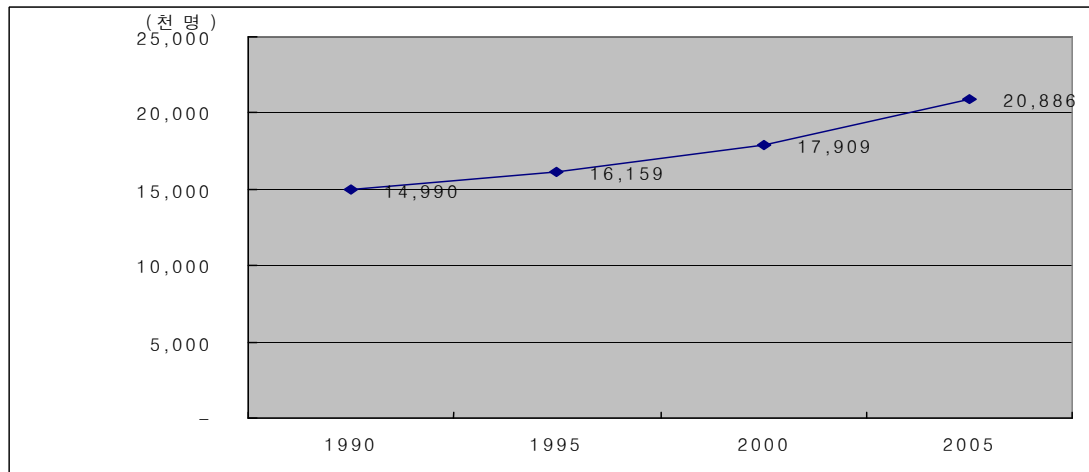
<표 8> 스페인의 노동력 구조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 인구 (천명)	33,588	35,338	37,242	38,353	38,826	39,343	40,050	43,038
생산가능 인구(천명)	24,272	25,676	27,549	29,328	30,970	32,686	34,085	36,798
생산가능 인구비율(%)	72.3	72.7	74	76.5	79.8	83.1	85.1	85.5
경제활동 인구(천명)	-	-	-	-	14,990	16,159	17,909	20,886
경제활동 인구비율(%)	-	-	-	-	48.6	50.0	52.8	56.7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	-	-	-	15,875	16,129	16,028	15,978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	-	-	-	51.4	50.0	47.2	43.3
취업자(천명)	-	-	-	-	12,551	12,495	15,440	18,973
취업률(%)	-	-	-	-	83.7	77.3	86.2	90.8
실업자(천명)	-	-	-	-	2,439	3,664	2,469	1,913
실업률(%)	-	-	-	-	16.3	22.7	13.8	9.2
파트타임어 (천명)	-	-	-	-	620	923	1,247	2,347
파트타임어 비율(%)	-	-	-	-	4.9	7.4	8.1	12.4
풀 타임어 (천명)	-	-	-	-	11,917	11,567	14,194	16,626
풀 타임어비율(%)	-	-	-	-	95.0	92.6	91.9	87.6
자영업자 (천명)	-	-	-	-	2,145	2,067	1,909	2,159
자영업자비 율(%)	-	-	-	-	18	17.9	13.4	13.0
가족종사자 (천명)	-	-	-	-	676	456	323	307
가족종사자 비율(%)	-	-	-	-	5.67	3.94	2.27	1.85
임금근로자 (천명)	-	-	-	-	9,227	9,330	12,323	15,502
임금근로자 비율(%)	-	-	-	-	77.4	80.7	86.8	93.2
상근직근로 자(천명)	-	-	-	-	6,479	6,071	8,345	10,333
상근직근로 자비율(%)	-	-	-	-	70.2	65.1	67.7	66.7
임시직근로 자(천명)	-	-	-	-	2,748	3,259	3,978	5,169
임시직근로 자비율(%)	-	-	-	-	29.8	34.9	32.3	33.3
고용률(%)	-	-	-	-	40.5	38.2	45.3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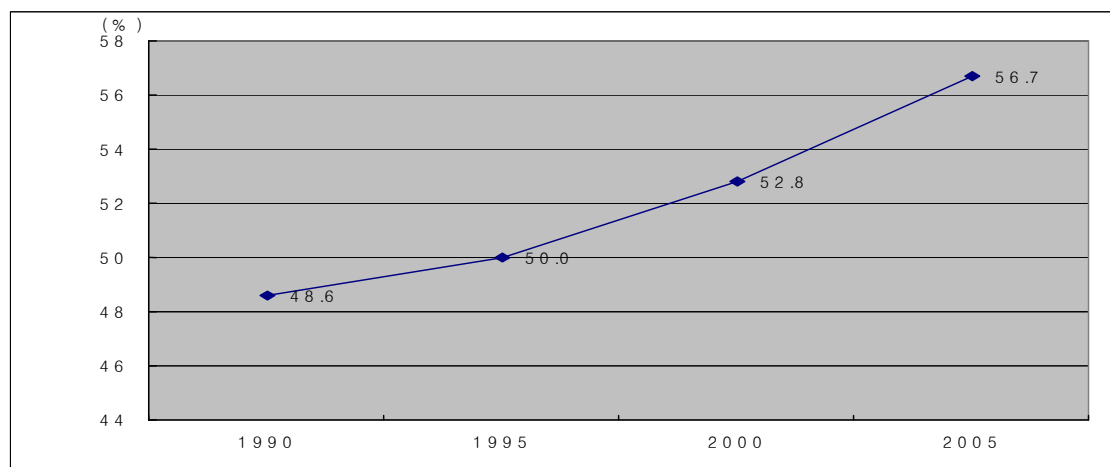
<그림 23> 스페인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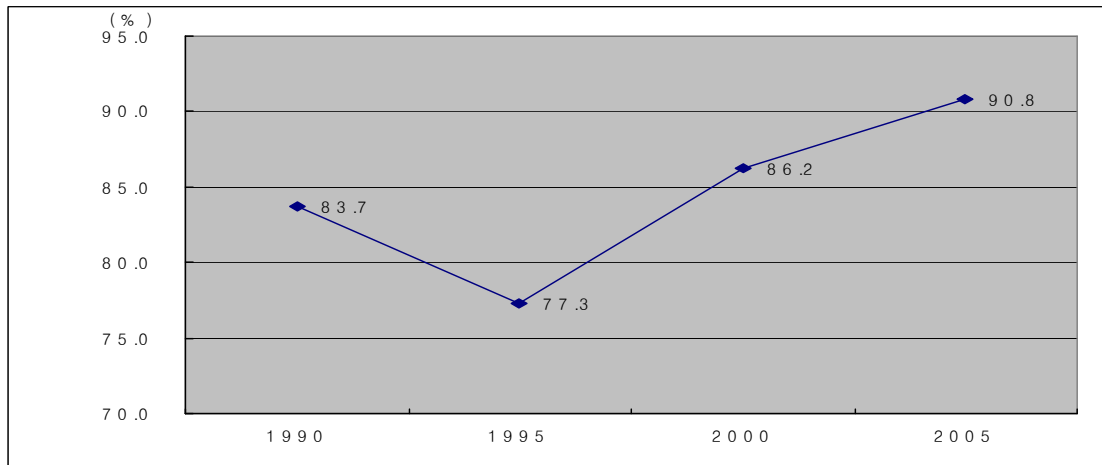
<그림 24> 스페인의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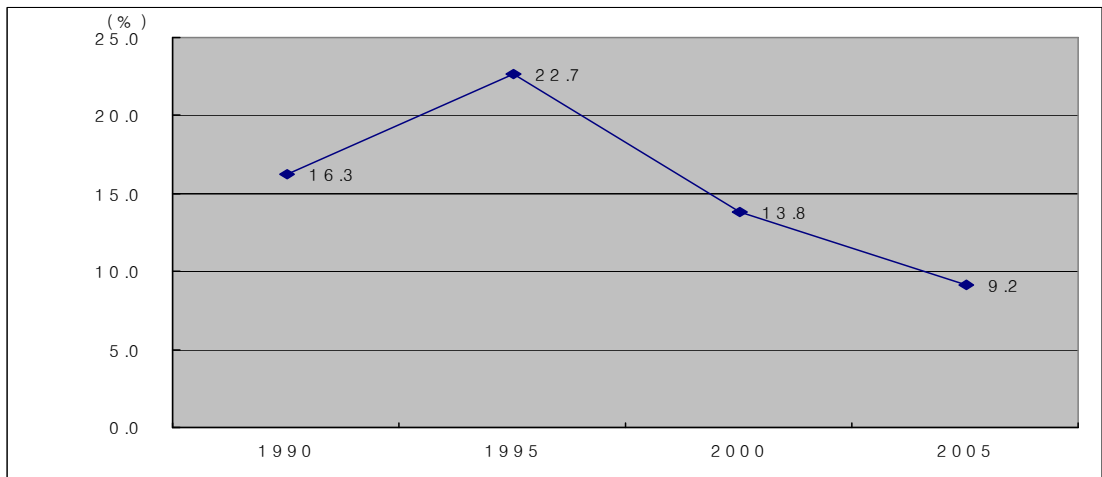
<그림 25> 스페인의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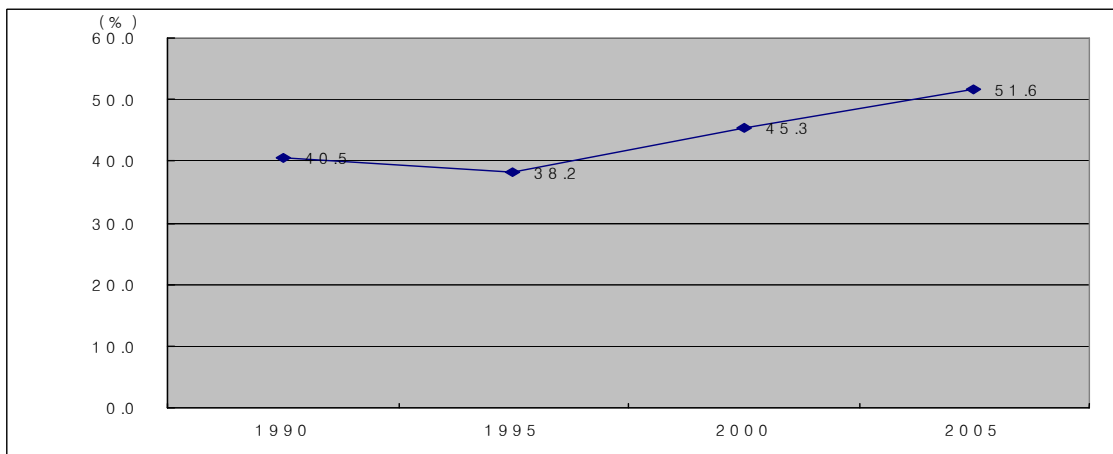
<그림 26> 스페인의 취업률 변화추이



<그림 27> 스페인의 실업률 변화추이



<그림 28> 스페인의 고용률 변화추이



- 영국의 노동력구조

<표 9> 영국의 노동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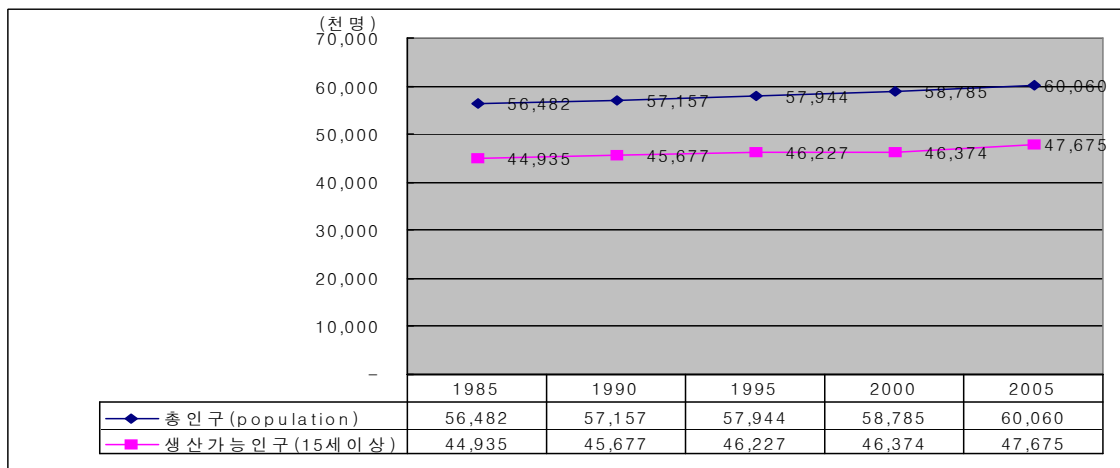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인구 (천명)	55,546	56,231	56,285	56,482	57,157	57,944	58,785	60,060
생산 가능 인구(천명)	-	-	-	44,935	45,677	46,227	46,374	47,675
생산 가능 인구비율(%)	-	-	-	79.56	79.92	79.78	78.89	79.38
경제 활동 인구(천명)	-	-	-	27,434	28,790	28,464	28,676	29,586
경제활동인 구비율(%)	-	-	-	61.1	63	61.6	61.8	62.1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	-	-	17,501	16,887	17,763	17,698	18,089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	-	-	38.9	37	38.4	38.2	37.9
취업자(천명)	-	-	-	24,282	26,783	25,989	27,088	28,187
취업률(%)	-	-	-	88.5	93.0	91.3	94.5	95.3
실업자(천명)	-	-	-	3,151	2,008	2,475	1,589	1,399
실업률(%)	-	-	-	11.5	7.0	8.7	5.5	4.7
파트타임어 (천명)	-	-	-	5,085	5,718	6,238	6,841	7,149
파트타임어 비율(%)	-	-	-	21.2	21.7	24.1	25.3	25.4
풀 타임어 (천명)	-	-	-	18,901	20,588	19,697	20,224	21,004
풀 타임어(%)	-	-	-	77.8	76.9	75.8	74.7	74.5
자영업자 (천명)	-	-	-	1,736	2,454	2,487	2,350	2,749
자영업자비 율(%)	-	-	-	9.2	11.9	12.6	11.6	13.1
가족종사자 (천명)	-	-	-			140	108	96
가족종사자 비율(%)	-	-	-			0.71	0.53	0.46
임금근로자 (천명)	-	-	-	21,498	22,952	22,399	23,726	24,467
임금근로자 비율(%)	-	-	-	87.9	89.7	87.9	85.2	85.8
상근직근로 자(천명)	-	-	-	19,999	21,764	20,866	22,129	23,071
상근직근로 자비율(%)	-	-	-	27,434	28,790	28,464	28,676	29,586
임시직근로 자(천명)	-	-	-	1,499	1,188	1,533	1,597	1,396
임시직근로 자비율(%)	-	-	-	6.97	5.18	6.85	6.73	5.71
고용률(%)	-	-	-	54.0	58.6	56.2	58.4	59.1

영국의 총인구는 85년 56.4백만 명에서 '05년 60백만 명으로 4.6백만 명 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는 44.9백만 명(79.5%)에서 47.6백만 명(79.3%)으로 2.7백만 명('85대비6.0%, 구성비 -0.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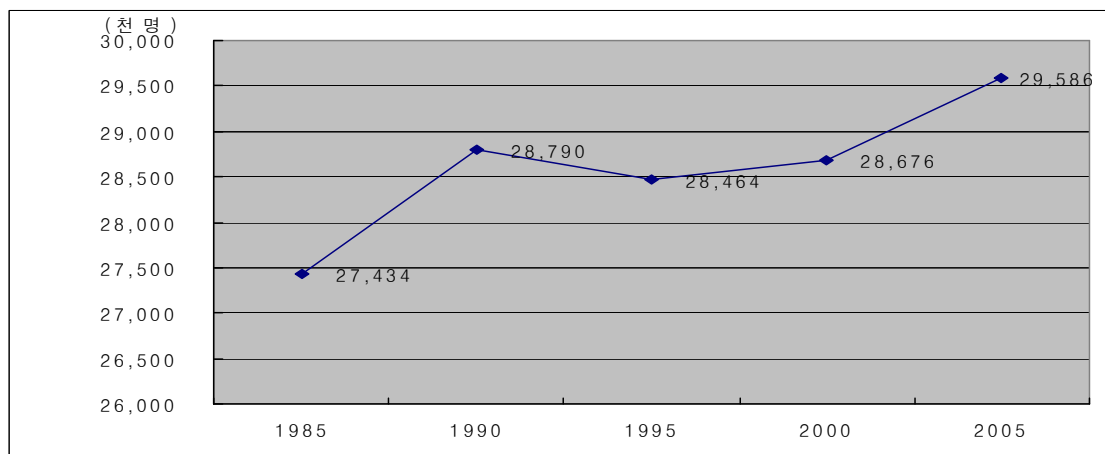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는 27.4백만 명(61.1%)에서 29.5백만 명(62.1%)으로 2.1백만 명('85 대비 7.6%, 구성비1%) 증가하였다.

취업률은 88.5%에서 95.3%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11.5%에서 4.7%로 낮아졌다. 영국의 경우 2만 불 달성시점인 95년도에 취업률이 91.3%로 낮아지고, 실업률이 8.7%로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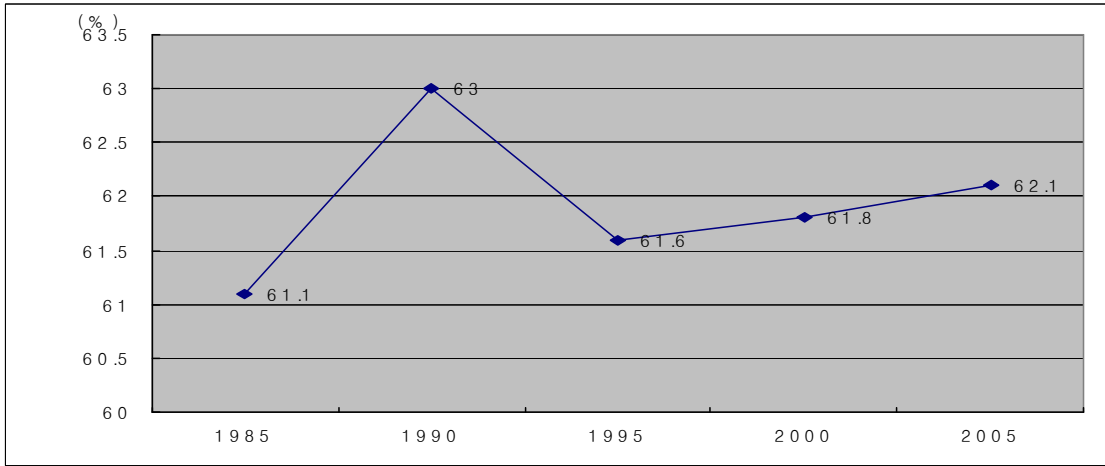
<그림 29> 영국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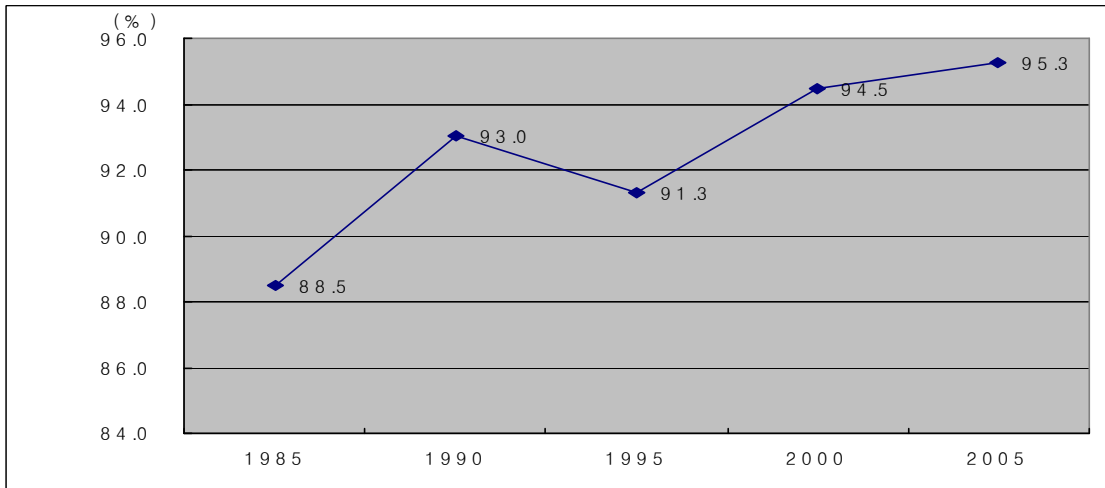
<그림 30> 영국의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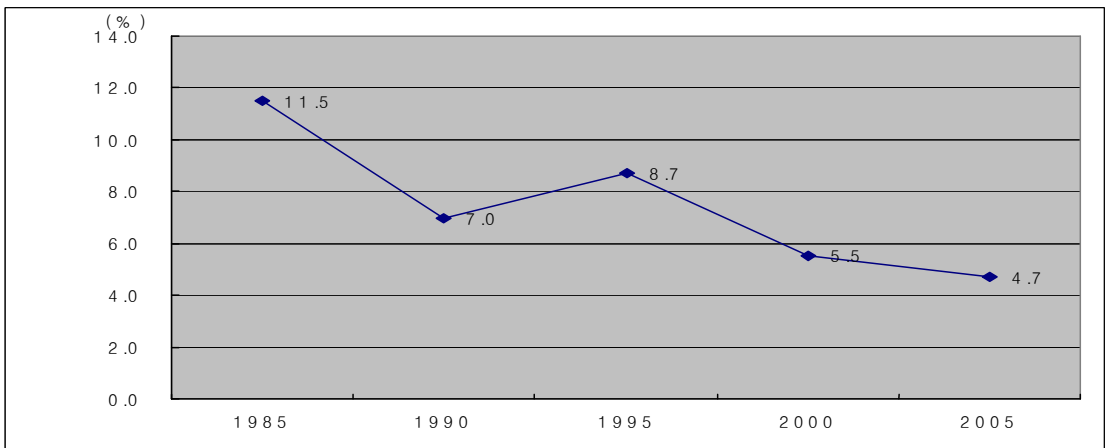
<그림 31> 영국의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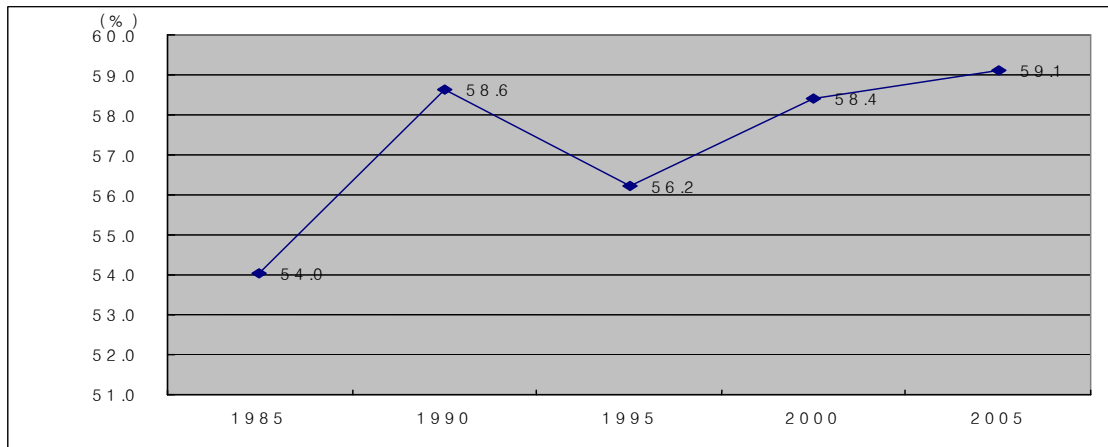
<그림 32> 영국의 취업률 변화추이



<그림 33> 영국의 실업률 변화추이



<그림 34> 영국의 고용률 변화추이



- 이탈리아의 노동력구조

이탈리아의 총인구는 '85년 56.5백만 명에서 '05년 58.4백만 명으로 1.9백만 명 증가하였고, 생산 가능인구는 45.3백만 명(80.1%)에서 49.8백만 명(85.2%)으로 4.5백만 명 ('85대비 9.9%, 구성비5.1%)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2.6백만 명(50.1%)에서 24.4백만 명(49.1%)으로 1.8백만 명('85 대비 7.9%, 구성비 -1.0%) 증가하여 구성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취업률은 '85년 90.7%에서 2만 불 달성시점인 '95년 88.3%로 낮아지다가 '05년 92.3%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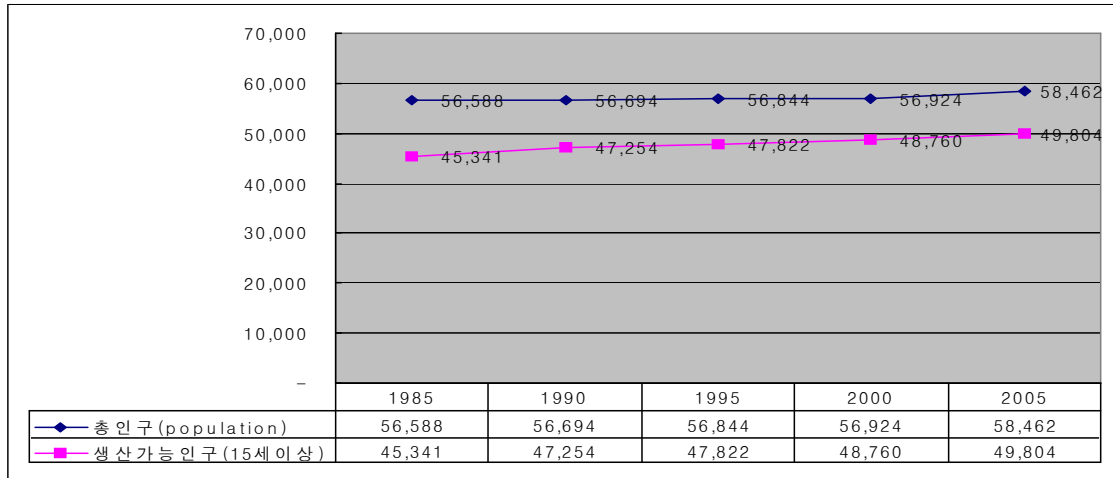
실업률은 '85년 9.5%에서 '95년 11.7%로 높아지다가 '05년 7.7%로 낮아지고 있다.

고용률은 '85년 45.4%에서 '95년 41.8%로 낮아지다가 '05년 45.3%로 20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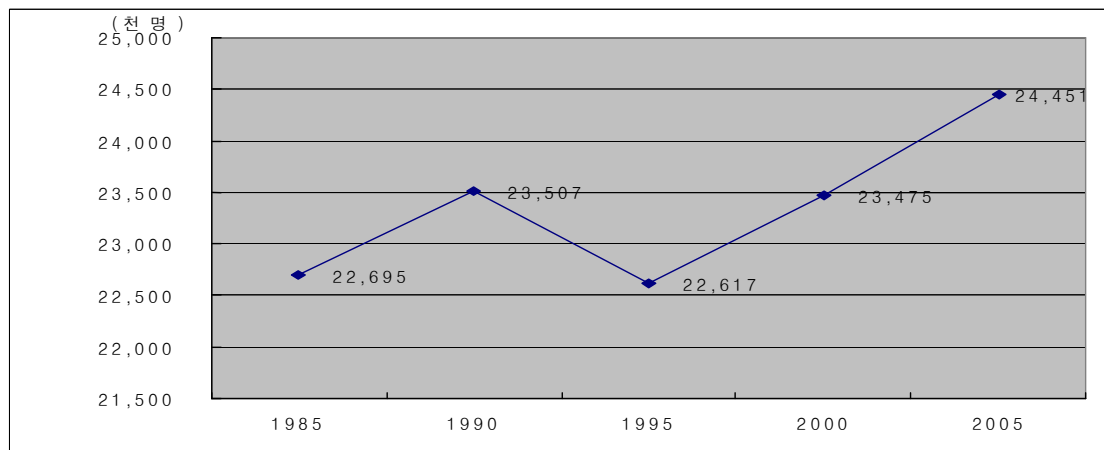
<표 10> 이탈리아의 노동력 구조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 인구 (천명)	53,685	55,293	56,388	56,588	56,694	56,844	56,924	58,462
생산 가능 인구(천명)	-	-	-	45,341	47,254	47,822	48,760	49,804
생산 가능 인구비율(%)	-	-	-	80.1	83.3	84.1	85.7	85.2
경제활동 인구(천명)	-	-	-	22,695	23,507	22,617	23,475	24,451
경제활동 인구비율(%)	-	-	-	50.1	49.7	47.3	48.1	49.1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	-	-	22,646	23,747	25,205	25,284	25,353
경제활동인 구비율(%)	-	-	-	49.9	50.3	52.7	51.9	50.9
취업자(천명)	-	-	-	20,583	21,222	19,978	20,930	22,563
취업률(%)	-	-	-	90.7	90.3	88.3	89.2	92.3
실업자(천명)	-	-	-	2,154	2,314	2,639	2,545	1,889
실업률(%)	-	-	-	9.5	9.8	11.7	10.8	7.7
파트타임어 (천명)	-	-	-	1,080	1,035	1,309	1,851	2,897
파트타임어 비율(%)	-	-	-	5.3	4.9	6.6	8.8	12.8
풀 타임어 (천명)	-	-	-	19,461	20,158	18,669	19,079	19,666
풀 타임어(%)	-	-	-	94.6	95.0	93.5	91.2	87.2
자영업자 (천명)	-	-	-	4,747	4,949	2,364	2,394	3,987
자영업자비 율(%)	-	-	-	24.4	24.6	12.7	12.5	20.3
가족종사자 (천명)	-	-	-	1,065	840	905	823	421
가족종사자 비율(%)	-	-	-	4.7	4.2	4.8	4.3	2.1
임금근로자 (천명)	-	-	-	14,545	15,213	14,166	15,034	16,534
임금근로자 비율(%)	-	-	-	14,545	15,213	14,166	15,034	16,534
상근직근로 자(천명)	-	-	-	13,851	14,420	13,142	13,511	14,507
상근직근로 자비율(%)	-	-	-	95.2	94.8	92.8	89.9	87.7
임시직근로 자(천명)	-	-	-	694	794	1,023	1,523	2,026
임시직근로 자비율(%)	-	-	-	4.8	5.2	7.2	10.1	12.3
고용률(%)	-	-	-	45.4	44.9	41.8	42.9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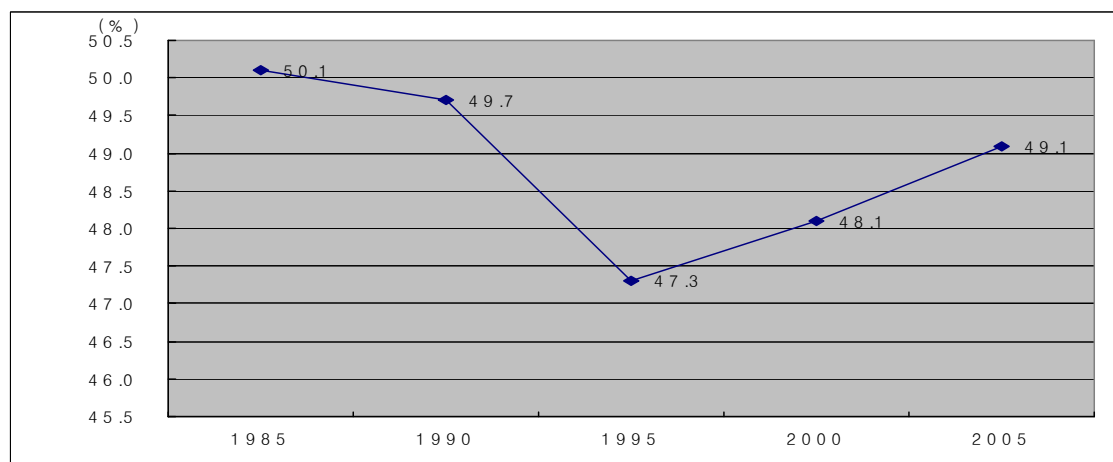
<그림 35> 이탈리아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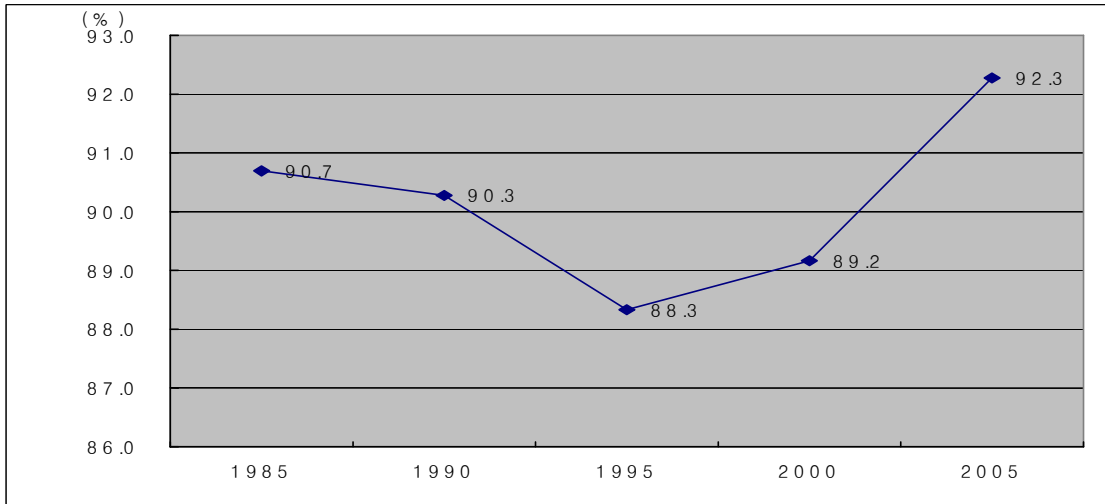
<그림 36> 이탈리아의 경제활동가능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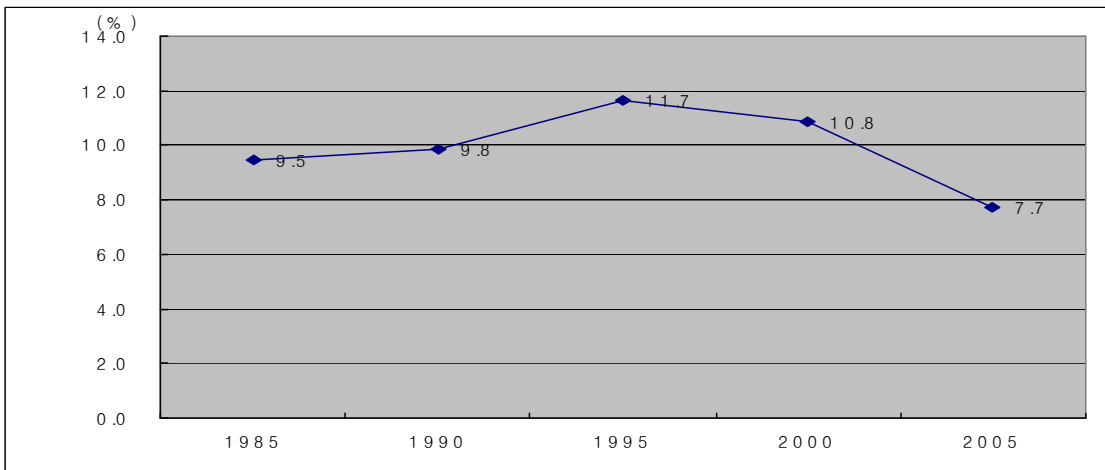
<그림 37> 이탈리아의 경제활동가능인구비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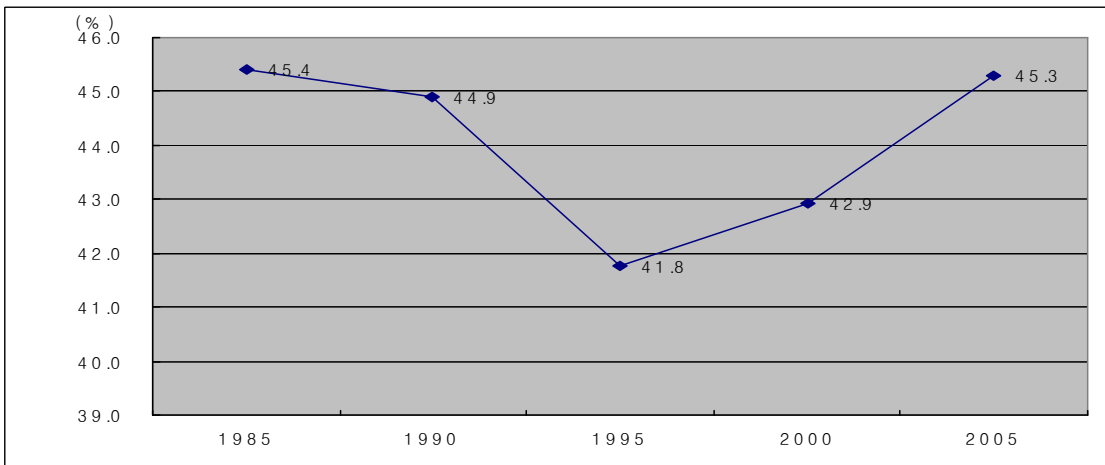
<그림 38> 이탈리아의 취업률 변화추이



<그림 39> 이탈리아의 실업률 변화추이



<그림 40> 이탈리아의 고용률 변화추이



- 프랑스의 노동력구조

<표 11> 프랑스의 노동력 조사

프랑스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인구 (천명)	-	-	-	52,930	54,287	55,937	57,152	59,322
생산가능 인구(천명)	-	-	-	41,526	43,204	44,815	46,235	48,199
생산가능 인구비율(%)	-	-	-	78.5	79.6	80.1	80.9	81.2
경제활동 인구(천명)	-	-	-	23,732	24,131	24,848	25,755	27,040
경제활동 인구비율(%)	-	-	-	57.1	55.9	55.4	55.7	56.1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	-	-	17,795	19,072	19,967	20,481	21,159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	-	-	42.9	44.1	44.6	44.3	43.9
취업자(천명)	-	-	-	21,297	21,874	21,907	23,123	24,579
취업률(%)	-	-	-	89.7	90.6	88.2	89.8	90.9
실업자(천명)	-	-	-	2,436	2,259	2,941	2,631	2,462
실업률(%)	-	-	-	10.3	9.4	11.8	10.2	9.1
파트타임 (천명)	-	-	-	2,323	2,612	3,423	3,915	4,235
파트타임 비율(%)	-	-	-	10.9	11.9	15.6	16.9	17.2
풀 타임 (천명)	-	-	-	18,897	19,259	18,483	19,209	20,343
풀 타임(%)	-	-	-	88.7	88.0	84.4	83.1	82.8
자영업자 (천명)	-	-	-	1,774	1,764	1,514	1,345	1,380
자영업자비 율(%)	-	-	-	9.4	9.2	8.2	7.0	6.8
가족종사자 (천명)	-	-	-	892	621	449	293	242
가족종사자 비율(%)	-	-	-	4.7	3.2	2.4	1.5	1.2
임금근로자 (천명)	-	-	-	17,713	18,439	18,917	20,484	21,906
임금근로자 비율(%)	-	-	-	93.7	95.7	102.3	106.6	107.7
상근직근로 자(천명)	-	-	-	16,882	16,517	16,618	17,341	18,998
상근직근로 자비율(%)	-	-	-	95.3	89.6	87.8	84.7	86.7
임시직근로 자(천명)	-	-	-	830	1,922	2,298	3,143	2,908
임시직근로 자비율(%)	-	-	-	4.7	10.4	12.1	15.3	13.3
고용률(%)	-	-	-	51.3	50.6	48.9	50.0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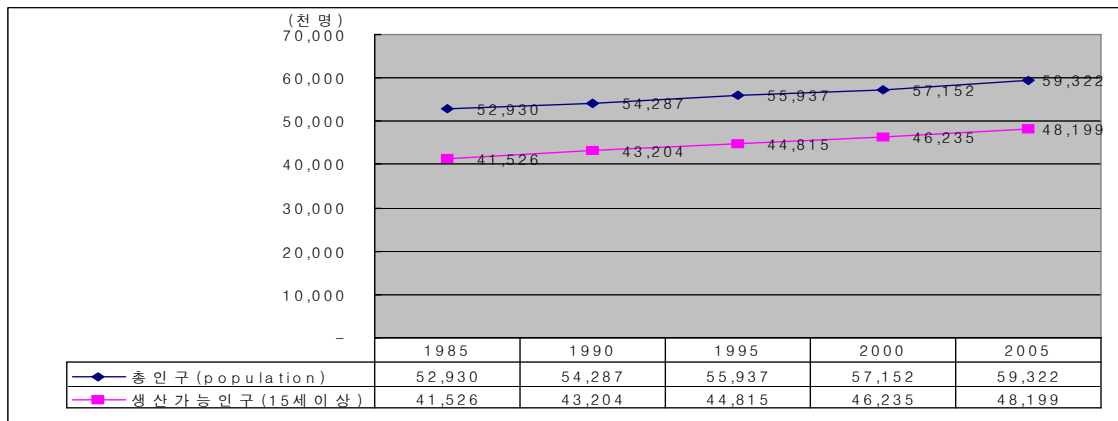
프랑스의 총인구는 '85년 52.9백만 명에서 '05년 59.3백만 명으로 6.4백만 명 증가하였다. 생산 가능인구는 41.5백만 명(78.5%)에서 48.1백만 명(81.2%)으로 6.6백만 명('85대비15.9 늘어났다.

경제활동인구는 23.7백만 명에서 27백만 명으로 3.3백만 명, 경제활동인구비율은 57.1%에서 '95년 55.4%로 감소하다가, 05년 56.1%로 다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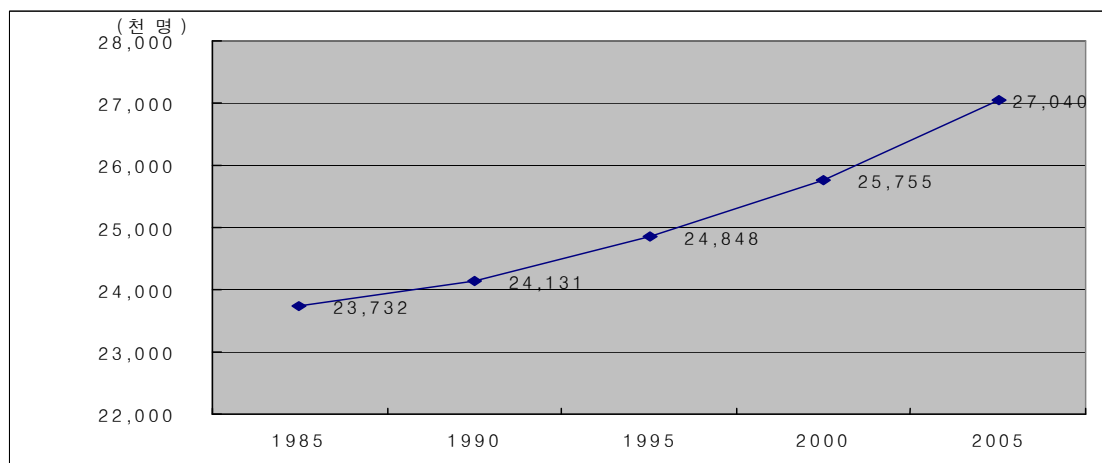
취업률은 '85년 89.7%에서 '05년 90.9%로 비슷한 수준이다.

실업률은 '85년 10.3%에서 '05년 9.1%로 낮아지긴 했으나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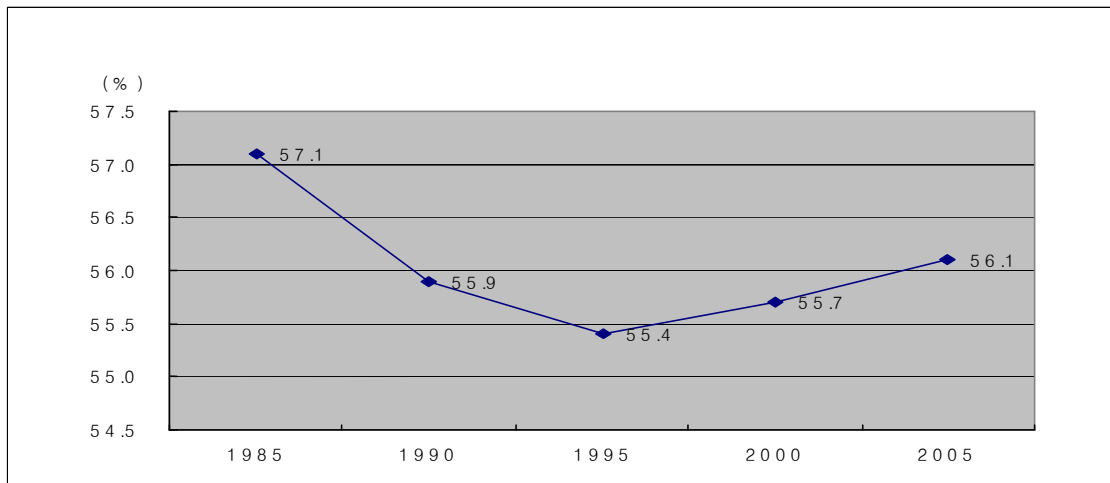
<그림 41> 프랑스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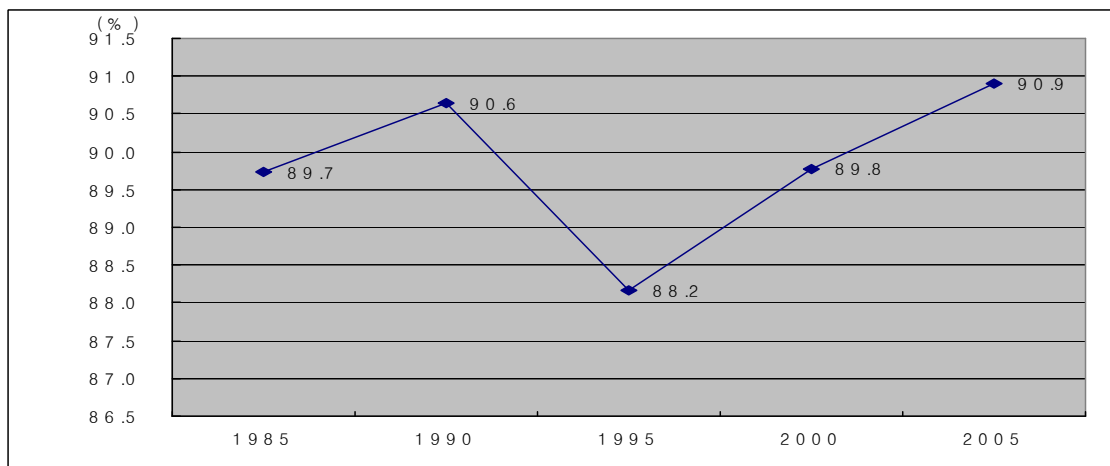
<그림 42> 프랑스의 경제활동가능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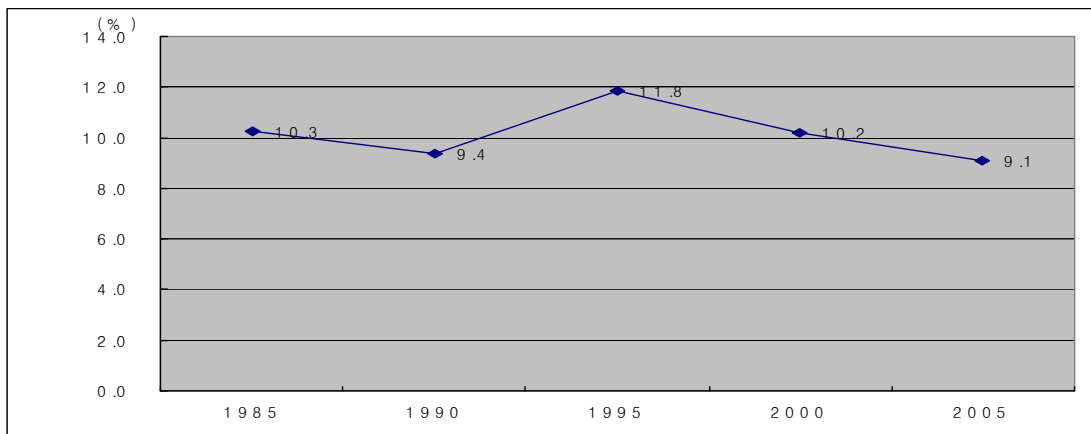
<그림 43> 프랑스의 경제활동가능인구비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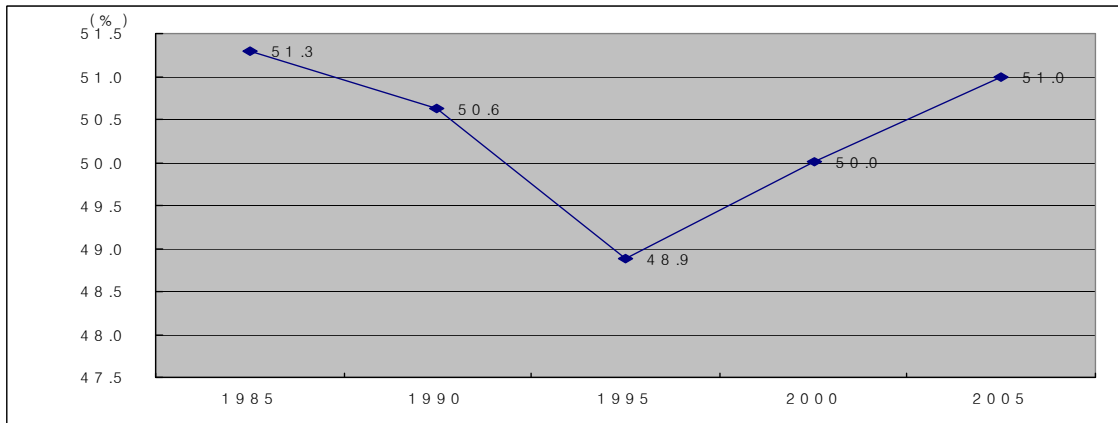
<그림 44> 프랑스의 취업률 변화추이



<그림 45> 프랑스의 실업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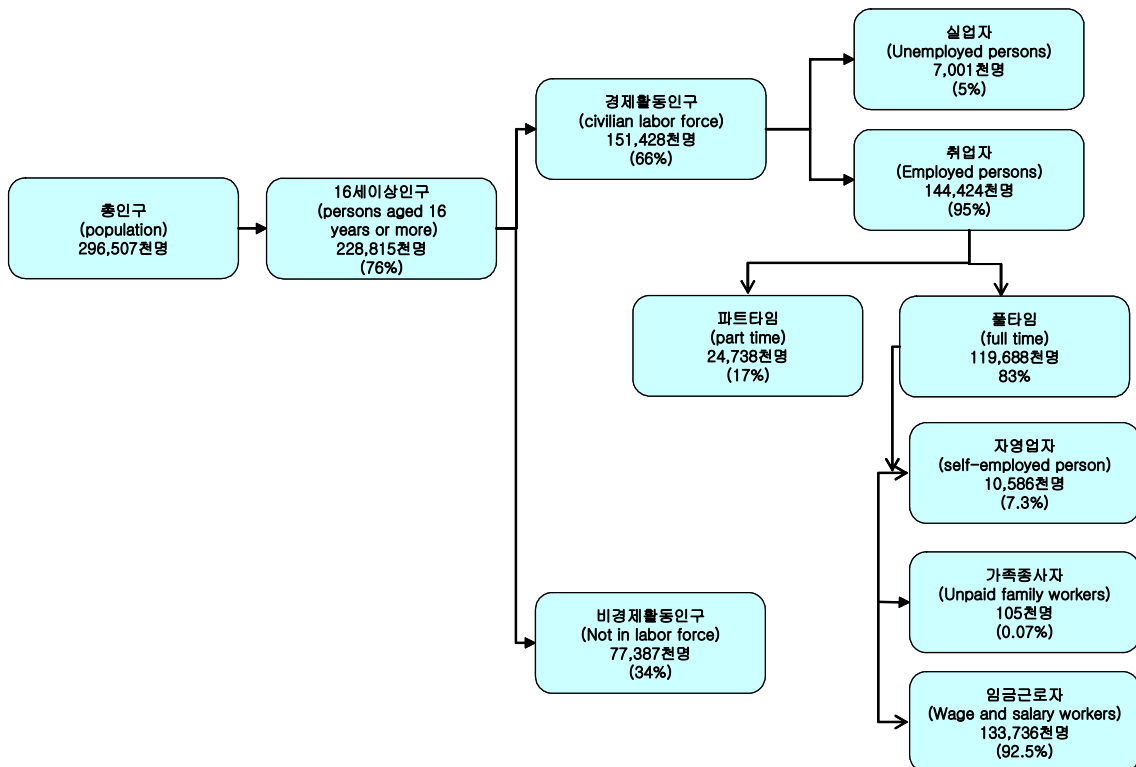


<그림 46> 프랑스의 고용률 변화추이



4) 미국의 노동력조사

<그림 47> 미국의 노동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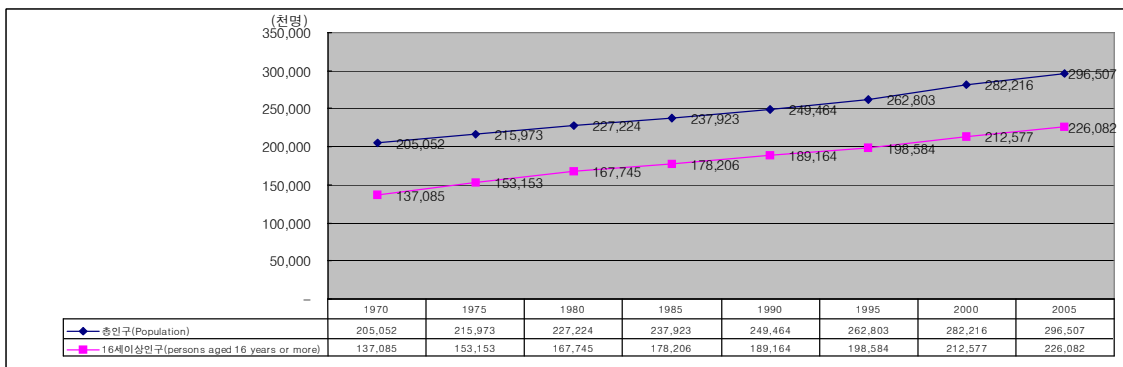
<표 12> 미국의 노동력 조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인구 (천명)	205,052	215,973	227,224	237,923	249,464	262,803	282,216	296,507
16세이상 인구(천명)	137,085	153,153	167,745	178,206	189,164	198,584	212,577	226,082
16세이상인 구비율(%)	66.85	70.91	73.82	74.90	75.83	75.56	75.32	76.25
경제활동인 구(천명)	82,771	93,775	106,940	115,461	125,840	132,304	142,583	149,320
경제활동인 구비율(%)	60.38	61.23	63.75	64.79	66.52	66.62	67.07	66.05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54,315	59,377	60,806	62,744	63,324	66,280	69,994	76,762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39.62	38.77	36.25	35.21	33.48	33.38	32.93	33.95
취업자 (천명)	78,678	85,846	99,302	107,150	118,793	124,900	136,891	141,729
취업률(%)	95.06	91.54	92.86	92.80	94.40	94.40	96.01	94.92
실업자 (천명)	4,093	7,929	7,637	8,312	7,047	7,404	5,692	7,591
실업률(%)	4.94	8.46	7.14	7.20	5.60	5.60	3.99	5.08
자영업자 (천명)	7,031	7,427	8,642	9,269	10,097	10,482	10,215	10,464
자영업자비 율(%)	10.53	10.37	10.47	10.47	10.23	10.31	8.97	8.94
가족종사자 (천명)	1001	869	710	474	358	155	141	123
가족종사자 비율(%)	1.50	1.21	0.86	0.54	0.36	0.15	0.12	0.11
임금근로자 (천명)	70,645	77,550	89,950	97,406	108,338	114,262	126,535	131,143
임금근로자 비율(%)	105.83	108.33	108.95	110.02	109.80	112.38	111.15	112.07
풀타임 (천명)	66,753	71,586	82,562	88,534	98,666	101,679	113,846	117,016
풀타임비율 (%)	84.84	83.39	83.14	82.63	83.06	81.41	83.17	82.56
파트타임 (천명)	11,925	14,260	16,740	18,615	20,128	23,220	23,044	24,714
파트타임비 율(%)	15.16	16.61	16.86	17.37	16.94	18.59	16.83	17.44
고용률(%)	57.39	56.05	59.20	60.13	62.80	62.90	64.40	62.69

- ① 총인구(Population) : 한 국가에 거주하는 군인을 제외한 국민을 말한다.
- ② 생산 가능인구(Persons aged 16 years or more):16세 이상 인구로서 50개주와 콜롬비아 특별 구에 거주하는 자 ,공공시설(형사상 정신병원 시설, 집에만 거주하는 노인) 입소자가 아닌 자 그리고 군대에 현역으로 있지 않는 자가 포함된다.
- ③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되고 용어 사전에 포함된 정의와 일치하다.
- ④ 비경제활동인구(Not in labor force):비경제활동인구는 총인구 중 16세 이상 사람들 중 용어 사전에 포함된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상태의 사람들을 말한다. 정보는 구직을 열망하고, 일을 할 능력이 있거나, 이전 기간에 취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자를 수집한다.
- ⑤ 실업자(Unemployed persons):실업자는 조사주간동안 16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로 일시적인 병을 제외하고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주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기간인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취업이 되지 않은 자이다. 일시적인 휴직으로 직무에 재취업을 기다리는 사람은 실업자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⑥ 취업자(Employed persons): 조사주간동안 16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로
 - (a)조사대상 주간에 급여를 받고 최소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사업, 전문직,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거나 가족구성원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15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한 자; (b)그들이 그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불받았든 아니든 간에 휴가, 질병, 일기불순, 아이양육 문제, 육아휴직(아버지 또는 어머니), 노동쟁의, 직업훈련 또는 다른 가족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사업이나 직업에서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각각의 취업자는 심지어 그와 그녀가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단 1회의 조사에만 인원이 카운트 된다.
- ⑥ 파트타임근로자(Part time workers):한주동안 35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자를 말한다.
- ⑦ 풀타임근로자(Full time workers):한주동안 35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한다.
- ⑧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이득 혹은 보수를 위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 전문직 무역 혹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⑨ 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혹은 사업을 무급으로 한 주간 15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의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⑩ 임금근로자(Wage and salary workers):임금,봉급,수수료,팁,현물지급,성과급을 받는 자. 이 그룹은 개인, 공공부분의 고용이 포함한다.

<그림 48> 총인구와 생산 가능인구 변화 추이



미국의 총인구는 '70년 205백만 명에서 '05년 296백만 명으로 90만 명('70대비 44.3%) 증가하였다. 생산 가능인구는 16세 이상으로 구분하며 137백만 명(66.8%)에서 '05년 226백만 명(76.2%)으로 89백만 명('07대비 64.9%, 구성비9.4%)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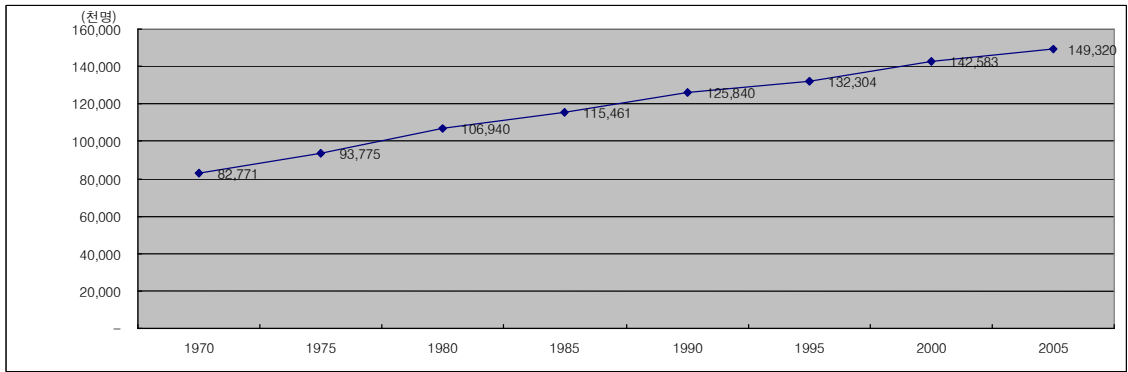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는 '70년 82.7백만 명(60.3%)에서 '05년 149.3백만 명(66.0%)으로 약 66백만 명 ('70대비 80.5%, 구성비 5.7%)증가하였다.

취업률은 '70년 95.0%에서 '05년 94.9%로 비슷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보다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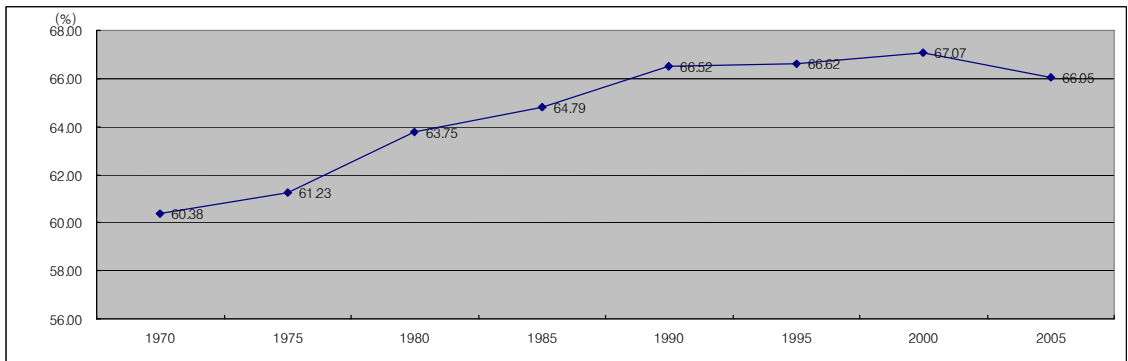
실업률은 '70년 4.9%, 82,83년 9.6% 로 높아졌다가 '05년 5.0%까지 계속 낮아지고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률은 70년 57.3%에서 '05년 62.6%로 지속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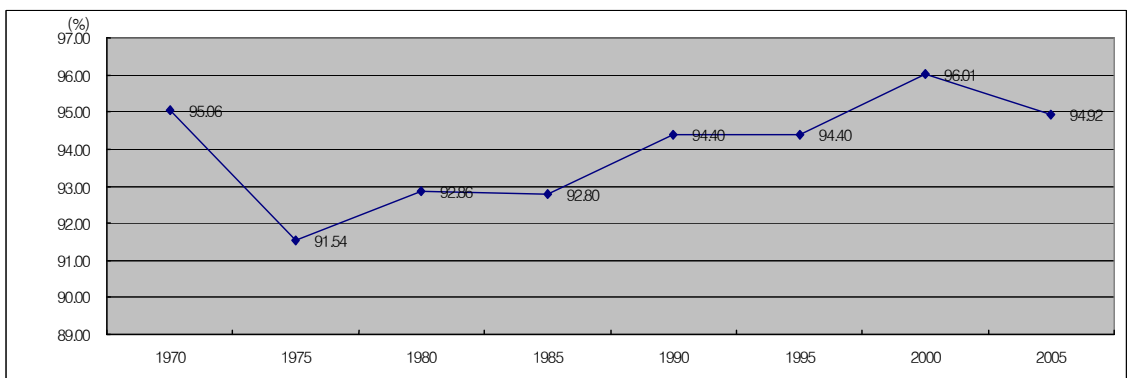
<그림 49>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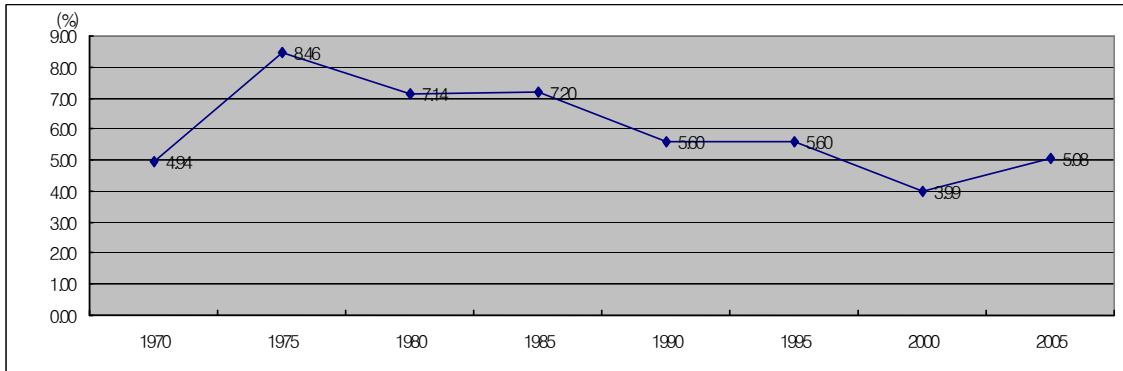
<그림 50>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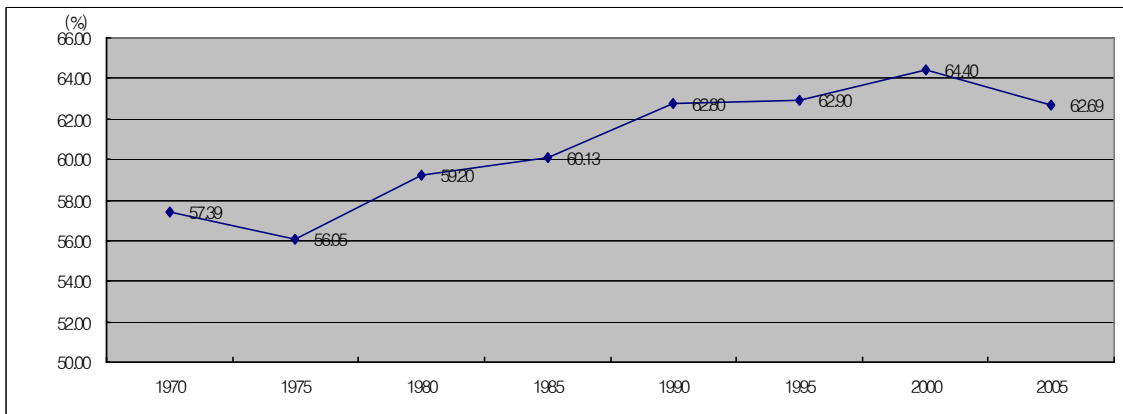
<그림 51> 취업률 변화추이



<그림 52> 실업률 변화추이



<그림 53> 고용률 변화추이



- 미국의 비정규근로자의 구분

미국의 비정규직과 유사한 용어로 노동통계국의 한시적 근로자 개념과 대안적 고용 형태가 있다.

①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s Current Population Survey)

노동통계국(BLS)이 개발한 개념으로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장기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추정값1(estimate 1)⁶⁾

6) 현재 일자리에서 1년 이하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1년 이내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정비율. 자영업자나, 독립계약근로자는 제외된다. 파견근로자(temporary help)나 계약근로자(contract worker)의 한시성은 기대하는 고용기간과 파견회사나 용역회사에서 일한 근무

6) 현재 일자리에서 1년 이하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1년 이내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정비율. 자영업자나, 독립계약근로자는 제외된다. 파견근로자(temporary help)나 계약근로자(contract worker)의 한시성은 기대하는 고용기간과 파견회사나 용역회사에서 일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추정값27)

현재 일자리에서 1년 이하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1년 이내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근로자에 자영업자와 독립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추정비율. 파견근로자나 계약근로자의 한시성은 추정값1과 달리 사용사업주나 계약발주회사에서 일한 근속과 기대 고용기간으로 결정한다.

.추정값38)

8) 일자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근로자. 이미 1년 이상 일하고 최소한 1년 더 일자리를 가지려고 기대하는 노동자를 포함한다. 파견근로자와 독립계약근로자는 그들의 고용이 추가적으로 1년 이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이미 1년 이내 자영업자나 독립계약근로자로 일하였을 경우 포함되는 추정 비율

② 대안적고용형태

노동통계국은 부가조사에서 한시적 근로자 개념 이외에 대안적 고용형태(alternative work arrangements)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대안적 고용형태란 고용이 잠정적인 형태, 예컨대 일하는 장소, 시간, 량 등을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Polivka, 1996).⁹⁾ 노동통계국은 대안적 고용 형태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 1)독립계약자, 2)호출근로자, 3)파견근로자, 4) 용역기업의 근로자이다.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7) 현재 일자리에서 1년 이하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1년 이내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근로자에 자영업자와 독립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추정비율. 파견근로자나 계약근로자의 한시성은 추정값1과 달리 사용사업주나 계약발주회사에서 일한 근속과 기대 고용기간으로 결정한다.

8) 일자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근로자. 이미 1년 이상 일하고 최소한 1년 더 일자리를 가지려고 기대하는 노동자를 포함한다. 파견근로자와 독립계약근로자는 그들의 고용이 추가적으로 1년 이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이미 1년 이내 자영업자나 독립계약근로자로 일하였을 경우 포함되는 추정 비율

9) Polivka,A.E., Contingent and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defined. Monthly Labor Review, October 1996, pp3-9.

. 호출근로자(On-call employees)

상용근로자가 아닌 임금근로자로서 필요시, 단시간 호출되어 일하는 형태로 수일 또는 수주일 에 걸쳐 일정이 잡힐 수 있다.

.파견근로자 (Temporary help agency)

한시적 기간 동안 고객의 일을 하기위해 근로자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존속하는 근로자

. 독립도급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 자영 또는 임금, 급여 근로자를 불문하고 · 독립적인 계약, 독립 컨설턴트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

· 용역기업의 근로자 (Workers provided by contract firms) : 계약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 로 보통 한 고객에게 배치되고 고객의 직장에서 일한다.

<표 13> 미국 한시적 근로자, 대안적 근로형태 (2월 기준, 단위: 천명 (%))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5
total employment (2월)		123,208	126,742	131,494	134,605	138,952
한시적 근로자 (contingent worker)	추정값 1	2,739 (2.2)	2,385 (1.9)	2,444 (1.9)	2,295 (1.7)	2,504 (1.8)
	추정값2	3,422 (2.8)	3,096 (2.4)	3,038 (2.3)	2,963 (2.2)	3,177 (2.2)
	추정값3	6,034 (4.9)	5,574 (4.4)	5,641 (4.3)	5,369 (4.0)	5,705 (4.1)
대안적 고용형태 (workers alternative arrangement)		12,119 (9.7)	12,570 (9.5)	12,245 (9.1)	12,485 (8.9)	14,836 (10.1)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		8,309 (6.7)	8,456 (6.7)	8,247 (6.3)	8,585 (6.4)	10,342 (7.4)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2,078 (1.6)	1,996 (1.6)	2,032 (1.5)	2,089 (1.6)	2,454 (1.8)
파견근로자(temporary help agency worker)		1,181 (1.0)	1,300 (1.0)	1,188 (0.9)	1,169 (0.9)	1,217 (0.9)
용역근로자(workers provided by contract firm)		652 (0.5)	809 (0.6)	769 (0.6)	633 (0.5)	813 (0.6)
noncontingent worker		117,174 (95.1)	121,168 (95.6)	125,853 (95.7)	129,236 (96.0)	133,247 (95.9)
전통적 근로형태 (traditional arrangement worker)		111,052 (90.1)	114,199 (90.1)	119,109 (90.6)	121,917 (90.6)	123,843 (89.1)

출처: U.S. BLS contingent and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s, february 1995-2005

5) 각국 노동력조사 구조의 비교

<표 14> 각국 노동력구조 비교

한국분류	'06 한국		'06 일본		'05 EU 25		'06 미국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경제성장률 %	5.0		2.6				1.9	
1인당GDP \$	18,372		30,842				41,789	
총인구	48,400		127,790		461,500		299,398	
생산가능인구	38,762	80.1	110,190	86.2	380,300	82.4	228,815	76.4
경제활동인구	23,978	61.9	66,990	60.9	217,000	57.1	151,428	66.2
취업자	23,151	96.6	64,270	96.7	197,500	91.0	144,427	95.4
자영업자	6,135	26.5	6,330	9.8	25,500	12.9	10,586	7.3
가족종사자	1,466	6.3	2,470	3.8	1,700	0.9	105	0.1
임금근로자	15,550	67.2	54,720	85.1	133,800	67.7	133,736	92.6
상용직	8,204	35.4	47,020	73.2	116,000	58.7		
임시직	5,142	22.2	6,590	10.3	17,700	9.0		
일용직	2,203	9.5	1,100	1.7			2)2,454	1.7
자국기준 시간제	842	3.6	4)11,250	17.5	36,200	18.3	24,739	17.1
30시간미만	2010	8.7	15,240	23.7			16,096	11.1
자국기준 전일제	14,686	63.4			161,000	81.5	119,688	82.9
30시간이상	20,822	89.9	47,080	73.3			112,067	77.6
취업상태불명			750					
실업자	827	3.4	2,720	3.3	19,500	9.0	7,001	4.6
구직단념자	122	0.5						
비정규근로자	5,457	23.6	16,770	26.1			20,541	14.2
비경제활동인구	14,784	38.1	43,100	39.1	163,300	42.9	77,387	33.8

※ 비교기준에 대한 설명

각 수치는 국가별 노동력구조표를 대비하고 취업자 세부 비율은 비교를 위하여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였음,

미국의 비정규형태는 한시적근로자 추정값3 + 대안적고용형태를 더한 값으로 2005년 자료로 하였음.

2. 고령층 고용구조

1) 고령층의 개념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령화 논쟁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고령화와 관련된 정확한 용어부터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소년, 청년, 중년, 중고년, 고령자, 고령층, 노인 등 연령층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여 왔으며, 연구자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 고령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소년 인구가 줄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표 15> 한국의 고령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고령자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준 고령자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노인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노령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연금수급개시연령 : 60세
노령층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노령층을 55~69세로 분류 반면 청년층은 15세~29세 구간으로 분류 (일본의 노동후생성의 雇用構造調査 (高年齢者就業實態調査)에서는 高年齢者라는 용어로 55~69세 구간을 지칭함)
기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만14세 이상 59세 이하를 생산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어 60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년: 0~14세, 청년: 15~29세, 장년: 30~39세, 중년: 40~49세, 중고년: 50~59세, 노년: 60세 이상

10) 고령화시대의인적자원관리, 노동연구원, 2006.12, 박준성, 이준우 공저 인용

<표 16> 외국의 고령화관련 기준

국 가	노령 기준
일본	노령자세대 : 남65세 이상, 여60세 이상, 또는 18세미만의 사람이 부가된 세대 ¹¹⁾ 노인복지법 :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함. ¹²⁾ 연금개시연령 : 60세 고령자고용안정법 : 정년이 60세 이하가 되지못하도록 규정, 65세까지 재고용 의무명기
독일 ¹³⁾	법정퇴직연령, 연금수급연령 : 67세
프랑스 ¹⁴⁾	ASFNE(<i>L'allocation spéciale du FNE licenciement</i>). : 프랑스고용기금과 57세 이상 조기퇴직허용 하는 협약 ARPE (<i>L'allocation de remplacement pour l'emploi</i>) 고용을 위한 교체인력보조금) : 58세 이상 노동자에게 조기퇴직 허용 CATS (<i>anticipée d'activité de certains travailleurs salariés</i>) 특정노동자를 위한 조기퇴직) :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장애인 노동자는 55세부터 조기퇴직 혜택
포르투갈	공무원 법정퇴직연령 65세 ¹⁵⁾
영국	연금개시연령 : 남자65세, 여자 60세 정년 : 남자 70세, 여자 65세까지 정년연장가능
스웨덴	노령연금 지급 연령 : 65세 이상의 노인
미국 ¹⁶⁾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ADEA)이 제정: 특수직을 제외한 대부분 직업에서 65세 이전의 강제퇴직 및 고용차별 금지, 78년 고용차별 금지연령을 70세로 연장 1973년 미국노인법 : 60세 수혜대상 노령및유족보험 : 피보험자는 65세에 퇴직 시 완전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짐

※ 고령화 사회의 분류 (UN의 정의: 출처 : 통계청 2006고령자통계)

-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 11) 출처: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현외성저, 유풍출판사, 1994.1 p102
12) 출처: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현외성저, 유풍출판사, 1994.1 p138
13) 출처: 유로지역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대응, P25 , 윤창준, 구미경제팀 조사역,
14) 프랑스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령자 노동시장정책 , 프랑스고용연구센터, J e G며사
15) 출처: 유로지역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대응, P25 , 윤창준, 구미경제팀 조사역,
16) 출처 :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6.10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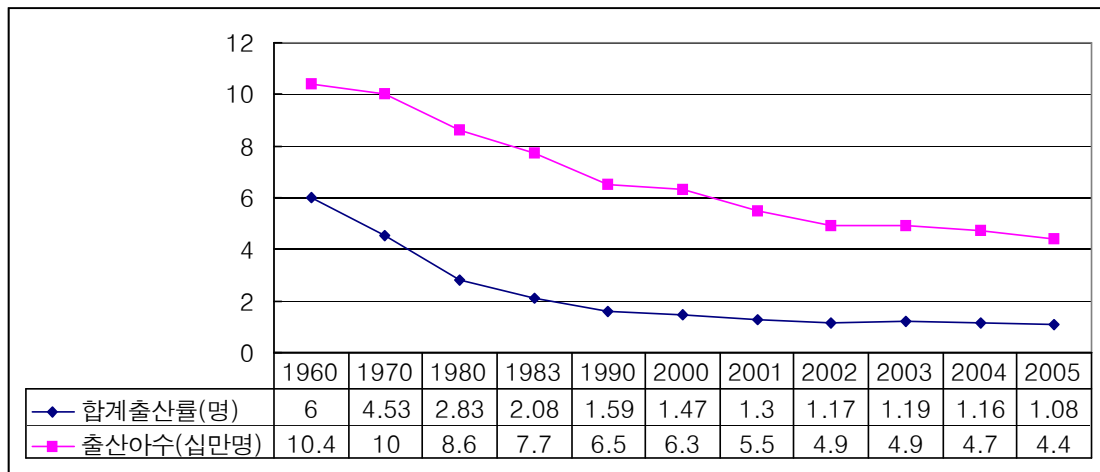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 ~ 14% 미만인 사회
 -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 ~ 20% 미만인 사회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2) 각국의 고령층의 변화추이¹⁷⁾

가. 한국의 고령층 변화추이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매우 빠른 기간 내에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 인구 규모면에서도 2020년경까지 성장을 계속할 것이나 202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마이너스(-0.91)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4> 우리나라 출산율 및 출산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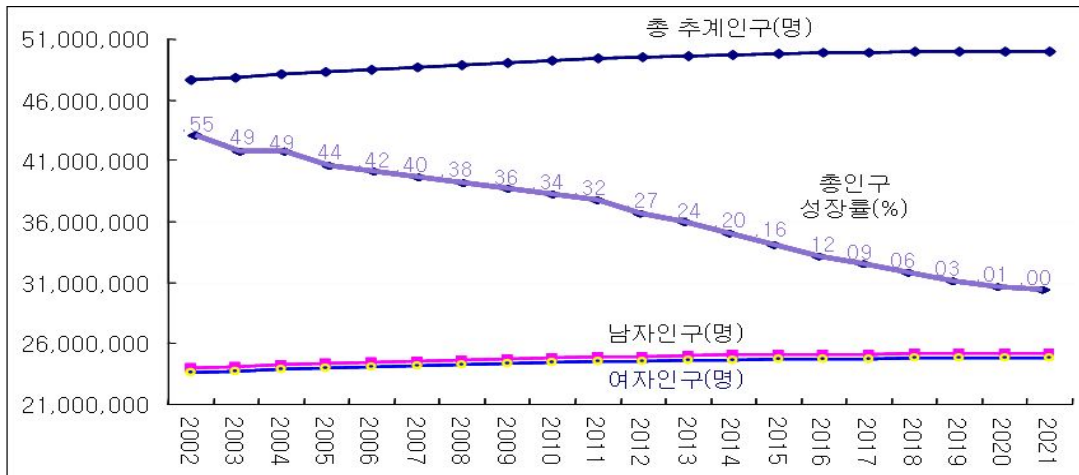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년도.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05년 말 현재 약 4,829만 명 정도이고, 2010년 4,922만 명, 2015년 4,980만 명, 2020년 4,995만 명으로 체감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17) 고령화시대의인적자원관리, 노동연구원, 2006.12, 박준성, 이준우 공저 인용

된다. 인구증가율은 2005년 기준으로 .44%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증가율이 0%로 예상된다.

<그림 55> 총인구 추계와 성장률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년도.

향후 15년간의 연령대별 추계인구 변화의 특성을 보면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40대 이하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래의 출생률이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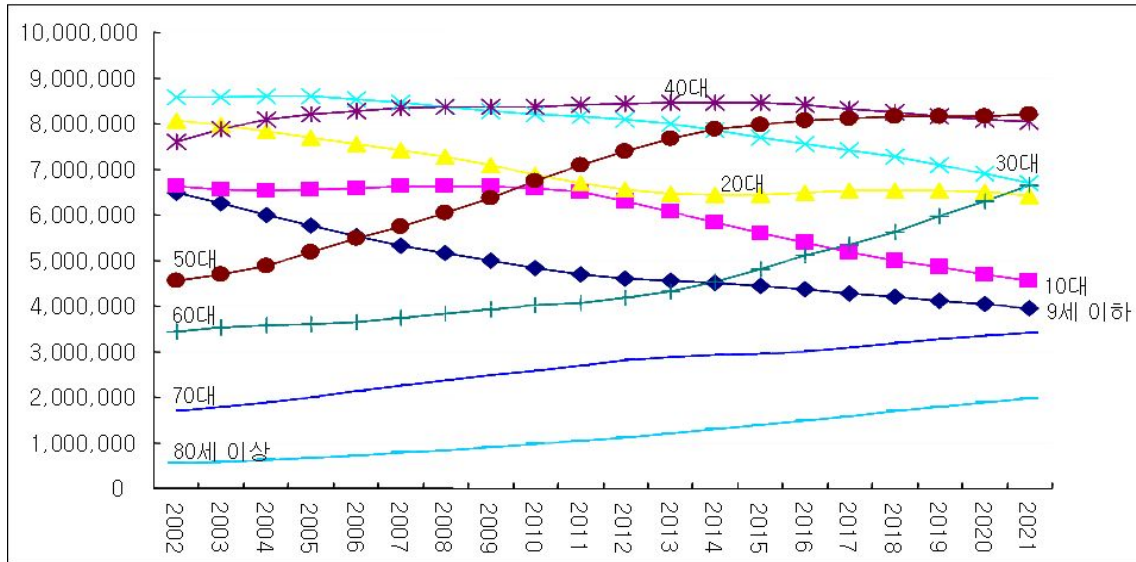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매우 빠른 기간 내에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인구 규모면에서도 2020년경까지 성장을 계속할 것이나 202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마이너스(-0.91)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2.7%로 EU의 평균 35.8% OECD 26%와 비교하면 (출처 : OECD 65세 이상 인구비율)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연령별로는 85년에 비해 15-24세 인구는 -15.8% ,재직연령인 25-54세 46.9% 증가, 55-64세 인구는 215.1% 증가, 65세 이상은 50.4%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선진도 같은 추세여서 출생률하락에 따라 15-24세 인구는 감소하고 5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림 56> 연령대별 추계인구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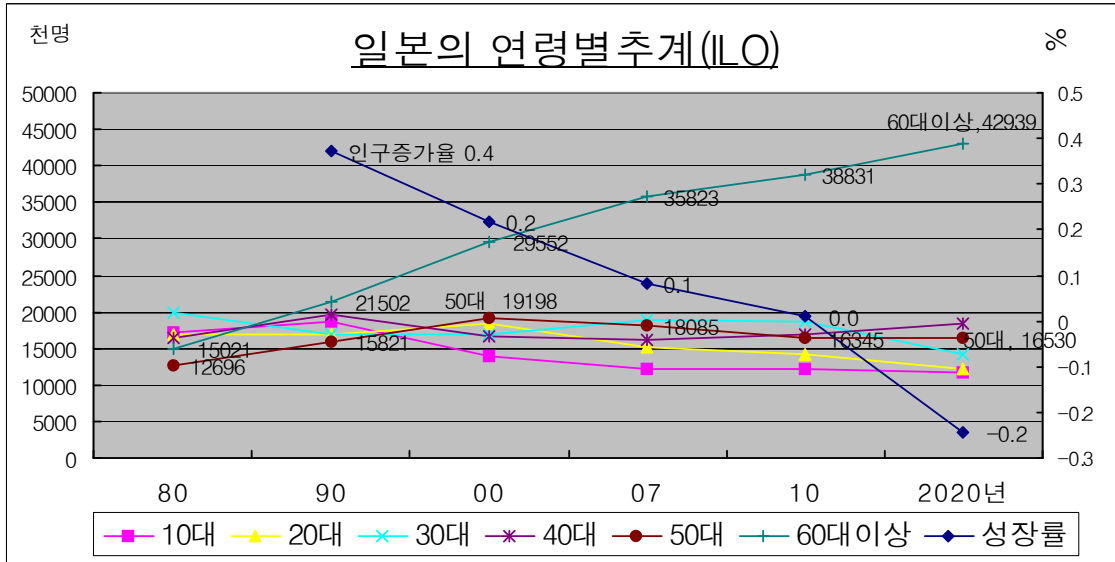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구조는 다산다사형(多産多死型)에서 다산소사형(多産小死形)을 거쳐 소산소사형(小産小死形)으로 전환되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고령인력들은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1997년 55~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9%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77.7%까지 7.52%포인트 하락한 상황이다. 60~64세 연령계층도 같은 기간에 73.4%에서 64.7%로 8.7%포인트 하락하였다

나. 일본의 고령층 변화추이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2010년 0%로 정체후 2013년 감소할 전망이다. 연령별 추계를 보면 60대 이상이 '07년 35백만 명에서 2020년 42백만 명으로 인구비중이 가장 높아질 전망이며, 50대는 2000년 19백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15백만 명에서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6백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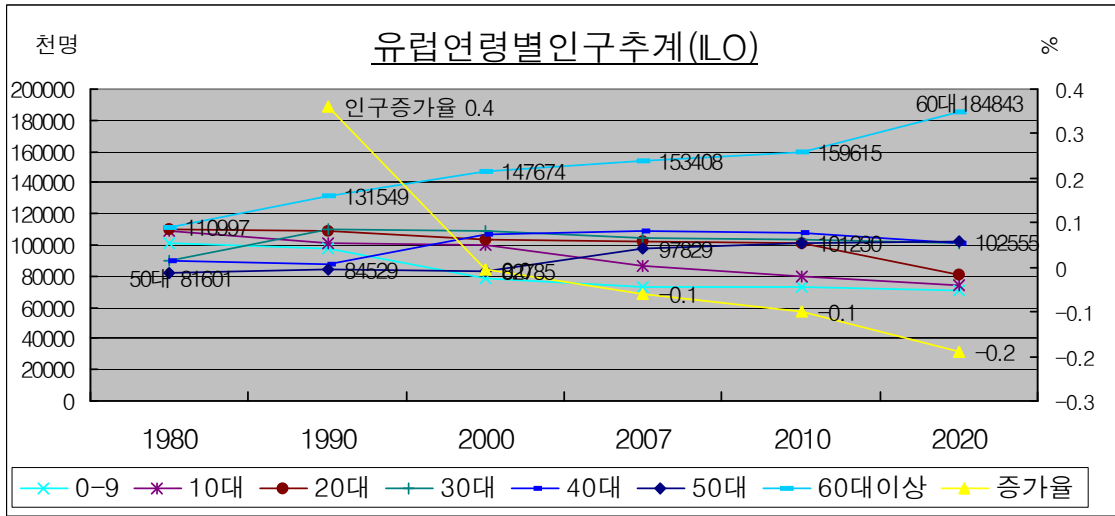
<그림 57> 일본의 연령별 추계



다. EU 고령층 변화추이

유럽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평균 2000년 이후 인구가 정체상태로 '07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07년 60대 이상이 153백만 명에서 2020년 184백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50대는 2007년 97백만 명으로 2020년까지 102백만 명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58> 유럽 연령별 인구추계



라. 미국고령층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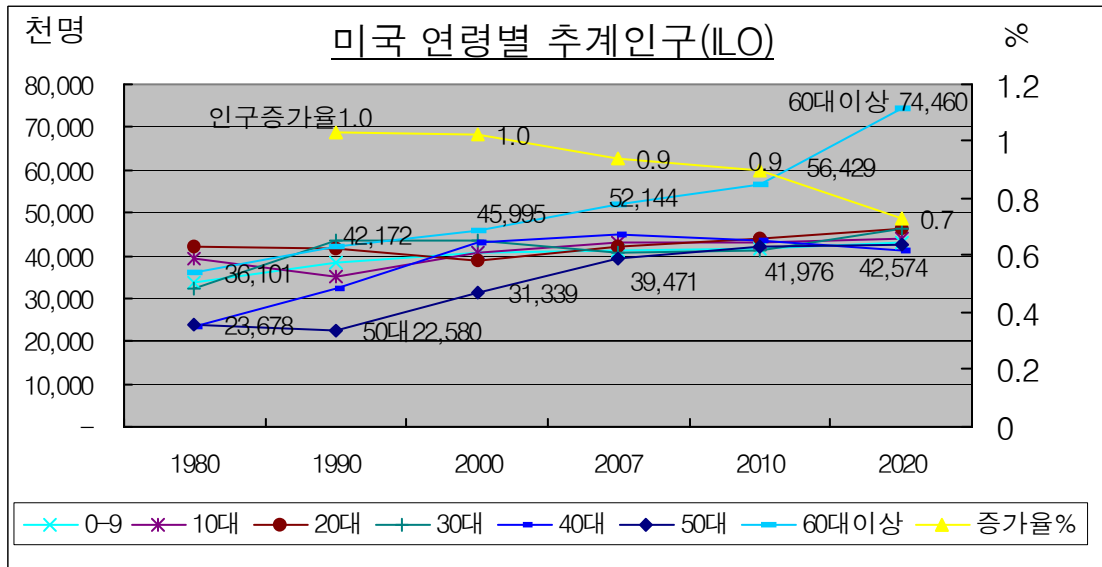
미국의 총인구는 2007년 303백만 명으로 2007년 0.9%로 2020년 0.7%로 인구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이 '07년 52백만 명에서 2020년 74백만 명으로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 보다 크고 인구구성비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 할 전망이다. 50대도 '07년 39백만 명에서 2020년 42백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률이 급격히 상승한 베이비붐이 발생했고, 이후 출생률은 저하 했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적령기를 맞은 1975년 전후에 다시 제2차 베이비붐이 발생했다. 1차 베이비 붐 세대에 의해 2000년부터 2010년에 걸쳐 55~64세 층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35~44세 층은 감소할 전망이다. 또 65세 인구의 비율은 2010년 이후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미 60년 가까이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은 이민의 유입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미국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의 평균연령은 40세로 이탈리아(52세), 독일(47세)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젊은 미국의 파워는 향후 막대한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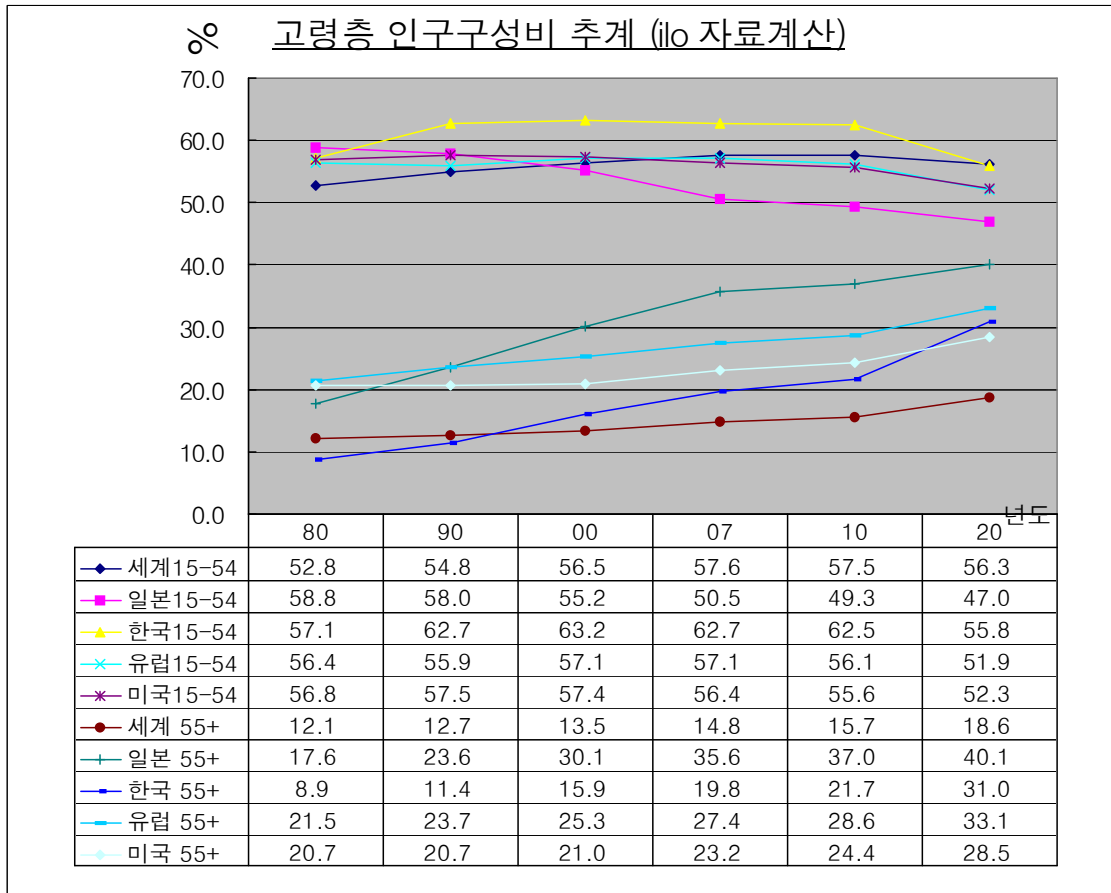
<그림 59> 미국 연령별 인구추계



마. 각국 고령층변화추이 비교

본 논문의 55세 기준 고령층 인구추이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55세 이하 인구 수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세계 공통으로 하락할 추세이나 55세 이상은 향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그림 60> 고령층 인구 구성비 추계



주) ILO 인구추계자료를 토대로 총인구중 해당 연령 구성비율계산

노령화 지수도 1970년 유년인구 100명당 7.2에서 2020년에는 유년인구 100명당 126명, 2050년에는 무려 429명으로 추정된다.

2005년 세계 인구의 노령화 지수는 26인데,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 100으로 가장 높고 한국은 47로 아시아 평균(23)보다는 높다. 2050년 세계인구의 노령화 지수는 82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선진국은 172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190으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2.5배가 될 전망이어서 한국의 경우 현 인구증가율에 의할 경우 향후 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표 17> 노령화 지수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세 계>	26	28	37	51	68	82
선진국	90	97	118	148	165	172
개도국	18	20	28	40	57	71
아시아	23	26	38	55	79	98
유럽	100	106	125	158	180	190
북아메리카	60	65	84	110	121	126
남한	47	68	126	214	315	429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출처: 통계청 2007.10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통계청(2006)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시점과 총인구 감소시점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 볼 때 일본은 94년, 유럽은 2005년 한국은 2010년에 15-54세 인구가 감소하고 전체인구는 일본2013년, 유럽2007년, 한국 2021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ILO 인구추계).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와 함께 인구의 감소문제까지 곧 도래해 국가, 기업, 개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표 18> 각국 고령층(65세 이상 인구) 도달 년도

(단위 : 년도, 년수)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표 19> 국가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기 경제활동참가율비교

국가별	15-54세 인구감소시점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총인구 감소 년도
		감소시점	2007년	
일본	1994	63.7%	59.7%	2013
유럽	2005	57.4%	57.4%	2007
한국	2010	61.4%	61.8%	2021

3) 고령화 요인

- 출산율의 하락

어느 나라든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구조가 성숙해지는 인구변천과정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의 원인은 빠른 경제성장이 출산율을 급격히 하락하여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된 원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1970년대 4.53명, 1980년 2.8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현재 한국정부는 2020년의 출산율 목표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정하고 저 출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저 출산 현상은 경제사회 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데 크게 소득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사회직장요인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일고령화의영향과 파급효과,삼성경제연구소, 2007.8)

- 미래의 경제적 불안증가

외환위기 이후 인력의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면서 평생직장개념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고용비중의 상승 등으로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교육과정 이수기간의 증가와 노동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가족구성을 연기하려는 여성들의 욕구 등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인한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 상승이 저 출산을 가속화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 평균수명의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투자 및 의료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65년 55.3세에서 2005년 77세로 40년간 21.7년이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은 이미 선진국 평균수준인 76.2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20> 주요국 기대수명

국가별	성별	1965	2005	2010
세계	합계	52.3	66	67.2
	남자	50.9	63.9	65
	여자	53.6	68.3	69.5
한국	합계	55.3	77	78.6
	남자	53.6	73.5	75
	여자	56.9	80.6	82.2
일본	합계	69.0	81.9	82.6
	남자	66.7	78.3	79
	여자	71.7	85.2	86.1
미국	합계	70.0	77.4	78.2
	남자	66.8	74.7	75.6
	여자	73.5	80	80.8
프랑스	합계	71.0	79.6	80.7
	남자	67.6	76	77.1
	여자	74.5	83.2	84.1
독일	합계	70.3	78.7	79.4
	남자	67.4	75.7	76.5
	여자	72.9	81.5	82.1
스페인	합계	70.2	80	80.9
	남자	67.9	76.6	77.7
	여자	72.7	83.4	84.2
이탈리아	합계	69.9	81.5	82.1
	남자	67.4	79.9	80.5
	여자	72.6	76.9	77.5
영국	합계	70.8	78.5	79.4
	남자	67.9	76.1	77.2
	여자	73.8	80.7	81.6

자료 : 통계청

* 기대여명(Life Expectancy)과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특정연령에서 주어진 연령별 사망률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생존할 평균기간 (연)수,출생당시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 함 (통계청 통계용어)

4) 고령화의 문제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더불어 기업 및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큰 변화들을 맞이하게 된다.

- 국가측면

고령화 사회로의 이전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한다. 노동공급측면에서는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본공급 측면에서는 저축성향이 낮은 고령층의 증가로 저축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용자금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비생산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자 관련 공적자금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반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계층이 소비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고, 이에 따라 실버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 고령계층 힘이 강해지고, 노인들의 요구대로 사회가 움직이면서 세대 간 갈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 기업측면

연공 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는 고임금 근로자(고령 근로자) 증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노후생활 불안감 증대로 재직 기간 중 고율 임금

인상, 고용안정, 정년연장, 복리후생 확대 등을 요구하여 기업의 부담 증가와 노사 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근로자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기업은 멀지 않아 생산인력의 절대부족, 고령 인력의 비중 증가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 측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들이 양산되고 이들의 고용불안과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50대 중후반 이후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고, 또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도 해당되지 않은 중장년층 계층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다행히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추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앞서 조사된 결과와 같이 노인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더 커지며, 이에 대한 대응책들은 아직도 초보적이며 부족한 실정이다.¹⁸⁾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져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무엇보다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고령화 관련연구

-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성장

18) 고령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 노동연구원, 2006.12. 박준성, 이준우공저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경제학적 논거로는 (1)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저성장과 노동투입량의 감소에 기인한 성장률 하락을 들 수 있다 19)

성장률 회계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을 무시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노동투입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노동투입 증가율은 다시 근로자수 증가율과 근로시간 증가율의 합으로 볼 수 있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2020년대부터 핵심연령층(15-64세)의 절대 수 감소에 따라 근로자수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곧 실근로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투입량(근로자수 및 근로시간)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결국 1인당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데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인구의 상대적 저성장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

borsch-supan(2002)은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노동공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에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규모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는 높은 자본 집약도에 의해서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구고령화는 결국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이 증가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

- 정년제

고령화 사회에 현실은 많은 근로자가 정년제와 관계없이 정년연령에 이를 때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실에서의 정년제라는 것이 정년연령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상실사유 조사 자료에 의하면,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시점의 연령이 50대인 경우에도 단 2.9%만이 정년퇴직에 따른 직장이탈이었다. 2001년 하반기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50~60대 고 연령 근로자들 중에서 그 사유가 정년퇴직인 경우는 60세 이상이 11.9%이고, 50~59세 연령층이 2.9%이

19)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전망, 경제연구 제26권(2005.5) 신동균저

었다. ‘명예퇴직’ 등의 기타 개인사정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 연령별·상실사유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분포(2001년 하반기)

(단위: 명, %)

항목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직, 자영업	28.9	23.2	13.9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정 사정	2.0	1.5	1.2
질병, 부상, 노령 등	2.3	4.1	6.0
징계해고	0.3	0.2	0.2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31.9	30.8	19.8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5.5	4.6	4.5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1.4	1.3	1.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1.4	1.1	1.2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16.9	16.7	21.5
정년퇴직	0.0	2.9	11.9
계약만료, 공사종료	8.9	13.2	12.6
기타	0.2	0.2	5.8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 고용보험 DB. 장지연,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에서 재인용.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년에 조사한 ‘고령자 고용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에서 관리직들의 실제정년은 사규에서 정해진 정년연령이 아니라 임원승진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기업의 40%이상의 사업장이 임원승진시기가 50세 이전이며, 이 시기에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조기퇴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가족부양의 부담이 가장 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는 관리직 인력들이 실질정년과 제도상의 정년 간에 큰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⁰⁾ 또한 노동부도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이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45~54세의 일본, 프랑스, 독일 남성은 평균 18~22년간 같은 고용주와 일을 하

20) 김동배 (2006), 「고령자 고용 및 정년제 실태와 정책과제」,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토론회 발표 논문』, 뉴패러다임센터, pp.51-79.

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약 11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한국의 중고년층 인력들의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¹⁾

정년 제도를 보는 시각은 나라마다, 계층별로 다양하다. 정년을 특정 연령까지의 고용보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특정 연령 이후의 고용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년을 연령차별로 보는 시각이 있다. 예컨대 미국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면서 정년제를 두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일본은 정년제도와 고용연장에 중점을 두면서 연령차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정년제를 인정하면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년이 현실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년이후에도 취업할 의사와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만큼 정년제도와 연령차별 금지의 병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우리나라도 연령차별금지법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연령차별 금지와 정년 제도를 축으로 고용과 처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²²⁾

<그림 61> 국가별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제 실태

	연령차별 금지법제 有	연령차별 금지법제 無
정년제 폐지	①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연령차별 금지제도 예) 미국, 벨기에	· 해당사항 없음
정년제 인정	② 과도기 형태의 연령차별 금지제도 예)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EU 국가	③ 여건상 전면적인 연령차별금지제 미실시 예) 일본, 싱가포르

자료원 : 노동부 (2006),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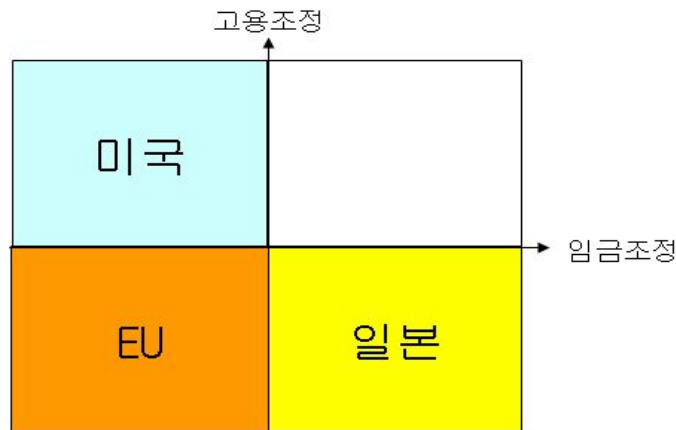
21) 노동부 (2006),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11)」.

22) 고령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 노동연구원, 박준성, 이준우공저, 2006.12 발췌

- 고용조정과 임금조정

일반적으로 미국은 임금유연성보다 고용유연성이 높고, 유럽은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이 낮으며, 일본은 임금유연성이 높고 고용유연성이 낮은 나라로 분류한다. 실업률은 EU가 가장 높고, 미국, 일본 순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고용조정을 경험했고, 이후에도 이러한 고용조정이 상당부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년층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모델은 고용을 보장하고, 대신 임금을 조정하여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일본 모델이 보다 적합하다고 제시되고 있다

<그림 62> 국가별 고용조정과 임금조정 유형



출처: 고령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 한국노동연구원, 박준성,이준우 공저 (2006.12 재인용)

4. 각국의 고령층 고용정책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930년대부터 저 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인 출산·양육 정책을 통해 2005년 말 기준 1.4~1.9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1.17명에 불과하다. 고령화 대책은 미국, 일본 등에서 1950년대에 태동,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고령화대책은 노후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 관리에 초점이 모아진다. 현재 영국 등 유럽 각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직장과 사회에 만연한 조기퇴직 문화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50, 60대를 일터에 붙들어 두는 일이다. 특히 2006년 모든 유럽 국가의 연령차별금지법 도입을 앞두고 각국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식 전환에 힘쓰고 있다. 또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의 캠페인을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1) 한국

우리나라는 2005년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고 또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했으며, 5년마다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고령근로자의 직업이동이 높다는 점을 감안 그간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안정센터 82개소, 고령자인재은행 45개소, 고급인력정보센터 1개소를 운영해 왔다. 지속적으로 고용지원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있으나 고령자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²³⁾ 이들 취업알선기관은 매우 한정된 직종의 일자리에서의 공석에 고령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질과 자원을 민간직업소개소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추진될 제1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절대규모 감소에 미리 대비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재직 고령자에게는 기업의 고용연장 기피요인을 해소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나가고, 실직 고령자에게는 재취직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 일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1970년대부터 일본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4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인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고령화 현상에 단계

23) 노동부 (2006),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11)」.

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고령화 대응 정책과 함께 합계 출산율 1.57명을 기록한 1989년에는 이를 '1.57 쇼크'로 표현하면서 본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도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소자화(小子化) 대책 플러스 원' 정책을 도입,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일 잔업시간을 1시간미만으로 하도록 기업에 요청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급속한 고령자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경제사회의 주역을 활동할 수 있도록 고용·취업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활력을 계속 유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노동력인구 구성의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의 상승에 따라 고령자들이 희망할 경우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에 따라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종신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등에 의해 크게 고령자 고용기회 확보와 노동자의 생애를 통한 능력발휘 기반조성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²⁴⁾

24) 손유미 (2004), 「일본의 중·고령층 경력개발 지원 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 22>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시책	주요 특징
고령자 고용기회 확보	지식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의 고용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기 위한 정년연장, 중신고용제도 도입 촉진 지원 - 고령자 고용어드바이저를 통한 사업주 지도 지원 - 중신고용정착촉진조성금 지급
	중고령자의 재취업 원조와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직업안정소의 고령자 직업상담, 직업소개체제 정비 지역구직 원조계획하에 지역 경제단체와 연계한 지역고령자 능력 활용 직업개발지원사업 실시 퇴직 전 재취직 원조를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고령자 직업상담실 설치
	다양한 형태의 고용기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직업경험활용센터 운영 실버인재센터 공공직업안정소에 고령자취업지원코너 설치 여성과 고령자가 중심이 된 시민활동 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모델사업 개시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개업에 따른 용자제도
	연령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 채용 시 연령제한 완화
노동자의 생애를 통한 능력발휘	직업생활 전 기간을 통한 능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생활을 통한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능력개발기구 도도부현 센터 설립 사업주에 대한 커리어개발촉진조성금 지원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 고령자훈련학과 증설 (2002년 말 126개과)
	여유 있는 직업생활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재충전 휴가제도의 보급 촉진 노동자 멀티라이프 지원 사업
	여성능력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고용기회균등 대책 및 기업의 적극 참여대책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외노동제한, 육아휴가, 개호휴가 등 노동자복지지에 관한 법 개정(2002년4월)
	다양한 근무형태의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에 관한 법률 노동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정보통신을 활용한 원격형 근무형태 개발 보급

출처 : 손유미 (2004), 「일본의 중·고령층 경력개발 지원 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유럽

- 영국

영국의 50세 이상 인구는 약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붐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며, 30대 인구의 과다로 인해 20년 후에는 현재보다 많은 50대의 고령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50세 이상 남성의 취업률이 80년대 전반부터 대폭 저하하고 있는데, 경기후퇴기의 노동수요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나 조기퇴직성향 등 문화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관련 이슈는 최근까지 부각되지 않았으나,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1990년대부터 노동시장의 개혁과 연금제도의 수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노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은 연금이나 연금생활자 보호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경감하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당 정권의 최우선 과제였던 청년 고용 중심의 정책에서 고령자의 고용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캠페인과 차별적 고용관행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전환되었다.

영국은 전반적으로 직장에서의 연령차별이나 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 등의 면에서 유럽의 여타 국가보다 정책적 대응이 뒤늦은 편이었고, 최근 들어서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발표되어 연령차별이 금지되며, 동법에서 65세 이상의 정년을 허용했다. 65세 이하의 정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객관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65세 이하의 정년은 연령차별 및 부당해고로 간주하게 된다. 고용 심판소(Employment Tribunal)는 복직이나 재고용, 보상금 지급명령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정년을 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가능여부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²⁵⁾

1990년대 후반 고령 노동력 활용이 고령화의 유일한 대안임을 깨달은 영국은 '늙으면 일터를 떠나야 한다'는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여기서는 영국의 Age Positive Campaign을 간략히 소개한다.²⁶⁾

25) 엄동욱·배노조·이상우 (200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영국은 EU의 고용 및 직업에서의 균등대우 지침(EU지침 78호)에 따라 2006년부터 연령차별 금지가 법제화되었다. 정부는 사용자의 관련 법안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모집·채용·훈련·퇴직 등 고용단계별로 사용자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연령의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따른 이점을 적극 홍보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의 1/3이 동 지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집 시 연령제한을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기업의 내부 고용평등 지침의 75%가 연령에 따른 고용상의 평등을 명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Age Positive Campaign의 주요 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령차별 금지를 사업장에서 실현한 모범 사용자를 Age Positive Champion으로 선정했다.

- 연령다양성 지침서(Code of Practice on Age Diversity in Employment)를 작성했다. 이를 위해 영국정부는 1999년 핵심 사용자 및 근로자 그룹, 고령자 대표,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모집, 채용, 승진, 훈련 및 개발, 구조조정, 퇴직 등과 관련된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독일

독일의 고령화 사회 대응정책을 보면 자유보다도 연대를 중시하고 고용보호를 강화하고 추진하며, 정치적인 의견조정에 시간이 걸렸지만 2006년 7월에 '일반고용기회평등법'을 제정하여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퇴직연령에 대한 규제는 공적연금수급개시 연령과 맞추어 정년제를 허가하였고, 해고제한법 등의 고연령자 처우 규정을 설정하였다. 채용, 승진, 훈련 등에서의 연령차별은 금지하였으나, 채용상한/하한연령 등의 예외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고령자를 보호하는 고용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1970년대 전반부터 조기퇴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 및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그 현상이 두드러져 프랑스와 같은 조기퇴직문화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반적인 고용침체가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독일 통일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조기퇴직을 장려하도록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즉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조기퇴직 현상이 나타났고, 제도적으로도 조기 퇴직을 유

26) 노동부 (2006),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11)」.

인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했다. 독일 노동조합도 노동시장에서의 소위 ‘세대 간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퇴직을 선호했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퇴직 후 소득수준이 높아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증가했었다. 독일 기업은 고령화문제를 숙련 노동자, 특히 젊은 기술 전문 인력, 엔지니어 등의 인력 부족 문제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인식했었다.²⁷⁾

최근 들어서야 독일에서도 인구구성과 노동의 미래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현재 인구변화는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광의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가 고령화 해결을 위해 1999년도부터 고령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주관하며, 2002년도 ‘Demography-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위 대책, 조합단위 대책(예 :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정치 등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노동인력 고령화 해결책을 일반 대중에 전파하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또한 컨퍼런스, 워크숍, 언론매체, 홈페이지, 출판물 제작 등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지도 형성과 해결책 보급 목표가 달성되었다. 특히 동 프로젝트로 인해 직장 인력의 고령화 변화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지난 2년 사이에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최근까지 고령자에 대한 취업 촉진보다는 고령자를 조기에 퇴직시킴으로서 청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1990년대 장기불황으로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책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고령노동자도 예전보다 더 빠른 시기에 퇴직을 원하게 되고, 정부도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인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조기퇴직문화’가 고착화되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하게 저하해서, 심지어 근로자들이 정년전 퇴직하는 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인식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러한 근로자 의식변화와 더불어, 기업도 고령근로자는 의욕도 없고 변화에 적응하지

27) 이은미·엄동욱 (2001),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못해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다.²⁸⁾ 그러나 최근 들어 연금제도의 재정유지가 어렵게 됨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지급개시일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은 60세이나 프랑스의 경제력으로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통해서 연금지출 절감 및 연금각출, 세수 증대를 꾀하려고 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조기퇴직문화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2001년 11월에 고용에 대해 특별방지법을 가결했다. 종래의 특별금지요인리스트에 연령과 관련된 규정 등이 첨가되었다. 퇴직 연령에 있어 65세 미만에서도 滿額연금수급자의 노사협정에서의 강제퇴직은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령제한을 정한 구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훈련/승진/임금 등 고용의 모든 단계의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다.

- 스웨덴

스웨덴은 인구 중 고령자 비중이 유럽 각국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으나, 출산율은 유럽 평균보다 높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스웨덴은 원래 정년이 65세였지만 지난 2001년부터 정년을 67세로 연장되었다.

이상과 같은 인구변동에 따라 노인복지를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와 자질 있는 복지담당 인력을 계속 확보하는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스웨덴이 향후 대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세금 인상, 민간분야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공공분야에서의 생산성 증대, 새로운 사회복지재정 재원 마련 등이다.

스웨덴은 향후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력부족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가 계속 취업 등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4년 화이트칼라 노동조합, 보험회사 및 공공부문의 경영자 대표 등이 공동으로 전문 캠페인 조직인 '포럼 50+'를 구성하였다.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의 고령근로자로 구성된 포럼은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를 통해 고령근로자 활용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매년 성공사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기업의 고령근로자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28) 이은미·엄동욱 (2001),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고 있다.²⁹⁾

4) 미국

1945년 고령화률이 7%를 넘어선 이래 1950년대부터 고령 친화적 신산업이 처음 등장했을 만큼 미국은 고령화 추세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단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0년을 전후로 미국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1967년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법률’(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제정으로 고령자 고용기회 보호기반을 마련했고, 1990년에는 ADEA의 문제점 보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고령근로자 이익 보호법’(Older Workers Benefit Production Act) 제정했다. 이러한 연령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 기업의 부담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가 전통적으로 자유롭고, 연령차별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직무가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고 있고,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많아 퇴직연령을 정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해도 기업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연령차별금지법은 적극적 의미에서 고령자 고용 창출을 의도하기 보다는 기업 채용 및 인사 관행에서의 연령에 의한 차별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³⁰⁾

고령근로자 활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중고령인력 활용이 기업경영에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1980년대 불황기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온 고령자 활용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고령인력을 비정규직 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재원을 제공하고 민간이 구직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 조직의 경우, 특정분야에서 경험이나 능력이 검증된 고령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구직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³¹⁾ 미국은 연령차별 금지제도와 정년제를 병행하

29) 이은미·엄동욱 (2001),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30) 임춘식 (2006), 「선진국의고령사회 대처 사례」, 『나라경제』 6월호, pp.45-48.

31) 엄동욱·배노조·이상우 (200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또한 정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단 일정 연령 이하의 정년제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간주한다.

5) 기타

이외에도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한 핀란드의 경우는 일찍부터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좀 더 폭넓은 접근을 시도해 왔다. 1980년대부터 국립직업건강연구소를 중심으로 늙음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이를 기반으로 고령 노동자에 적합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고령 노동자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행복한 직장(Well-being at Work)’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람들이 일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비율을 최소화하고 직장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도록 배려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바꾸는 것이 주 내용이다.

덴마크의 경우는 2004년 12월 발효되는 개정법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금지법’에서 ‘연령’이 추가되고 65세미만의 강제퇴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2006년 개정에서는 상한이 70세미만으로 상향되었다. 70세미만의 강제퇴직은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금지시켰다. 연령을 불문하고 실업자에 대한 취업 훈련, 실업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취업대책에서는 고령자 대응 지침책 정예정 기업에게 일정 시간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법률상 상한 하한 연령은 없지만 공적연금수급대상 연령(65세)이상은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법령에 준한 노사합의에서의 연령에서 강제 퇴직(65세 이상)을 허용한다. 즉 공적연금수급대상연령(65세)이상에서 강제퇴직은 허용되었다. 정리 해고 시 대상자는 기업전체 연령구성을 반영하는 것이 의무로 덧붙여졌다. 55-65세의 취업을 매년 3.4%증가시키고 2010년까지 50%로 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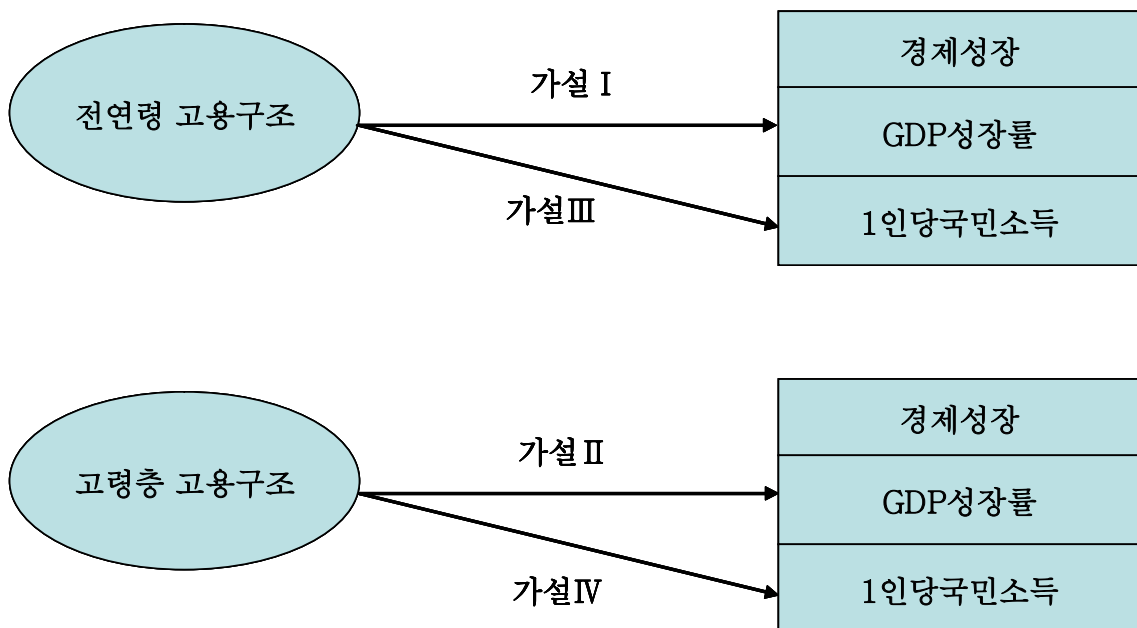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변수

실증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세우고, 한국, EU, 미국, 일본의 노동력조사 데이터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고용구조들과의 정적 또는 부적인 관련성을 검증하고, 특히, 실질경제성장률 및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고령층 고용구조간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63> 연구모형



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실질 GDP 상승률로 정의한다.

2) 1인당 GDP

1인당 GDP는 OECD 자료를 기준으로 1인당 실질GDP로 정의한다.

3) 총인구

한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한다.

4) 생산 가능인구

한 국가의 거주자 중 만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였다. 단 미국, 영국은 만 16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였다.

5) 경제활동 참가인구

만 15세(단, 미국, 영국은 만16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것으로 정의한다.

6) 경제활동참가율

만15세(단, 미국, 영국은 만16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7) 고용률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8) 취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9)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10) 고령층 총인구(고령층 생산 가능인구)

만 55세 한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하며, 고령층 총인구는 만 5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와 동일하게 정의한다.

11)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인구

만 5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것으로 정의한다.

12)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만 5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13) 고령층 고용률

만 55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의한다.

14) 고령층 취업률

만 5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15) 고령층 실업률

만 5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제 2 절 연구 가설

전 연령의 고용구조 및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전 연령의 고용구조와 경제성장,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과의 관련성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경제성장변수는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고용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1.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

각 선진국들에서 인구고령화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전통

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구성장률의 급속한 감소는 그자체로 노동 투입의 증가를 하락시키고 이는 또한 자본의 투자수익률의 감소를 유발하여 경제성장률을 둔화로 이어진다(신동균, 2005). 또한 인구고령화를 통한 복지부분의 지출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성장형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대두된다(윤수봉 외, 2004). 저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의 시대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장려와 함께 부족한 노동력의 창출을 위한 큰 과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또한 대부분 자영업부문과 농업부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고용구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Bloom et al(2001)은 경제성장과 연령구조 변화의 관계를 (동아시아)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인구의 연령구조가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만일 전체 인구 중 유년층 혹은 노년층의 인구의 비중이 크다면 국가의 많은 자원이 이들의 부양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스웨덴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높은 임금 및 물가의 과도한 상승, 생산성의 저성장 등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인수, 2006). 스웨덴은 경기상승기간인 1989년에 고용률은 남성은 85.6%, 여성의 경우는 81.4%에서 정점을 기록하였다(정인수, 2006).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로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1990년대의 고도성장에 여성인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은 최근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령층 실업률은 청년층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이것은 65세 이상 고령실업자는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상태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또 크게 존재한다.(장지연, 2003).

한국의 경우 고령층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그러나 경제의 위기 시 이들의 일자리는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고령층의 임금근로자의 수가 12.1%감소를 보여서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령계층으로 볼 수 있다(장지연, 2003).

한국의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는 OECD가입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종사상의 지위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임시직이나 일용근로자 등의 단순노무직 근로자들의 수가 많은 편이다(장지연, 2003). 이

또한 EU, 일본, 미국의 국가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력들은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1997년 55~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9%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77.7%까지 7.52%포인트 하락한 상황이다. 60~64세 연령계층도 같은 기간에 73.4%에서 64.7%로 8.7%포인트 하락하였다(장지연, 2003).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 연령 및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과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저 출산·저성장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한국, 일본, EU, 미국의 전 연령 및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 변화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설정한다.

①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

가설 I : 전 연령 고용구조는 경제성장률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I-1 : 전 연령 총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2 : 전 연령 생산 가능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3 :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는 경제성장률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4 :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5 : 전 연령 고용률의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6 : 전 연령 취업률의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7 : 전 연령 실업률의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 고령층 고용구조는 경제성장률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II-1 : 고령층 총인구(생산 가능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2 :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경제성장률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3 :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4 : 고령층 고용률의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5 : 고령층 취업률의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6 : 고령층 실업률의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수준

우리나라는 2007년 올해 말을 전후로 2만 불시대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이제 명목상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게 될 이 시점에서, 선진 각 국가들은 1인당국민소득이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며, 경제전반적은 여건들과 함께 변화한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2만 불로 진입하는 전후를 기준으로 각 선진국 국가들은 ‘마의 1만 불’의 시기라고 하여 경제정체기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로 진입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은 평균 2.5% 상승률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1만 불에서 2만 불의 시기로 도래하면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복지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더욱 정체현상을 경험한다. 2만 불 이상 국가들은 또한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그들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윤수봉 외, 2004).

2만 불 시대의 도래는 또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를 초래한다. 1만 불 시대와 달리, 2만 불 시대에서는 1차 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되고 서비스업의 확대됨에 따라 여성고용의 증가는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전병유, 장지연, 박찬임, 부가청, 김현미, 2004).

3만 불 시대의 도래는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며, 높은 소득수준과 복지향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고령인력의 수는 증가한다(윤수봉 외, 2004).

각국별로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1인당국민소득은 영향을 받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산업의 증대는 요구되어진다. 그렇다면, 저 출산 시대에 생산가능인구의 증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는 여성인력 및 고령인력의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고용구조와 경제성장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연령별 고용구조와 1인당 국민소득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III : 전 연령 고용구조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III-1 : 전 연령 총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2 : 전 연령 생산 가능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3 :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4 :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5 : 전 연령 고용률의 증감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6 : 전 연령 취업률의 증감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7 : 전 연령 실업률의 증감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 : 고령층 고용구조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IV-1 : 고령층 총인구(생산 가능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2 :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3 :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4 : 고령층 고용률의 증감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5 : 고령층 취업률의 증감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6 : 고령층 실업률의 증감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조사연구의 표본 및 분석방법

1. 연구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EU 5개국(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의 각 국가의 노동력조사 통계를 통해 1975~ 200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단 고령층 연령별 고용구조 데이터는 OECD데이터를 각년도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자료는 OECD를 통해 1975~ 2005년까지 자료의 분석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변수들 전체에 대한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3.0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가설 검증을 위한 실증분석결과

1. 각 변수간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상관계수(r)가 0.3이상이고 그 값이 유의할 경우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나, 0.8이상의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변수와 고용구조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간의 단순상관관계분석에서, 경제성장률과 1인당국민소득($r=-.265$)은 부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고용률

($r=.230$)은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1인당국민소득과 총인구($r=.396$), 생산 가능인구($r=.426$), 경제활동참가인구($r=.382$)는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취업률($r=-.262$)은 부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경제성장변수와 고령층 고용구조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자. 경제성장률과 총인구(생산 가능인구)($r=-.165$), 실업률($r=-.310$),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고용률($r=.243$)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1인당국민소득과 총인구(생산 가능인구)($r=.582$), 경제활동참가율($r=.467$), 실업률($r=.290$), 고용률($r=.243$)을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표 23> 전 연령 고용구조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 국가	Pearson Correlation											
2. 년도	Pearson Correlation	.000										
3. 실질GDP성장률	Pearson Correlation	-.314**	-.102									
4. GDP(단위 \$)	Pearson Correlation	.317**	.887**	-.265*								
5. 총인구	Pearson Correlation	.468**	.052	-.073	.396**							
6. 생산가능인구	Pearson Correlation	.486**	.043	-.129	.426**	.997**						
7. 경제활동참가인구	Pearson Correlation	.470**	-.025	-.133	.382**	.996**	.998**					
8. 경제활동참가율	Pearson Correlation	-.021	-.098	.104	.102	.649**	.644**	.680**				
9. 실업률	Pearson Correlation	.126	-.133	-.131	-0.72	-.570**	-.555**	-.567**	-.719**			
10. 취업률	Pearson Correlation	-.739**	.075	.094	-.262**	-.812**	-.791**	-.780**	-.235**	.195**		
11. 고용률	Pearson Correlation	-.289**	-.132**	.230**	-.050	.313**	.331**	.347**	.710**	-.827**	.147*	

**P<0.01, *P<0.05

<표 24> 55세 이상 고용구조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 국가	Pearson Correlation											
2. 년도	Pearson Correlation	.000										
3. 실질GDP성장률	Pearson Correlation	-.314**	-.102									
4. GDP(단위 \$)	Pearson Correlation	.317**	.887**	-.265**								
5. 총인구	Pearson Correlation	.425**	.262**	-.165**	.582**							
6. 생산가능인구	Pearson Correlation	.425**	.262**	-.165**	.582**	1.000**						
7. 경제활동참가인구	Pearson Correlation	.219**	.196**	-.085	.467**	.947**	.947**					
8. 경제활동참가율	Pearson Correlation	-.390**	.141*	.228**	.065	.365**	.365**	.552*				
9. 실업률	Pearson Correlation	.182**	.277**	-.310**	.298**	.065	.065	-.108	-.295**			
10. 취업률	Pearson Correlation	.088	.296**	-.045	.290**	.326**	.326**	.277**	-.576**	.227**		
11. 고용률	Pearson Correlation	-.390**	.127*	.243**	.049	.350**	.350**	.543**	.999**	-.341**	.562**	

**P<0.01, *P<0.05

2. 회귀분석 결과

1)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가설 I 검증 : 전 연령 고용구조는 경제성장률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표 26>에서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중 생산가능인구(0.001), 경제활동참가인구(0.000), 경제활동참가율(0.019), 고용율(0.013), 취업률(0.001)에서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표 25>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592 ^a	.350	.322	2.04279

a. Predictors: (Constant), 취업률, GDP(단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생산가능인구, 총인구, 경제활동참가인구

<표 26>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3.195	10.064		-.317	.751
GDP(단위:\$)	.000	.000	-.322	-3.756	.000
총인구	-4.6E-005	.000	-1.358	-.904	.367
생산가능인구	.000	.000	-7.206	-3.360	.001
경제활동참가인구	.001	.000	8.257	3.790	.000
경제활동참가율	-.220	.093	-.494	-2.368	.019
실업률	-.016	.071	-.036	-.221	.825
고용률	-.070	.028	-.567	-2.521	.013
취업률	.307	.087	.559	3.520	.001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P<0.01, *P<0.05

① 가설 I-1 검증

가설 I-1의 검증은 총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총인구와 경제성장률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I-1 : 전 연령 총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27>에서 살펴보면, 전 연령 총인구는 경제성장률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설 I-1은 채택되지 않는다. 먼저 경제성장률에 대한 설명량($R^2=.005$, $p=0.266$)은 유의하지 않았다. 전 연령 총인구는 경제성장률을 설명하지 못하여 β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27> 전 연령 총인구와 경제성장률의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073 ^a	.005	.001	2.57848

a. Predictors: (Constant), 총인구

b.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표 28> 전 연령 총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3.317	.276		11.998	.000
	총인구	-2.7E-006	.000	-.073	-1.116	.266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P<0.01, *P<0.05

② 가설 I-2 검증

가설 I-2 의 검증은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2 :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29>에서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는 경제성장률과 ($\beta=-.129$, $p=0.062$)로 $p=0.1$ 에서 β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설명량은 ($R^2=.017$)이다.

<표 29>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129 ^a	.017	.012	2.55233

a. Predictors: (Constant), 생산가능인구

b.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표 30>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3.641	.292		12.467	.000
	생산가능인구	-6.1E-006	.000	-.129	-1.878	.062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③ 가설 I-3 검증

가설 I-3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3 :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와 경제성장률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32>에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인구($\beta = -.133$, $p = 0.060$)은 $p = 0.1$ 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설명량($R^2 = .018$)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인구는 경제성장률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31>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경제성장률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133 ^a	.018	.013	2.58362

a. Predictors: (Constant), 경제활동참가인구

b.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표 32>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경제성장률 관계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3.696	.287		12.865	.000
	경제활동참가인구	-9.3E-006	.000	-.133	-1.891	.060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④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가설 I-4의 검증은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4 :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33> 경제성장률에 대한 설명량($R^2=.011$, $p=0.141$)은 유의하지 않았다.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설명하지 못하여 β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33>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104 ^a	.011	.006	2.59247

a. All requested variables entered

b.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표 34>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계수 (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379	1.967		.193	.847
	경제활동참가율	.049	.033	.104	1.479	.141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⑤ 전 연령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가설 I-5의 검증은 전 연령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전 연령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5 : 전 연령 고용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고용률 ($r=.230$, $p=.01$)은 <표 23>에서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회귀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

<표 35> 전 연령 고용률은 경제성장률의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094 ^a	.009	.004	2.59503

a. Predictors: (Constant), 고용률

<표 36> 전 연령 고용률은 경제성장률의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2.720	.454		5.995	.000
	고용률	.012	.009	.094	1.337	.183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⑥ 가설 I-6 검증

가설 I-6 검증은 전 연령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취업률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35>에서 살펴보면, 전 연령 취업률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설명량($R^2=.053$)으로 정적으로 상관을 갖는다. 전 연령 취업률($\beta=.230$, $p=0.000$)은 $p=0.05$ 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가설 I-6 : 전 연령 취업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37> 전 연령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230 ^a	.053	.049	2.36894

a. Predictors: (Constant), 취업률

<표 38> 전 연령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계수 (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8.349	3.182		-2.624	.009
	취업률	.123	.034	.230	3.572	.000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⑦ 가설 I-7 검증

가설 I-7의 검증은 전 연령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7 : 전 연령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0>를 살펴보면, 전 연령 실업률($\beta=-.131$, $p=0.064$)은 $p=0.1$ 에서 경제성장률과의 관계에서 부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설명량은 $R^2=.017$ 이다.

<표 39> 전 연령 실업률은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131 ^a	.017	.012	2.58425

a. Predictors: (Constant), 실업률

b.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표 40> 전 연령 실업률은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3.630	.263		13.785	.000
	실업률	-.060	.032	-.131	-1.864	.064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2)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가설 II의 검증은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과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 : 고령층 고용구조는 경제성장률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표 42>에서 살펴보면,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중 실업률($\beta=-.678$, $p=0.025$)은 $p=.05$ 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른 변수들은 즉 생산가능인구, 경

제활동참가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고용률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575 ^a	.330	.163	3.44784

a. Predictors: (Constant), 노령화 지수, 취업률(55세이상;단위-%), 실업률(55세이상;단위-%), 고용률(55세이상;단위-%), 경제활동참가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생산가능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b.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표 42>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20.286	9.448		2.147	0.42
생산가능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024	.019	16.002	1.216	.236
경제활동참가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033	.037	-10.403	-.888	.383
실업률(55세이상;단위-%)	-6.366	2.656	-.678	-2.397	.025
취업률(55세이상;단위-%)	-.950	.894	-9.313	-1.063	.298
고용률(55세이상;단위-%)	1.392	1.860	6.118	.749	.461
노령화 지수	-1.193	.945	-3.569	-1.263	.219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① 고령층 총인구(생산인구)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가설 II-1의 검증은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1 :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4>에서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beta=-.165$, $p=.01$)는 $p=0.05$ 수준에서 경제성장률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설명량인 $R^2=.027$ 이다.

<표 43>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165 ^a	.027	.023	2.52098

a. Predictors: (Constant), 총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표 44>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3.595	.263		13.656	.000
	총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2.8E-005	.000	-.165	-2.602	.010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②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가설 II-2 의 검증은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2 :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경제성장률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6>에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경제성장률은 $p=0.185$ 로 $p=.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β 값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표 45>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085 ^a	.007	.003	2.54674

a. Predictors: (Constant), 경제활동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b.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표 46>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3.271	.231		14.158	.000
경제활동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3.9E-005	.000	-.085	-1.328	.185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③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가설 II-3 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3 :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8>에서 살펴보면, 고령층 고용구조($\beta=.228$, $p=.000$)은 $p=.05$ 수준에서 경제성장률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 설명량 $R^2=.052$ 이다.

<표 47>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모형(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228 ^a	.052	.048	2.48898

a. Predictors: (Constant), 경제활동참가율(55세이상;단위-%)

b.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표 48>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842	.369		4.987	.000
경제활동참가율(55세이상:단위-%)	.047	.013	.228	3.635	.000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④ 고령층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가설 II-4의 검증은 고령층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고용률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4 : 고령층 고용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50>를 살펴보면, 고령층 고용률($\beta=.243$, $p=0.000$)은 $p=.05$ 수준에서 경제성장률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 설명량인 $R^2=.059$ 이다.

<표 49> 고령층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모형 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243 ^a	.059	.055	2.47942

a. Predictors: (Constant), 고용률(55세이상;단위-%)

<표 50> 고령층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 요약(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813	.356		5.093	.000
	고용률(55세 이상;단위-%)	.051	.013	.243	3.896	.000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⑤ 고령층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가설 II-5의 검증은 고령층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5 : 고령층 취업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고령층 취업률은 $p=0.484$ 은 $p=0.1$ 수준에서 채택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β 값은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표 51> 고령층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모형(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045 ^a	.002	-.002	2.55342

a. Predictors: (Constant), 취업률(55세이상;단위-%)

<표 52> 고령층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3.513	.676		5.198	.000
	취업률(55세 이상;단위-%)	-.005	.007	-.045	-.701	.484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⑥ 고령층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가설 II-6 검증은 고령층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6 : 고령층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54>에서 살펴보면, 고령층 실업률($\beta = -.310$, $p = 0.000$)은 $p = .05$ 수준에서 경제성장률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설명량인 $R^2 = .096$ 이다.

<표 53> 고령층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모형(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310 ^a	.096	.092	2.43000

a. Predictors: (Constant), 실업률(55세이상;단위-%)

b.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표 54> 고령층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4.201	.274		15.308	.000
	실업률(55세 이상:단위-%)	-.247	.049	-.310	-5.074	.000

a.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3) 전 연령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Ⅲ의 검증은 전 연령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Ⅲ : 전 연령 고용구조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표 56>에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인구($\beta=1.597$ $p=0.000$), 고용률($\beta=0.555$ $p=.000$)로 정적 관련성을 가지며, 생산가능인구($\beta=-1.280$, $p=.003$), 경제활동참가율($\beta=-.333$, $p=.000$), 실업률($\beta=-.117$, $p=.000$)은 부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p=0.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진다. 설명량을 나타내는 $R^2=.975$ 로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표 55> 전 연령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987 ^a	.975	.974	1303.77125

a. Predictors: (Constant), 고용률, 년도, 실업률, 실질성장률

<표 56> 전 연령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587277	34569.794		-45.915	.000
국가	1373.239	68.521	.417	20.041	.000
년도	809.536	16.686	.801	48.515	.000
실질 GDP 성장률	-111.076	45.023	-.036	-2.467	.014
총인구	.053	.035	.480	1.534	.127
생산가능인구	-.189	.063	-1.280	-3.006	.003
경제활동참가인구	.346	.096	1.597	3.612	.000
경제활동참가율	-489.141	60.847	-.333	-8.039	.000
실업률	-166.762	35.321	-.117	-4.721	.000
고용률	225.242	18.472	.555	12.194	.000
취업률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① 전 연령 총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III-1은 전 연령 총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총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I-1 : 전 연령 총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57>에서 전 연령 총인구 ($\beta=.396$, $p=.000$)은 $p=0.05$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설명량을 나타내는 $R^2=.157$ 이다.

<표 57> 전 연령 총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396 ^a	.157	.153	7742.69472

a. Predictors: (Constant), 총인구

<표 58> 전 연령 총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계(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2582.465	823.393		15.281	.000
총인구	.049	.007	.396	6.657	.000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②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Ⅲ-2의 검증은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Ⅲ-2 :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는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60>에서 살펴보면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beta=.426$, $p=.0.000$)은 $p=.05$ 수준에서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정적으로 관련성을 가진다. 설명량인 $R^2=.182$ 이다.

<표 59>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426 ^a	.182	.178	7503.85956

a. Predictors: (Constant), 생산가능인구

<표 60>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3238.005	851.139		15.553	.000
	생산가능인구	.066	.010	.426	6.890	.000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③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Ⅲ-3 의 검증은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Ⅲ-3 :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62>에서 살펴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beta=.382$, $p=0.000$)은 $p=.05$ 수준에서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정적으로 관련성을 가진다. 설명량을 나타내는 $R^2=.146$ 이다.

<표 61>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382 ^a	.146	.142	7473.03514

a. Predictors: (Constant), 경제활동참가인구

<표 62>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4759.602	825.127		17.888	.000
경제활동참가인구	.083	.014	.382	5.891	.000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④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III-4의 검증은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I-4 :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은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64>에서 살펴보면,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은 $p=0.144$ 로 $p=0.1$ 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β 값은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표 63>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102 ^a	.011	.006	8044.10255

a. Predictors: (Constant), 경제활동참가율

<표 64>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9746.819	6005.287		1.623	.106
경제활동참가율	149.977	102.156	.102	1.468	.144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⑤ 전 연령 고용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III-5의 검증은 전 연령 고용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고용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I-5 : 전 연령 고용률은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66>에서 살펴보면, 전 연령 고용률($\beta = -.262$, $p = 0.000$)은 $p = .05$ 수준에서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부적인 상관을 가진다. 설명량인 $R^2 = .069$ 이다.

<표 65> 전 연령 고용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262 ^a	.069	.064	7803.22905

a. Predictors: (Constant), 고용률

<표 66> 전 연령 고용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23366.604	1363.197		17.141	.000
고용률	-107.425	27.722	-.262	-3.875	.000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⑥ 전 연령 취업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III-6의 검증은 전 연령 취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취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I-6 : 전 연령 취업률의 증감은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67>에서 전 연령 취업률은 $p=0.443$ 은 $p=0.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β 값은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표 67> 전 연령 취업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050 ^a	.003	-.002	8193.86043

a. Predictors: (Constant), 취업률

<표 68> 전 연령 취업률의 증감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25759.250	11001.413		2.341	.020
	취업률	-91.540	119.115	-.050	-.769	.443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⑦ 전 연령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가설 III-7 의 검증은 전 연령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 연령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I-7 : 전 연령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70>에서 전 연령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은 $p= .1$ 에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β 값은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표 69> 전 연령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072 ^a	.005	.000	8065.86478

a. Predictors: (Constant), 실업률

<표 70> 전 연령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9131.186	817.214		23.410	.000
	실업률	-103.027	100.553	-.072	-1.025	.307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4) 고령층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

가설 IV 의 검증은 고령층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유의한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유의한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V : 고령층 고용구조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표 72>에서 고령층 고용구조 중 생산가능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참가인구($\beta=.297$, $p=.000$), 취업률($\beta=.100$, $p=.000$)은 $p=0.05$ 수준에서 정적 관련성을 가지며, 경제활동참가율($\beta=1.053$, $p=.061$)은 $p=0.1$ 수준에서 정적 관련성을 가진다. 실업률($\beta=-.111$, $p=.001$), 고용률($\beta=-1.356$, $p=.018$)은 $p=0.05$ 수준에서 부적 관련성을 가진다.

<표 71> 고령층 고용구조와 1인당 국민 소득수준간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983 ^a	.967	.965	1556.79003

a. Predictors: (Constant), 고용률(55세이상;단위-%), 년도, 실질GDP성장률, 국가, 실업률(55세이상;단위-%), 경제활동참가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취업률(55세이상;단위-%), 생산가능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경제활동참가율(55세이상;단위-%)

b. Dependent Variable: 실질GDP성장률

<표 72> 고령층 고용구조와 1인당 국민 소득수준간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525073	25786.539		-59.142	.000
국가	317.432	78.611	.088	4.038	.000
년도	773.596	12.989	.821	59.558	.000
실질GDP성장률	-165.362	45.289	-.050	-3.651	.000
생산가능인구(55세이상; 단위-천명)	.061	.045	.109	1.367	.173
경제활동참가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444	.126	.297	3.533	.000
경제활동참가율(55세이상;단위-%)	716.209	380.666	1.053	1.881	.061
실업률(55세이상;단위-%)	-289.699	90.130	-.111	-3.214	.001
취업률(55세이상;단위-%)	37.697	10.088	.100	3.737	.000
고용률(55세이상;단위-%)	-925.611	389.439	-1.356	-2.377	.018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①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IV-1은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IV-1 :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74>에서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beta=.582$, $p=.000$)는 $p=0.05$ 수준에서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설 명량을 나타내는 $R^2=.338$ 이다.

<표 73>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582 ^a	.338	.336	6861.89004

a. Predictors: (Constant), 총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표 74>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0338.351	712.796		14.504	.000
총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330	.029	.582	11.216	.000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②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가설 IV-2의 검증은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V-2 :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76>에서 살펴보면, 고령층 경제활동인구($\beta=.467$, $p=.000$)는 $p=0.05$ 수준에서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다. 설 명량을 나타내는 $R^2=.218$ 이다.

<표 75>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467 ^a	.218	.215	7459.13647

a. Predictors: (Constant), 경제활동참가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표 76>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수준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2730.134	670.787		18.978	.000
경제활동인구(55세이상;단위-천명)	.707	.085	.467	8.285	.000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③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

가설 IV-3의 검증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한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V-3 :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78>에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p=0.307$)은 $p=0.1$ 수준에서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β 값은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표 77>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065 ^a	.004	.000	8417.98614

a. Predictors: (Constant), 경제활동참가율(55세이상;단위-%)

<표 78>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5519.968	1239.409		12.522	.000
	경제활동참가율(55세이상;단위-%)	44.744	43.677	.065	1.024	.307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④ 고령층 고용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IV-4의 검증은 고령층 고용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고용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IV-4 : 고령층 고용률의 증감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80>에서 고령층 고용률 ($p=0.441$)은 $p=.1$ 수준에서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β 값은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표 79> 고령층 고용률의 증감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049 ^a	.002	-.002	8425.72049

a. Predictors: (Constant), 고용률(55세이상;단위-%)

<표 80> 고령층 고용률의 증감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5836.381	1199.779		13.199	.000
	고용률(55세이상;단위-%)	33.899	43.906	.049	.772	.441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⑤ 고령층 취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IV-5의 검증은 고령층 취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취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V-5 : 고령층 취업률은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82>에서 살펴보면, 고령층 취업률($\beta=.290$, $p=.000$)은 $p=0.05$ 수준에서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설 명량을 나타내는 $R^2=.084$ 이다.

<표 81> 고령층 취업률의 증감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련성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290 ^a	.084	.080	8073.46495

a. Predictors: (Constant), 취업률(55세이상;단위-%)

<표 82> 고령층 취업률의 증감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련성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6807.919	2136.698		3.186	.002
취업률(55세이상;단위-%)	110.202	23.189	.290	4.752	.000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⑥ 고령층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계

가설 IV-6 의 검증은 고령층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층 실업률과 1인당국민소득수준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V-6 : 고령층 실업률의 증감은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84>에서 살펴보면, 고령층 실업률($\beta=.298$, $p=.000$)은 $p=0.05$ 수준에서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다. 설 명량을 나타내는 $R^2=.089$ 이다.

<표 83> 고령층 실업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모형요약(b)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298 ^a	.089	.085	8052.61397

a. Predictors: (Constant), 실업률(55세이상;단위-%)

<표 84> 고령층 실업률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의 관계 계수(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3016.645	903.747		14.403	.000
실업률(55세이상;단위-%)	785.393	160.395	.298	4.897	.000

a. Dependent Variable: GDP(단위:\$)

<표 85> 회귀분석 결과

가설 번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 계수 β	t	p유의 확률	r ²	채택여부
가설 I	실질GDP 성장률	전 연령 고용구조	-7.206	-3.360	0.001	0.350	부분채택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취업률)
			8.257	3.790	0.000		
			-0.494	-2.368	0.019		
			-0.567	-2.521	0.013		
			0.559	3.520	0.001		
가설 I-1	“	총인구	-0.073	-1.116	0.266	0.005	채택 못함
가설 I-2	“	생산가능인구	-0.129	-1.878	0.062	0.017	채택
가설 I-3	“	경제활동참가인구	-0.133	-1.891	0.060	0.018	채택
가설 I-4	“	경제활동참가율	0.104	1.479	0.141	0.011	채택 못함
가설 I-5	“	고용률	0.094	1.337	0.183	0.009	채택 못함
가설 I-6	“	취업률	0.230	3.572	0.000	0.053	채택
가설 I-7	“	실업률	-0.131	-1.864	0.064	0.017	채택
가설 II	실질GDP 성장률	고령층 고용구조	-0.678	-2.397	0.025	0.330	부분채택 (실업률)
가설 II-1	“	고령층인구	-0.165	-2.602	0.010	0.027	채택
가설 II-2	“	경제활동인구	-0.085	-1.328	0.185	0.007	채택 못함
가설 II-3	“	경제활동참가율	0.228	3.635	0.000	0.052	채택
가설 II-4	“	고용률	0.243	3.896	0.000	0.059	채택
가설 II-5	“	취업률	-0.045	-0.701	0.484	0.002	채택 못함
가설 II-6	“	실업률	-0.310	-5.074	0.000	0.096	채택
가설 III	1인당 GDP	전 연령 고용구조	-1.280	-3.006	0.003	0.975	부분채택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597	3.612	0.000		
			-0.333	-8.039	0.000		
			-0.117	-4.721	0.000		
			0.555	12.194	0.000		
가설 III-1	“	총인구	0.396	6.657	0.000	0.157	채택
가설 III-2	“	생산가능인구	0.426	6.890	0.000	0.182	채택
가설 III-3	“	경제활동인구	0.382	5.891	0.000	0.146	채택
가설 III-4	“	경제활동참가율	0.102	1.468	0.144	0.011	채택 못함
가설 III-5	“	고용률	-0.262	-3.875	0.000	0.069	채택
가설 III-6	“	취업률	-0.050	-0.769	0.443	0.003	채택 못함
가설 III-7	“	실업률	-0.072	-1.025	0.307	0.005	채택 못함
가설 IV	1인당 GDP	고령층 고용구조	0.297	3.533	0.000	0.967	부분채택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1.053	1.881	0.061		
			-0.111	-3.214	0.001		
			0.100	3.737	0.000		
			-1.356	-2.377	0.018		
가설 IV-1	“	고령층인구	0.582	11.216	0.000	0.338	채택
가설 IV-2	“	경제활동인구	0.467	8.285	0.000	0.218	채택
가설 IV-3	“	경제활동참가율	0.065	1.024	0.307	0.004	채택 못함
가설 IV-4	“	고용률	0.049	0.772	0.441	0.002	채택 못함
가설 IV-5	“	취업률	0.290	4.752	0.000	0.084	채택
가설 IV-6	“	실업률	0.298	4.897	0.000	0.089	채택

3. 시계열분석결과

1) 분석방법

- 대상국가 : 한국, 일본, 미국 , 유럽5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 자료의 정의 : 본 논문의 제3장 2절 연구변수의 정의와 동일
- 분석대상 : 전 연령과 55세 이상으로 구분
 - 전 연령 :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실업자 분석
 - 55세 이상 : 55세 이상인구, 55세 이상 취업자, 55세 이상 실업자 분석
- 분석기간 : '75 - 2005년자료를 토대로 '06-2030년까지 시계열분석
- 시계열 분석방법 :
 - 자귀회귀분석을 사용하여 2006년부터 2030년 까지 예측값(FIT값)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고용률 산식에 대입하여 추정치 계산
추정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 실업자 추정치를 더한 값으로 산정,
 - 전 연령 추정치 ('06-2030)
전 연령 고용률 = 전 연령 취업자/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
전 연령 취업률 = 전 연령 취업자/전 연령 경제활동인구
전 연령 실업률 = 전 연령 실업자/전 연령 경제활동인구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 ① = 전 연령 취업자 + 전 연령 실업자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 = ①/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
 - 55세 이상
55세 이상 고용률 =55세 이상 취업자/ 5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55세 이상 취업률 = 55세 이상 취업자/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55세 이상 실업률 = 55세 이상 실업자/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② = 55세 이상 취업자 + 55세 이상 실업자
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 ②/ 5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 SPSS 한글판 12사용,
 - LCL_1, UCL_1은 예측 값의 신뢰수준 95%의 신뢰구간임
 - 정확한 최대우도 사용, 최종모수값만 출력, 자기상관도표는 Bartlett근사치 적용

2)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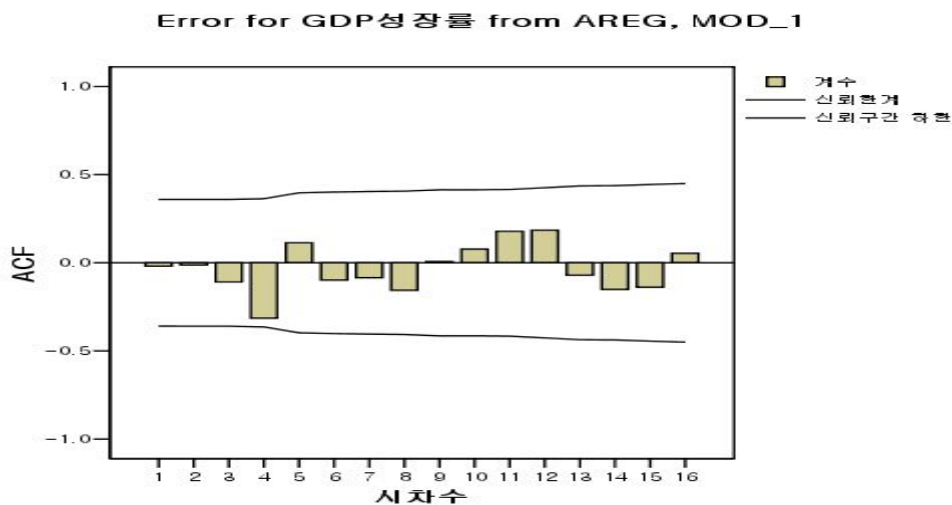
○ 평균 GDP 상승률

단순 ARIMA 모형 ARI 에서 기울기 $0.26002 < 1$ 이나 $T=1.45 < 2$ 므로 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나 자기상관계수가 신뢰한계선 안에 존재하므로 잔차가 통계적으로 독립하다.

<표 86> GDP 상승률 추정결과

GDP 상승률 :FINAL PARAMETERS:				
Number of residuals	31			
Standard error	1.2693276			
Log likelihood	-49.911853			
AIC	105.82371			
SBC	110.12567			
Analysis of Variance:				
	DF	Adj. Sum of Squares	Residual Variance	
Residuals	28	45.215389	1.6111926	
Variables in the Model:				
	B	SEB	T-RATIO	APPROX. PROB.
AR1	.2600280	.17858076	1.4560809	.15649268
기간	-.0249804	.03330740	-.7499941	.45951425
CONSTANT	3.4285813	.61385446	5.5853326	.00000562

<그림 64> GDP 상승률 자기상관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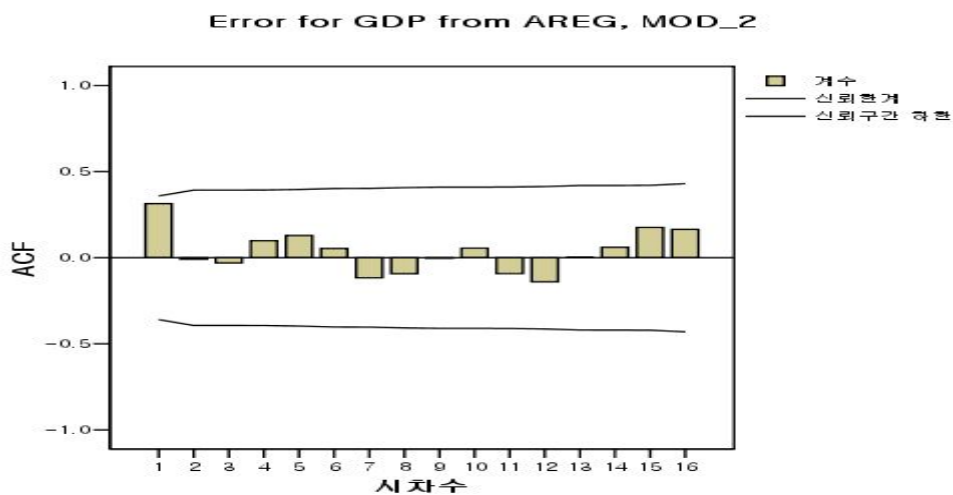
○ 1인당 GDP \$

단순 ARIMA 모형 ARI 에서 기울기 $0.94957 < 1$ 이고 $T=18.666 > 2$, 므로 5%수준에서 유의하며, 세계의 모수가 모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자기상관계수가 신뢰한계선 안에 존재하므로 잔차가 통계적으로 독립하다.

<표 87> 1인당 GDP 추정결과

1인당 GDP : FINAL PARAMETERS:				
Number of residuals	31			
Standard error	241.07956			
Log likelihood	-213.61379			
AIC	433.22757			
SBC	437.52953			
Analysis of Variance:				
	DF	Adj. Sum of Squares	Residual Variance	
Residuals	28	1753781.1	58119.354	
Variables in the Model:				
	B	SEB	T-RATIO	APPROX. PROB.
AR1	.94957	.05087	18.666754	.00000000
기간	843.44445	32.11779	26.260973	.00000000
CONSTANT	3817.57435	772.62532	4.941042	.00003258

<그림 65> 1인당 GDP 자기상관도표



○ 전 연령 시계열분석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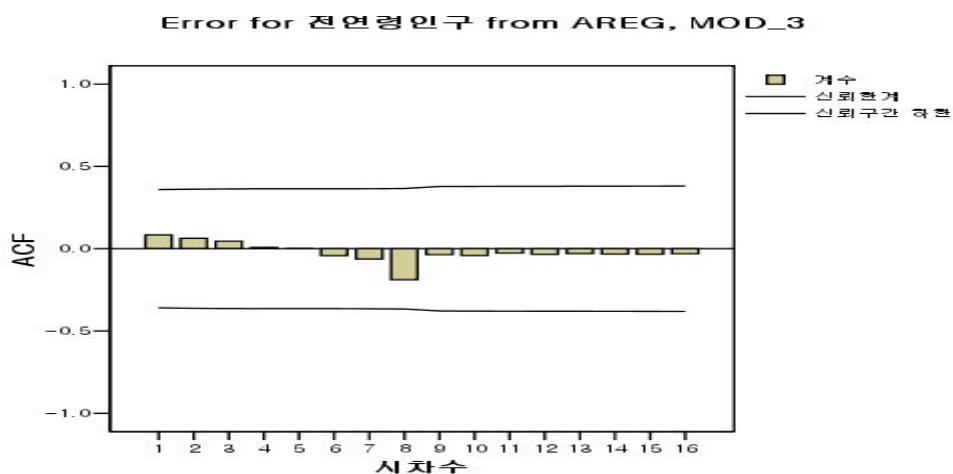
- 전 연령 총인구 :

단순 ARIMA 모형 ARI 에서 기울기 $0.82595 < 1$ 이고, $T=7.847 > 2$ 므로 5%수준에서 유의하다. 세계의 모수가 모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자기상관계수가 신뢰한계선 안에 존재하므로 잔차가 통계적으로 독립하다.

<표 88> 전 연령 인구 추정결과

전 연령 총인구 ; FINAL PARAMETERS:				
Number of residuals	31			
Standard error	862.57093			
Log likelihood	-252.57191			
AIC	511.14382			
SBC	515.44578			
Analysis of Variance:				
	DF	Adj. Sum of Squares	Residual Variance	
Residuals	28	21617569.4	744028.62	
Variables in the Model:				
	B	SEB	T-RATIO	APPROX. PROB.
AR1	.82595	.10525	7.847542	.00000002
기간	414.58327	67.23307	6.166359	.00000117
CONSTANT	82874.07564	1328.06676	62.402040	.00000000

<그림 66> 전 연령 인구 자기상관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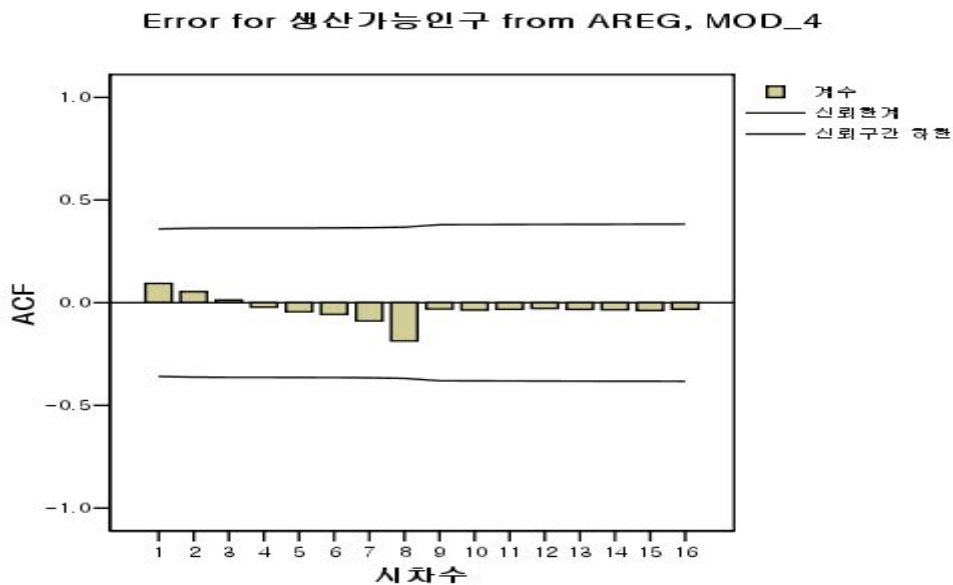
-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

단순 ARIMA 모형 ARI 에서 기울기 $0.757 < 1$ 이고 $T=6.28 > 2$ 므로 5%수준에서 유의하다. 세계의 모수가 모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자기상관계수가 신뢰한계선 안에 존재하므로 잔차가 통계적으로 독립하다.

<표 89>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 추정결과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 : FINAL PARAMETERS:				
Number of residuals	31			
Standard error	3083.4759			
Log likelihood	-291.92523			
AIC	589.85047			
SBC	594.15243			
Analysis of Variance:				
	DF	Adj. Sum of Squares	Residual Variance	
Residuals	28	273634111.3	9507823.9	
Variables in the Model:				
	B	SEB	T-RATIO	APPROX. PROB.
AR1	.75716	.12051	6.282970	.00000086
기간	188.54943	194.35292	.970139	.34028331
CONSTANT	69457.11236	3741.61857	18.563387	.00000000

<그림 67>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 자기상관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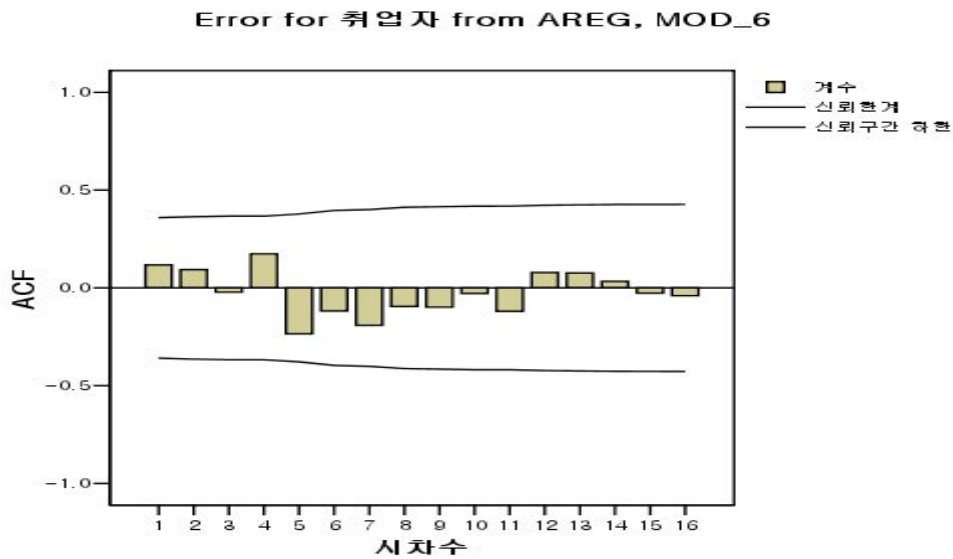
- 전 연령 취업자

단순 ARIMA 모형 ARI 에서 기울기 $0.81355 < 1$ 이고 $T=7.911 > 2$ 므로 5%수준에서 유의하다. 세계의 모수가 모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자기상관계수가 신뢰한계선 안에 존재하므로 잔차가 통계적으로 독립하다.

<표 90> 전 연령 취업자 추정결과

전 연령 취업자 : FINAL PARAMETERS:				
Number of residuals	31			
Standard error	791.09103			
Log likelihood	-249.86125			
AIC	505.72251			
SBC	510.02447			
Analysis of Variance:				
	DF	Adj. Sum of Squares	Residual Variance	
Residuals	28	18146868.3	625825.03	
Variables in the Model:				
	B	SEB	T-RATIO	APPROX. PROB.
AR1	.81355	.10284	7.911111	.00000001
기간	293.80979	59.14932	4.967255	.00003033
CONSTANT	35002.48949	1161.38502	30.138575	.00000000

<그림 68> 전 연령 취업자 자기상관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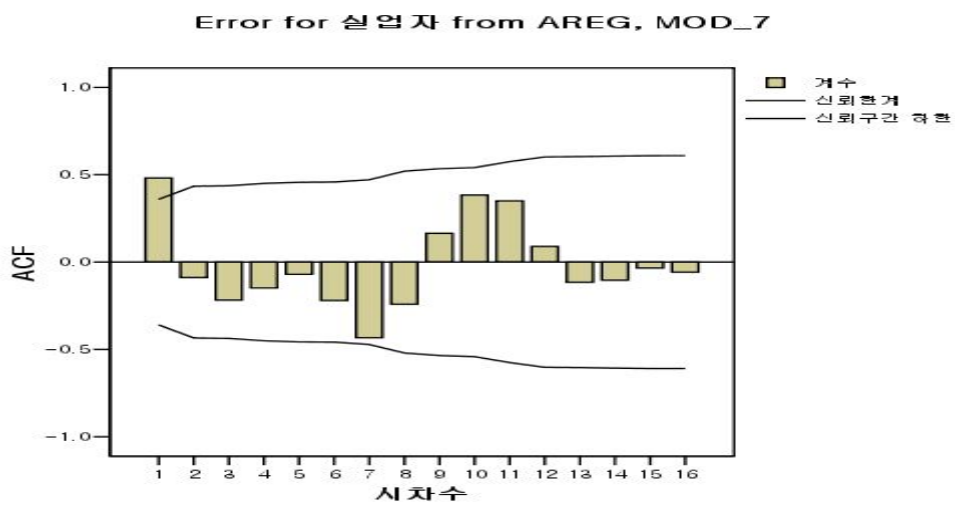
- 전 연령 실업자

단순 ARIMA 모형 ARI 에서 기울기 $0.80853 < 1$ 이고 $T=7.614 > 2$ 므로 5%수준에서 유의하다. 세계의 모수가 모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자기상관계수가 신뢰한계선 안에 존재하므로 잔차가 통계적으로 독립하다.

<표 91> 전 연령 실업자 결과

전 연령 실업자 : FINAL PARAMETERS:				
Number of residuals	31			
Standard error	169.34848			
Log likelihood	-202.06503			
AIC	410.13006			
SBC	414.43202			
Analysis of Variance:				
	DF	Adj. Sum of Squares	Residual Variance	
Residuals	28	830955.15	28678.908	
Variables in the Model:				
	B	SEB	T-RATIO	APPROX. PROB.
AR1	.80853	.10619	7.6141645	.00000003
기간	32.65622	12.45601	2.6217237	.01398667
CONSTANT	2179.39505	244.02887	8.9308901	.00000000

<그림 69> 전 연령 실업자 자기상관도표



○ 5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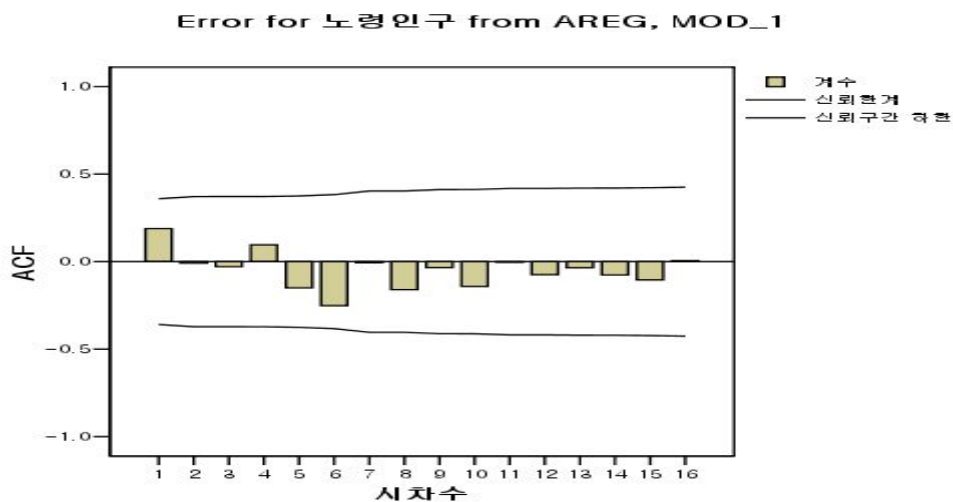
- 55세 이상

단순 ARIMA 모형 ARI 에서 기울기 $0.75203 < 1$ 이고 $T=6.3628 > 2$ 므로 5%수준에서 유의하다. 세계의 모수가 모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자기상관계수가 신뢰한계선 안에 존재하므로 잔차가 통계적으로 독립하다.

<표 92> 55세 이상 인구 결과

55세 이상 인구 : FINAL PARAMETERS:				
Number of residuals	31			
Standard error	339.65927			
Log likelihood	-223.53493			
AIC	453.06986			
SBC	457.37182			
Analysis of Variance:				
	DF	Adj. Sum of Squares	Residual Variance	
Residuals	28	3318365.5	115368.42	
Variables in the Model:				
	B	SEB	T-RATIO	APPROX. PROB.
AR1	.75203	.11819	6.362820	.00000069
기간	433.74563	21.10649	20.550340	.00000000
CONSTANT	12250.13322	405.78668	30.188604	.00000000

<그림 70> 55세 이상 인구 자기상관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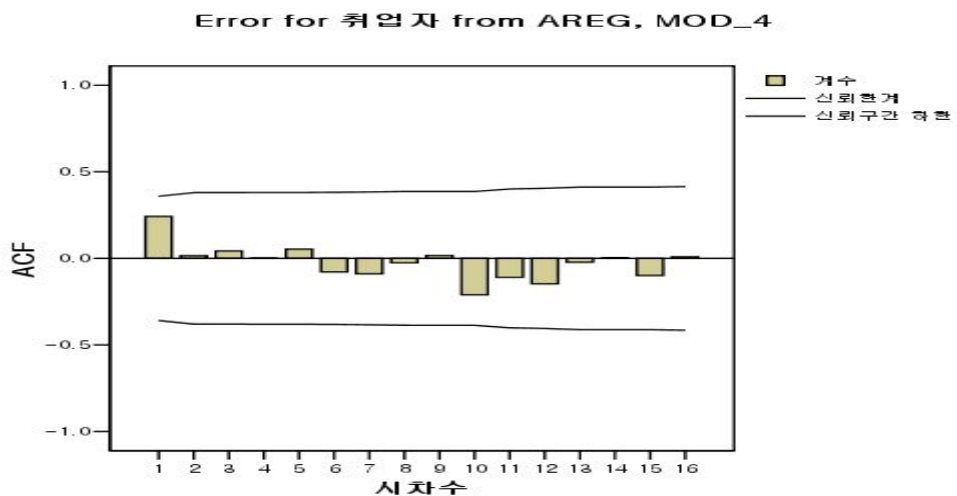
- 55세 이상 취업자

단순 ARIMA 모형 ARI 에서 기울기 $0.91059 < 1$ 이고 $T:9.8198 > 2$ 므로 5%수준에서 유의하다. 세계의 모수가 모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자기상관계수가 신뢰한계선 안에 존재하므로 잔차가 통계적으로 독립하다.

<표 93> 55세 이상 취업자 결과

55세 이상 취업자 : FINAL PARAMETERS:				
Number of residuals	31			
Standard error	112.55706			
Log likelihood	-189.73559			
AIC	385.47119			
SBC	389.77315			
Analysis of Variance:				
	DF	Adj. Sum of Squares	Residual Variance	
Residuals	28	375543.08	12669.091	
Variables in the Model:				
	B	SEB	T-RATIO	APPROX. PROB.
AR1	.91059	.09273	9.819848	.0000000
기간	124.34099	12.29705	10.111449	.0000000
CONSTANT	3496.18417	263.74750	13.255800	.0000000

<그림 71> 55세 이상 취업자 자기상관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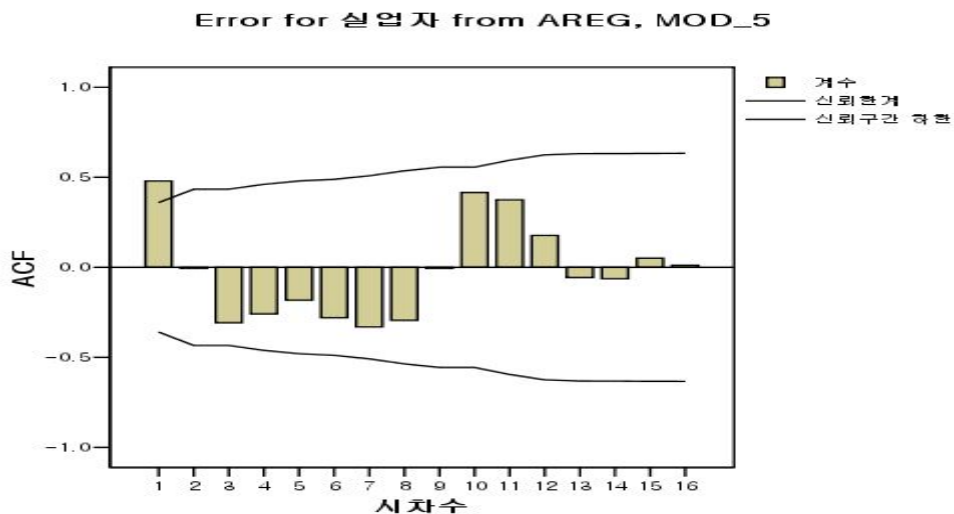
-55세 이상 실업자

단순 ARIMA 모형 ARI 에서 기울기 $0.0.73518 < 1$ 이고 $T:5.8798 > 2$ 므로 5%수준에서 유의하다. 세계의 모수가 모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자기상관계수가 신뢰한계선 안에 존재하므로 잔차가 통계적으로 독립하다.

<표 94> 55세 이상 실업자 결과

55세 이상 실업자 : FINAL PARAMETERS:				
Number of residuals 31				
Standard error	13.523256			
Log likelihood	-123.57944			
AIC	253.15888			
SBC	257.46085			
Analysis of Variance:				
	DF	Adj. Sum of Squares	Residual Variance	
Residuals	28	5250.6642	182.87846	
Variables in the Model:				
	B	SEB	T-RATIO	APPROX. PROB.
AR1	.73518	.125034	5.8798198	.00000253
기간	7.01114	.803039	8.7307578	.00000000
CONSTANT	128.39969	15.376253	8.3505190	.00000000

<그림 72> 55세 이상 실업자 자기상관도표



<표 95> 7개국 평균시계열결과 (2006부터 추정치)

년도	GDP (단위:\$)	전 연령					55세 이상			
		총인구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참가인구	취업자	실업자	55+ 인구	경제활동 참가인구	취업자	실업자
1975	5,175	84,074	71,044	53,066	36,199	2,011	12,778	3,960	3,825	136
1980	8,467	87,178	77,269	59,290	35,780	2,155	14,396	4,348	4,204	143
1985	12,048	85,193	64,077	41,806	35,602	2,933	18,043	5,160	4,904	233
1990	16,694	87,744	67,573	41,266	38,966	2,470	19,305	5,537	5,303	199
1995	20,406	90,634	72,049	43,857	40,845	3,099	21,291	5,955	5,675	280
2000	25,060	93,916	75,154	45,947	43,256	2,764	23,160	6,610	6,303	306
2005	30,516	96,994	78,373	47,837	44,907	2,983	25,778	7,981	7,645	334
2006	31,331	97,188	77,816	48,108	45,052	3,055	26,191	8,088	7,743	344
2007	32,148	97,420	77,440	48,346	45,225	3,120	26,610	8,197	7,844	353
2008	32,967	97,684	77,201	48,600	45,421	3,179	27,032	8,308	7,946	362
2009	33,786	97,975	77,066	48,868	45,635	3,233	27,457	8,421	8,051	370
2010	34,607	98,286	77,009	49,146	45,863	3,283	27,885	8,535	8,157	378
2011	35,429	98,616	77,012	49,434	46,104	3,329	28,314	8,651	8,265	386
2012	36,252	98,961	77,060	49,728	46,355	3,373	28,744	8,768	8,374	393
2013	37,076	99,317	77,142	50,029	46,614	3,415	29,175	8,886	8,485	401
2014	37,901	99,684	77,250	50,334	46,879	3,455	29,606	9,005	8,597	408
2015	38,727	100,059	77,378	50,643	47,150	3,493	30,038	9,125	8,710	415
2016	39,554	100,441	77,520	50,956	47,425	3,531	30,471	9,246	8,824	422
2017	40,382	100,829	77,674	51,271	47,703	3,567	30,904	9,368	8,939	430
2018	41,211	101,221	77,836	51,588	47,985	3,603	31,337	9,491	9,054	437
2019	42,040	101,618	78,004	51,906	48,268	3,638	31,770	9,615	9,171	444
2020	42,870	102,017	78,178	52,227	48,554	3,673	32,204	9,739	9,288	451
2021	43,700	102,419	78,355	52,548	48,841	3,707	32,637	9,864	9,406	458
2022	44,532	102,823	78,535	52,870	49,129	3,741	33,071	9,989	9,525	465
2023	45,364	103,229	78,717	53,194	49,419	3,775	33,504	10,115	9,643	472
2024	46,196	103,637	78,900	53,517	49,709	3,809	33,938	10,242	9,763	479
2025	47,029	104,046	79,085	53,842	50,000	3,842	34,371	10,369	9,883	486
2026	47,863	104,455	79,271	54,166	50,291	3,875	34,805	10,496	10,003	493
2027	48,697	104,866	79,457	54,491	50,583	3,908	35,239	10,624	10,124	500
2028	49,531	105,277	79,644	54,816	50,875	3,941	35,673	10,752	10,245	507
2029	50,366	105,689	79,831	55,142	51,168	3,974	36,106	10,880	10,366	514
2030	51,202	106,101	80,019	55,468	51,460	4,007	36,540	11,009	10,488	521

<표 96> 7개국 평균 시계열분석결과

년도	GDP		전 연령			55세 이상				
	상승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취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취업률	노령화지수
1975	0.7	60.9	2.0	39.6	95.7	20.9	2.0	20.3	73.0	40.9
1980	1.0	62.0	2.4	39.6	93.9	24.8	3.1	23.9	84.3	48.4
1985	3.6	58.2	5.4	45.5	90.9	27.3	5.0	25.9	94.2	56.1
1990	3.9	58.1	5.9	46.4	92.4	27.5	4.3	26.3	94.6	67.5
1995	3.3	58.0	7.5	45.2	90.8	26.5	5.9	25.3	94.1	73.3
2000	4.4	58.3	6.2	46.1	92.4	26.2	5.5	24.9	94.3	83.2
2005	2.5	58.9	4.8	47.2	93.0	28.1	4.7	26.9	95.2	96.1
2006	2.6	61.8	6.4	57.9	93.6	30.9	4.3	29.6	95.7	97.5
2007	2.6	62.4	6.5	58.4	93.5	30.8	4.3	29.5	95.7	99.0
2008	2.6	63.0	6.5	58.8	93.5	30.7	4.4	29.4	95.6	100.5
2009	2.6	63.4	6.6	59.2	93.4	30.7	4.4	29.3	95.6	102.1
2010	2.5	63.8	6.7	59.6	93.3	30.6	4.4	29.3	95.6	103.7
2011	2.5	64.2	6.7	59.9	93.3	30.6	4.5	29.2	95.5	105.4
2012	2.5	64.5	6.8	60.2	93.2	30.5	4.5	29.1	95.5	107.1
2013	2.5	64.9	6.8	60.4	93.2	30.5	4.5	29.1	95.5	108.8
2014	2.4	65.2	6.9	60.7	93.1	30.4	4.5	29.0	95.5	110.5
2015	2.4	65.4	6.9	60.9	93.1	30.4	4.6	29.0	95.4	112.2
2016	2.4	65.7	6.9	61.2	93.1	30.3	4.6	29.0	95.4	114.0
2017	2.4	66.0	7.0	61.4	93.0	30.3	4.6	28.9	95.4	115.8
2018	2.3	66.3	7.0	61.6	93.0	30.3	4.6	28.9	95.4	117.6
2019	2.3	66.5	7.0	61.9	93.0	30.3	4.6	28.9	95.4	119.3
2020	2.3	66.8	7.0	62.1	93.0	30.2	4.6	28.8	95.4	121.1
2021	2.3	67.1	7.1	62.3	92.9	30.2	4.6	28.8	95.4	122.9
2022	2.2	67.3	7.1	62.6	92.9	30.2	4.7	28.8	95.3	124.7
2023	2.2	67.6	7.1	62.8	92.9	30.2	4.7	28.8	95.3	126.5
2024	2.2	67.8	7.1	63.0	92.9	30.2	4.7	28.8	95.3	128.3
2025	2.2	68.1	7.1	63.2	92.9	30.2	4.7	28.8	95.3	130.1
2026	2.1	68.3	7.2	63.4	92.8	30.2	4.7	28.7	95.3	132.0
2027	2.1	68.6	7.2	63.7	92.8	30.1	4.7	28.7	95.3	133.8
2028	2.1	68.8	7.2	63.9	92.8	30.1	4.7	28.7	95.3	135.6
2029	2.1	69.1	7.2	64.1	92.8	30.1	4.7	28.7	95.3	137.4
2030	2.0	69.3	7.2	64.3	92.8	30.1	4.7	28.7	95.3	139.2

제 5 장 결 언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 회귀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고용구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용구조변수는 전 연령 고용구조변수와 고령층 고용구조변수로 나누어져 각각 경제성장 측정 변수인 실질경제성장률과 1인당국민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 일, 미, 유럽5개국(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각 국 노동력 조사 데이터 1975~2005년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고용구조 중 전 연령 고용구조와 고령층(55세 이상 인구) 고용구조의 변화를 비교하여 경제성장률과 1인당국민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I의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전 연령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는 부분적 채택 결과를 얻었으며,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 전 연령 취업률, 전 연령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전 연령 고용구조 중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를 통한 전 연령 취업률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전 연령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부적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생산가능 인구는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한 경제활동참가 인구의 증가와 함께 취업률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유발하며, 전 연령 실업률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다.

둘째, 가설 II의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전 연령 고용구조보다 더욱 많은 가설의 채택이 나타났으며,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고령층 고용률, 실업률이 경제성장률

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가설Ⅱ의 검증을 통해, 고령층 고용구조가 전 연령 고용구조와 비교하여 더욱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보여준다.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와 실업률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고령층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가적으로 고령인력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과 부적 관련성은 가지게 된다. 고령층 실업률이 부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고용률은 정적 관련성을 가진다.

셋째, 가설Ⅲ의 전 연령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전 연령 총인구,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 전 연령 고용률이 1인당 국민소득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전 연령 총인구의 증가는 생산가능 인구를 초과하고, 이는 또한 국가 노동력의 원천인 경제활동참가인구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중에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과는 오히려 부적 관련성을 가진다. 즉 전 연령 고용률이 증가한다고 해서 1인당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마지막으로, 가설Ⅳ의 고령층 고용구조와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계는 고령층 총인구,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취업률, 고령층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고령층 고용구조는 1인당국민소득간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의 검증에서도 전 연령 고용구조보다 오히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총인구 증가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경제활동참가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취업률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령층의 인구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1인당국민소득수준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취업률과 실업률 둘 다 정적 관련성을 가지게 되어, 취업률과 실업률의 증가 모두 1인당국민소득수준의 증가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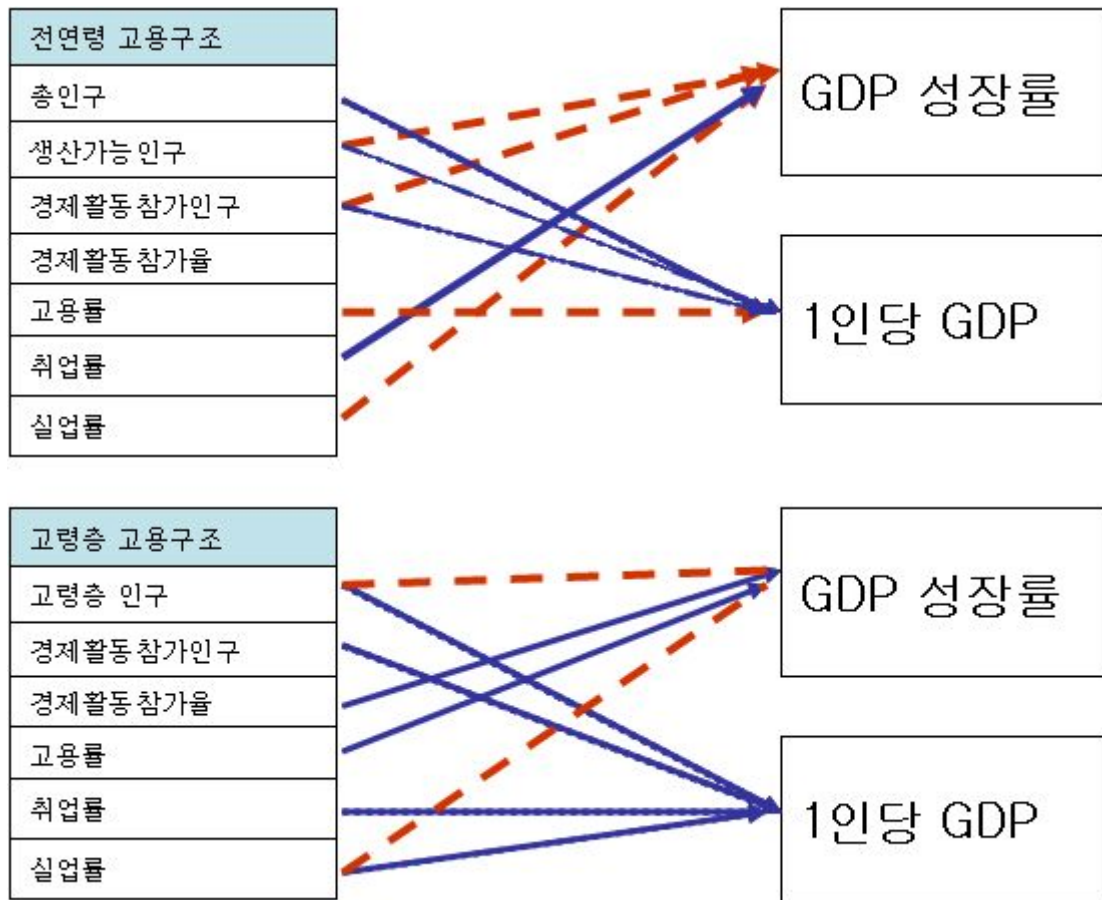
첫째, 전 연령 고용구조보다 오히려, 고령층 고용구조가 경제성장률과 관련성을 밀접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과의 관련성을 통해 고령층 고용구조의 특성이 결국 경제성장률에 중추적 역할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고용구조와 경제성장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실질경제성장률보다 오히려, 1인당국민소득을 변수로 하여 측정하는 것이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

장을 살펴보는 것에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실행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였다. 가설검증의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73>,<표 83>과 같다.

<그림 73> 회귀분석 가설검증 요약



(주: 정(+)의 관계는 →실선으로, 부(-)의 관계는 점선으로 표기)

<표 97> 회귀분석에 의한 가설검증에 대한 요약

가설 번호	가설의 내용	채택, 불채택 여부	관계
가설 I	전 연령 고용구조는 경제성장률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부분채택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취업률(+)
가설 I-1	전 연령 총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못함	
가설 I-2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3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4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못함	
가설 I-5	전 연령 고용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못함	
가설 I-6	전 연령 취업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7	전 연령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I	고령층 고용구조는 경제성장률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부분채택	실업률(-)
가설 II-1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I-2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못함	
가설 II-3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I-4	고령층 고용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I-5	고령층 취업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못함	
가설 II-6	고령층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II	전 연령 고용구조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부분채택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가설 III-1	전 연령 총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II-2	전 연령 생산가능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II-3	전 연령 경제활동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II-4	전 연령 경제활동참가율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못함	
가설 III-5	전 연령 고용률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II-6	전 연령 취업률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못함	
가설 III-7	전 연령 실업률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못함	
가설 IV	고령층 노동력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부분채택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가설 IV-1	고령층 총인구(생산가능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V-2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V-3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못함	
가설 IV-4	고령층 고용률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못함	
가설 IV-5	고령층 취업률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가설 IV-6	고령층 실업률은 1인당국민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2. 시계열분석결과 요약

7개국 평균자료에 의한 전 연령과 5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인구, 취업자, 실업자를 시계열분석 하여 이를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취업률, 실업률 산식에 의거 산출한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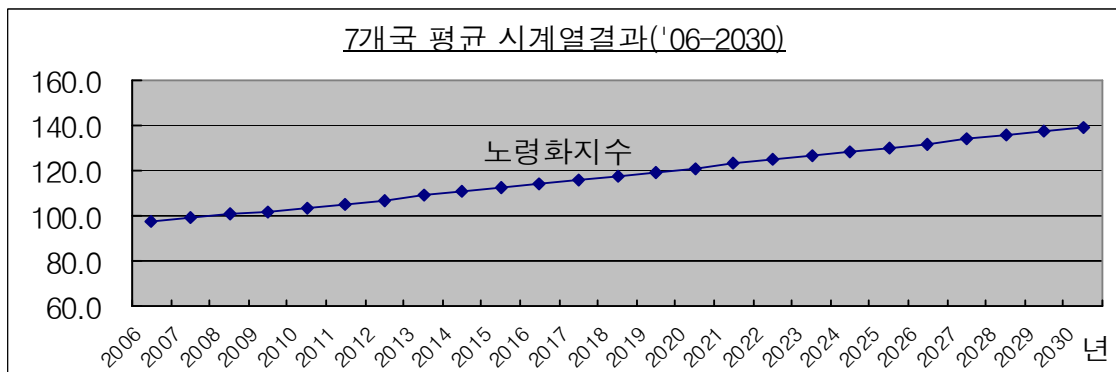
취업률은 노동력구조자료에 의하면 7개국 평균 84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층이 전 연령 취업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 연령의 절반수준이며 실업률은 전연령보다 낮으며 이 추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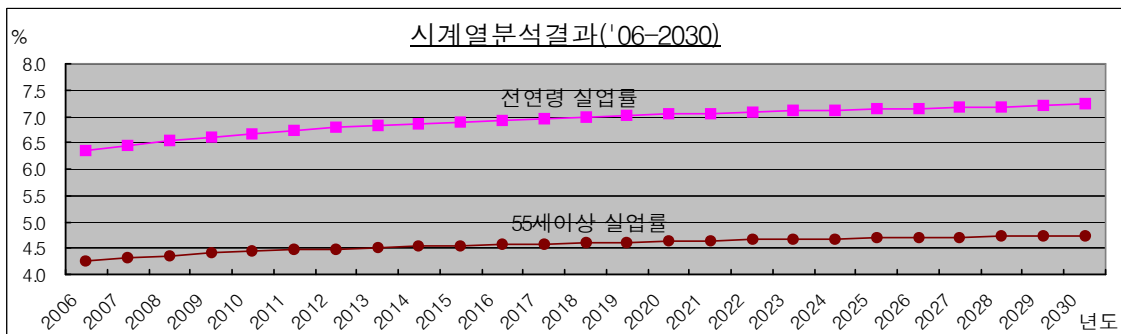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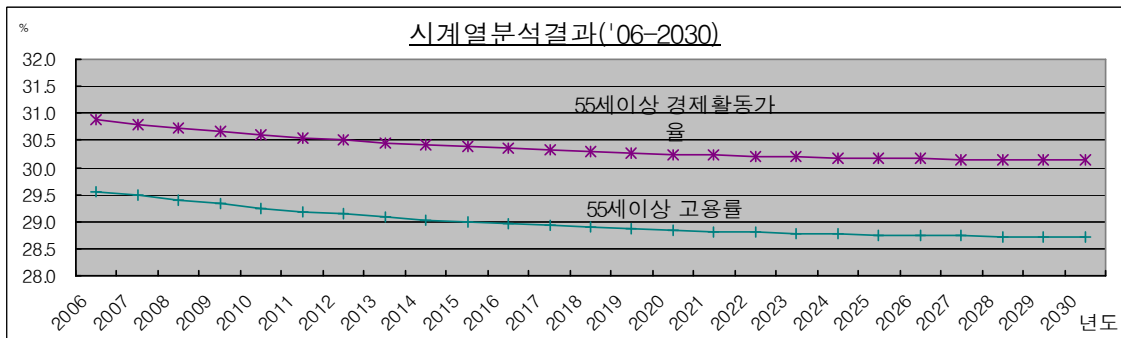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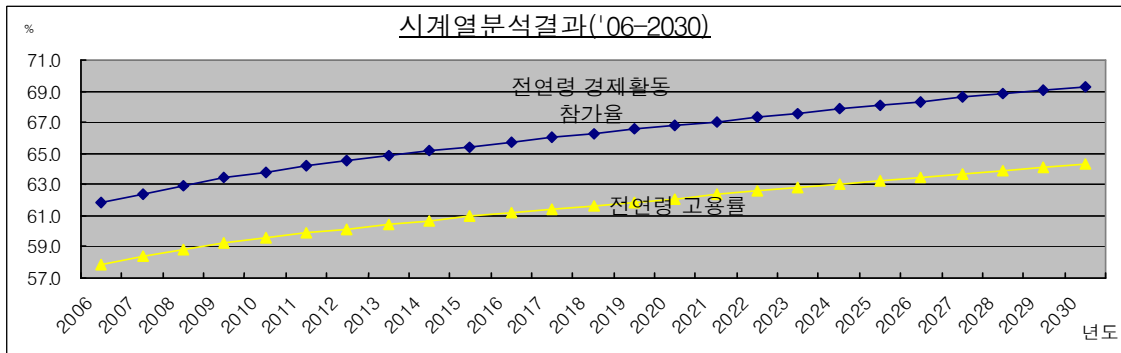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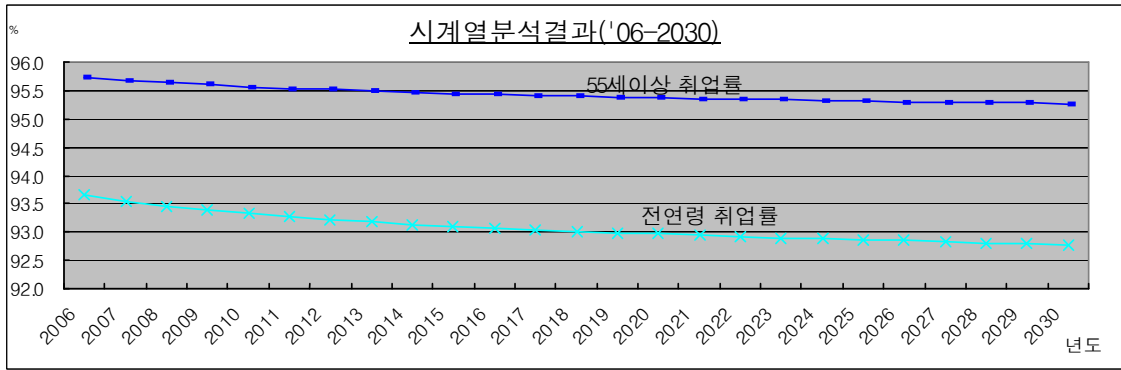
- 전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은 2030년까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출산율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과 인구의 절대수치는 증가하며, 여성인력과 고령자의 노동시장진입, 15-54세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55세 이상 고령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취업률은 감소하기 시작하고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인구는 증가하나 일자리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취업률은 감소할 것이며 실업률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층의 취업률은 전 연령보다 높으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전 연령의 절반수준을 감안할 때는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74> 시계열 분석결과 향후 추이 ('07-'05년 자료를 토대로한 '06-2030추세)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세계 각국의 고령화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은 저성장·저 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로 진입하는 속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및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령인력들의 고용구조변화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저 출산을 통한 생산가능인구의 저하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국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저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 시점에서, 고령층 인력의 고용구조와 경제성장과의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EU 5개국(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각국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통해 1975~2005년까지 시계열적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각 국가별 노동력 구조 데이터 산출 및 용어의 정의가 상이하니, 혼용하여 사용하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각 국가별 노동력 구조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함으로서 장래의 연구의 개념적 정의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고령층 고용구조를 살펴보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고용구조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령층 고용구조와 경제성장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분석에 의한 향후 고령층과 전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취업률, 실업률을 추정하여 노동시장의 흐름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의 제약으로 인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5개국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의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대상이 되고 있는 각 국가별로 고용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미래의 연구는 각 국가별 고용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셋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용구조와 경제성장간의 어느 변수가 독립변수이며, 어느 변수가 종속변수가 되는지에 대한 혼돈이 있다.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둘 간의 명확한 선행변수의 개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넷째, 2006년 이후 시계열 추정치중 경제활동참가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것과 이를 산식에 의거 계상한 수치로 '1975-2005년까지 경제활동인구를 토대로한 추정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섯째 시계열에 의한 추정은 과거의 노동력조사 자료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 의한 것으로 과거의 흐름과 달리 기술의 변화와 노동력시장의 환경변화 등이 있을 경우 추세는 달라 질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가 및 기업, 개인모두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지속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제 3 절 정책적 함의

본 논문에서 고용구조와 경제성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고령층 고용구조는 전 연령보다 더 많은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고령층 인력의 활용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향후 고령층 인구는 증가할 전망이나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 취업률은

과거 추세로 하면 낮아질 전망이어서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일자리 마련과 일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상의 대응방안은 단순히 시혜적·온정적 차원에서 고령인력의 계속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효율성과 기업생산성 제고 효과 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유능한 고령인력을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 인사상의 제반 제도들을 전환시켜 높은 생산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탄력적이며 유연한 인사관리 구축, 재직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각 사 사정에 맞게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재고용 또는 고용연장 등을 제도화되고 있지만, 철저한 사전준비나 관련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관리 전반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진기업들은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전반적인 변화를 함께 추구하고 있으며, 단지 정년연장·재고용 등과 같은 한두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근속연수 중심의 인사관리 및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심화시키고 고령 퇴직자의 재취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기업의 연령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연금수급 연령도 상향·조정할 전망이다. 만큼, 기업도 고령사회에 부합되고 기업 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인력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임금과는 별도로 기업이 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추가 제공해야 할 기업복지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몇 가지의 선택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인사 및 제도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정년보장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의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가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직장에서의 퇴출시기가 지나치게 빠른 지금의 현실에서는 정년연령의 연장 노력과 더불어 고용안정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년까지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 임금

제도 개선, 직무재설계, 직업능력개발, 경력선택제도 등 다양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또한 실질적인 은퇴와 연금수급시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국 기업들은 자국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연금수급개시연령을 고려하여 종업원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 은퇴(정년)와 연금 수급개시연령간의 간격이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맞춰 정년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고령자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우수한 능력을 갖춘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사장이 되지 않도록 국가나 개별 기업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의 육체적·생리적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에 적합한 생산라인 재구축과 작업환경 개선, 고령 친화적 직무개발, 사내 고령자의 전직 지원제도,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의 경우 회사 여건을 고려하여 고령자들이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자율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국제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긴 편이며, 특히 고령근로자들에게 장기 근로시간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작업 중 사고나 사망사고 발생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업안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업무 노하우는 단순하게 업무시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고령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도의 집중력과 완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편한 직군이나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등 고령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이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현재 기업에서 도입중인 탄력근무제로는, 일정시간 추가 노동한 경우 그 시간만큼 저축하여 필요시 해당 노동시간만큼 휴일로 이용하는 근로시간계정제, 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일 9시간 근로시 그 주나 그 달에 초과 근무시간만큼 단축 근무하는 유연적 노동시간제, 주 40시간 5일 근로를 압축하여 4일 40시간으로 전환하는 집중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탄력근무제처럼 과거 남성중심 주당 40시간 근로라는 완전고용의 경직적 사고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 근로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령인력의 확보와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넷째, 궁극적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을 위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령층에 고용기회 확대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년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나 노동능력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강제적, 자동적으로 종료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직무의 성격, 개인별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정년 설정은 불합리하며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연공제도 하에서는 정년 설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력화, 기술발전에 의한 노동 강도의 완화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년시기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수명연장과 개인의 노후 행복을 위해 고령자도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노동의 연장을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도적으로도 고령자의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고령화 사회에 노동력부족과 부담비용을 저감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와 기업 개인모두가 고령층 노동력활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금재호 2005.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전망,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한국노동연구원.
- 김동배 2006.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토론 「고령자 고용 및 정년제 실태와 정책과제」(뉴패러다임센터), 51-79.
- 김재인의.1998. 노인교육의 현황과 노인교육 정책. 『평생학습사회와 노인교육』, 교육부.
- 김현진 2003.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김훈·채인석 1999. 「일본기업의 고용관계의 특성과 HRM 혁신전략」, 한국노동연구원.
- 경제협력개발기구 2005.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 2006. 「2005년 임금구조 실태분석」.
- 노동부 2006.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11)」.
- 박우성 1998.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박영범·이태현·정진호 1999.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 및 노동조건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종희 2006.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토론.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정책적 제언」(뉴패러다임센터), 60-77.
- 박준성 1995. 「인재육성형 신인사제도-삼성LG그룹의 혁신사례-」, 비북스,
- 박준성 1996. 「기업경쟁력 강화와 신인사관리제도」, 대한서울상공회의소.
- 박준성 2004. 「임금관리 이론과 실제」, 명경사.
- 삼성경제연구소 2004. 「경제제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심포지움.
- 송태정 2005.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되었나」, LG경제연구원.
- 선한승 1998. 「연봉제 도입방안 연구 - 연구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손유미 2004. 「일본의 중·고령층 경력개발 지원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동균·전병휴 2002. 「실질임금의 경기변동 변화패턴과 임금곡선」, 노동경제

논집.

- 신동균 2005.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전망」, 노동경제논집, 1: 41-93.
- 엄동욱·배노조·이상우 200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이은미·엄동욱 2001.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 이지만 2006.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연구 「임금피크제의 국내외 도입사례 및 효과분석」 (뉴페리다임센터), 9-57.
- 이지만·정승화 2006.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과 확산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임춘식 2006. 「선진국의 고령사회 대처 사례」, (나라경제6월호), 45-48.
- 윤수봉 2004.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장지연 2003. 정년제개선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우리나라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 (대한은퇴자협회), 55-76.
- 장지연 2003. 고령자의 임금과 취업형태.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I」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 1996.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의 2004.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 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 한진희 외 200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 2003~2012」, 한국개발연구원.
- 최종태 2000. 「현대인사관리론」, 박영사.
- 최숙희외 2007.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5. 「기업내 근로자 고령화 현황과 정책과제」.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5. 「승진관리 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1997. 「우리나라의 임금」.
-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리뷰 9월호」, 93.
- 한국노동연구원2005. 「중고령자 고용안정 실태조사」.

[외국문헌]

-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 2005. 「고령자고용기업사례베스트20」.
- 일본후생노동성 2004. 「고용관리조사」.
- 일본후생노동성 2005. 「취로조건총합조사」.
- 西嶋昭 1985. 「居樹伸雄 賃金制度의 新設計」, 日本生産性本部.
- 肥後文雄 2003. 「定昇のない業績賃金メリットペイ, 同友館.
- 潼澤算織 1991. 「賞與·成果配分制度の決め方」, 經營書院.
- 菊野一雄·平尾武久 1988. 編著, 「雇用管理の新 ビジョン」, 中央經濟社.
- 日本生産性本部 1981. 「定年延長と 雇用處遇制度の 改革」.
- これからの賃金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會 編 1990. 65歳 までの繼續雇用
と賃金制度.
- Alan Felstead , Harvey Krahn, Marcus Powell.1999. Young and old at risk
Comparative trends in non-standard patterns of employment in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0(5):277-296.
- Brockner, J. 1992. Managing the effects of layoffs on survival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9-28.
- David Biggs, Brendan Burchell, Mike Millmore.2006. The changing world of
the temporary worker: the potential HR impact of legislation.
Personnel Review. 35(2):191-206.
- EUROSTAT 2006.
- Feldman, D. C. 1994. The decision to retire early: A review and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285-311.
- Gibson, V. M. 1991. The ins and outs of outplacement, *Management
Review*, 80(10): 59-61.
- K.P.Kalirajan. 1998. Ageing labour force in a labour shortage economy:The
case of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25(2,3,4)486-503.
- Lawler III, E, E 2003. Reward Practice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Dynamics*, 32(4):396-404.
- Milkovich, G, T. and Newman, J. M. 2002. New York:McGraw-Hill

- Irwin, *Compensation*.
- Maller, J. H. and Milkovich, G. T. 2000. *Determinant of Preference for Contingent Employment*, CAHRS Cornell University.
- Noreen Clifford, Michael morley & Patrick Gunnigle. 1997 Part-time work in Europe, *Employee Relations*, 19(6):555-567.
- John Burgess , Julia Connell. 2006. Temporary work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issues challenges and responses. *Personnel Review*. 35(2):129-140
- Valeria Maione. 2000 The female labour market in Ital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Women in Management*, 90-104.
- Bernanke, BS, and RS. Gurkaynak, 2001, "Is Growth Exogenous? Taking Mankiw, Romer, and Weil Seriously", Paper presented at the NBER Macroeconomics Annual Conference
- Borsch-Supan, A, 2000. "A Model under Seige. A Case Study if the Germany Retirement Insurance System," *The Economic Journal* 110(461), 24-45
- Cutler, Dm, Jm. Poterba, Lm. Scheiner and L.H. Summers, 1990, "An Aging Society: Opportunity or Challeng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73
- Habakkuk, H.J. 1962, *American and British Technology in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digliani, F, 1986, "Life Cycle, Individual Thrift, and the Wealth of N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76, 297-313

ABSTRACT

The structure of old age labor force and GDP Growth

Lee Kuk Jong

Department of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ll over the world, countries are experiencing slower growth and productivity low birth rate. This development will in turn affect the labor market, creating a reduction in the pool of potential workers. These are people who must participate in the economy, to revitalize it. In a society that values results and shed at a fast pace to accommodate that standard, a shortage of labor can create a potentially large quandary for the world's economy.

This problem will especially affect Korea in the year 2008. With the average income for one person slated to reach \$20,000 per year, Korea will finally be on par with economies of other advanced nations. However, in analyzing trends between countries that have made similar leaps from low to high economic growth(\$10,000 to \$20,000 income disparities) problems can commonly appear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the middle to advanced stage. This is defined to be the turning point from factory to service-oriented industries. At this point, questions arise about the lack of available labor on hand and those who already actively labor on hand and those who alread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economy.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use a great deal of the female and older

generation demographics to fill the majority of jobs.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employing these two groups of people and stimulating economic growth. In observation of this trend, it is worth researching female and older generation demographics and their labor structures, since the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he most to a country's potential advancement.

Moreover, to measure the economic growth rate for a country, the actual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average income per person is considered. The entire labor structure and that of the older demographic of workers can also be compared to see what type of influences they rendered, and which one was the most influential upon growth.

Research has found as follows:

First, assumption one is that the entire labor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re partially related. Economic growth also depends on a number of other factors. These include the entire potential labor population, current participants, and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for all ages of laborers.

Secondly, assumption two is that the labor structure of the older demographic of people has more influence on the growth of the economy than the entire labor structure for all ages of people. For the older demographic, potential labor population, current participants, and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are even more influential to economic growth.

Thirdly, assumption three is that the entire population, the entire potential labor population, the entire participant population, and the entire employment rate, are all closely related to the average income per person annually.

Lastly, assumption four is that the old age labor structure and the average annual income per pers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total population of current

laborers, potential laborers,

the entire labor structure for all ages, the older aged labor structure has been found to be more closely tied to economic growth. Ultimately, the structure of labor structure of the older demographic has the most major impact upon stimulation of the economy.

Second,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structures and the change of economic growth versus actual economic growth, measuring the average income annually per person based on labor structure is the concluded method.

key word : ageing, low birth rate, labor force, gdp